

결혼과가족

사랑의 의미 / 1주차 1차시

1. 사랑의 정의

-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오묘한 감정이다.
- 사랑은 가장 황홀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고통스런 체험이기도 하다.
-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과 문학의 변함없는 주제였다.
- 온 인류의 최대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회자되어 왔다.
- 사랑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관계 확장과 형성에도 기여하는 요소이다.
- 사랑은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통,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 사랑의 사전적 정의 : 아끼고 위하며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또는 그러한 마음

1) 학자들의 정의

■ 플라톤(Platon)

- 누구를 사랑한다 함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미(美)와 선(善)의 진수를 알아보는 것

■ 페르(Fehr, 1988)

- 신뢰감, 지지, 충실성, 존중, 돌봄, 상대방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헌신, 정직성, 상대방이 잘 되도록 마음 쓰는 것 상대방에 대한 관심, 상대방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우정

■ 매슬로우(Maslow, 1954)

- 결핍적 사랑과 실존적 사랑
- 결핍적 사랑: 자신의 불안정감과 낮은 수준의 정서적인 욕구로부터 나옴
- 실존적 사랑: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욕구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에서 나옴

■ 루빈(Rubin)

- 사랑이란 상대방 없이 못 산다는 애착, 그의 편안과 행복을 원하는 배려, 사랑 받는다는 느낌, 믿을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신뢰

■ 프롬(Fromm, 1995)

- 사랑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감각이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일을 이루게 하는 힘

■ 사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요인을 가진 것

■ 사랑에는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음

■ 신뢰, 믿음, 행동이 표현된 것이 바로 사랑

2. 사랑의 특성

1) 사랑은 현실 생활에 존재한다.

■ cf) 사이버 사랑

2) 사랑의 능력은 개인의 문화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

■ 사랑의 감정

- 어려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가 보이는 사랑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형성
- ex) 회피애착 & 불안애착

■ 사람마다 사랑을 생각하는 의미가 다르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름

3) 사랑은 여러 단계로 존재할 수 있다.

■ ex) 카마수트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애의 양상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을 품으며 거치는 10단계의 변화	
• 1단계 :	여성을 만나서 보기만 해도 좋은 단계
• 2단계 :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는 단계
• 3단계 :	그 여성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심정과 자꾸 마음이 쏠리는 감정이 결합되어 만나고 싶은 욕망을 참기 어려운 단계
• 4단계 :	그리움에 잠을 설치는 밤이 많아지는 단계
• 5단계 :	사랑이 병이 되어 잠을 못 자고 식욕마저 떨어져 음식을 제대로 들지도 먹지도 못하여 야위어 가는 단계
• 6단계 :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온통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여자뿐이어서 거울을 들여다봐도 자기 얼굴이 없을 지경인 단계
• 7단계 :	주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여자만을 생각하면서 수치심마저 잃은 채 행동하는 단계
• 8단계 :	정신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망상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져 광란하는 단계
• 9단계 :	정신을 잃는 단계
• 10단계 :	마침내 목숨마저 잃고 마는 단계

4) 사랑에는 여러 다른 형태가 있다.

■ 사랑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랑을 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 형태는 다양함

ex) 고대 희랍인들

- 에로스 : 성적, 육체적 사랑
- 아가페 : 타자실현적인 무조건적 사랑
- 필로스 : 동료적인, 친밀한 사랑

5) 사랑은 성장한다.

■ 사랑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일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님

- 사랑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

■ 사랑은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감정의 놀이가 아님

- 사랑은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며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과 같은 감정을 맛볼 수 없게 됨

-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인간관계

3. 사랑의 토대

1) 애착 : 영아와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 생존기제로의 애착행동
- 영아의 근접과 접촉추구 행동
- 대표적인 애착행동 : 젖 빨기, 매달리기, 따라다니기, 울기, 미소 짓기
- Bowlby : 애착은 모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것
- Harlow의 연구 : 수유가 애착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 → 부드러운 접촉 & 보살핌

2) 애착의 유형

- 안정애착
 -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쉽게 떨어짐
 - 낯선 사람보다 어머니에게 더 확실한 관심
 -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위안을 찾고 탐색함
 - 어머니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쉽게 편안해짐 → 즉각적, 일관된, 민감한 양육행동
- 저항애착
 - 어머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 불안해하고 어머니 옆에 붙어서 탐색을 별로 하지 않음
 -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심한 분리불안을 보임
 - 어머니가 돌아오면 접촉하려도 시도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분노를 보이며 소리치고 밀어냄 → 비일관된 양육행동
- 회피애착
 - 어머니에게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음
 - 어머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고 돌아와도 무시하거나 회피함
 -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으며 낯선 사람과 어머니에게 비슷한 반응을 보임 → 방임적인 양육행동
- 혼란애착
 - 불안정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로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이 결합된 것
 - 어머니와 재회했을 때 얼어붙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거나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봄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 및 심리적 문제가 있는 양육자

3) 애착의 단계

- 전 애착단계
 - 출생 후 6~8주
 - 무분별적 사회적 반응단계
- 애착형성단계

- 2~3개월에서 6~8개월 경
- 분별적 사회적 반응단계

■ 애착단계

- 생후 6~8개월부터 1세경
- 특정한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성 유지단계
- 낯가림 & 분리불안

■ 상호관계의 형성단계(목표수정적 동반자 관계)

- 2~5세
- 주 양육자와 유아가 공동의 목표나 서로의 계획을 구성하고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

4) 내적 작동모델

- 애착행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을 특징지음
- 생애 초기 영아와 주 양육자 간에 형성된 강한 애착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며,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전생애적으로 애착이 발달하는 것은 타고난 애착행동체계가 경험에 기초한 내적 작동모델과 결합하여 성격을 구성하기 때문

내적 작동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에 대해, 그 사회적 관계 속의 중요한 타인들에 대해, 그리고 자아에 대해 발달하는 내적 표상

- 생애 초기 영아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영아 자신의 행동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통해 영아들이 받는 피드백 등의 경험으로부터 발달
- 영아와 양육자 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내적 작동모델의 본질은 양육자가 영아의 욕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도움을 주는가에 의해 주로 결정
- 생애 초기 내적 작동모델은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면서 비교적 유동적이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동하게 되다가 점차 애착대상과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모델이 구성, 강화되면 점차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게 됨

5) 성인기의 애착과 사랑

■ Hazan과 Shaver(1984)

- 성인기 애착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 성인기의 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영아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발달된 애착유형에 기초한다는 가정을 제시

■ 영아기 애착과 성인기 애착의 차이점

- 영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물리적인 면에서 주로 어머니가 영아를 일방적으로 돌보지만, 성인기의 남녀는 상호호혜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살펴 줌
- 영아기 애착에서는 섹슈얼리티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성인기의 애착에서는 섹슈얼리티의 특성이 강함

- 성인기에는 애착, 돌봄과 섹슈얼리티라는 세 가지 중요한 행동체계가 사랑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음

■ 성인기 애착유형 : 차원모형 & 범주모형

차원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착이 서로 다른 개념의 유형들로 이루어진 범주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적인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주장 • 회피와 불안의 정도에 따라 성인애착유형을 연속적인 차원으로 개념화한 것

범주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범주 모형 :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 4범주 모형 : 안정유형, 무시유형, 집착유형, 두려움유형 cf) 회피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려움형 :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거나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유형 - 무시형 • -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피전략을 사용하는 유형

<p>안정적 유형 친밀함과 자율성을 편하게 수용</p>	<p>몰두된 유형 관계에 집착함</p>
<p>거부적 회피 유형 친밀감 무시, 의존 거부</p>	<p>두려운 회피 유형 친밀감을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회피</p>

-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안정적 유형

- 따뜻하고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에서 비롯
- 높은 자아존중감과 대인 간 친밀한 관계에 편안함을 느낌

■ 몰두된 유형

- 비일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한 개인들이 보이는 유형
-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큼
- 따라서 타인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과도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징

■ 두려운 회피유형

- 사람들과의 접촉과 친밀감을 원하지만,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과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됨
-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타인들 역시 자신을 돌보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 거부적 회피유형

-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운 회피유형과 구별됨
- 일에서의 성취 등을 통해 형성된 경향일 가능성이 높음
- 타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두려운 회피 유형에 비해서는 수동적인 회피 성향을 보임
- 독립성과 자율성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있음

사랑의 이해 / 1주차 2차시

1. 사랑의 정의

1) 자아개념의 발달

■ 자아개념

- 자신에 대한 지각들의 조직된 형태
-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지각, 자신과 연관이 있는 타인이나 환경에 대한 지각, 경험 및 대상과 관련된 가치의 지각,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목표나 이상 등으로 구성

■ Mead의 반영이론(자아가 발달하는 3단계)

- 준비단계 :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정도에 그치는 단계
- 놀이단계 :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제3자로서 의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배워가게 되는 단계
- 게임단계 : 주위 사람과의 조직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단계
- 자아개념이란 사회적 거울
 -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종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애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변화의 경험이 중요 이때 부모는 개인의 중요한 타인으로서 자아개념의 첫 번째 중요한 원천

■ 자아개념의 정립은 성인이 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님

■ 낭만적 애착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었을 때만 가능

(Erikson의 6단계 : 친밀감 vs. 고립감)

cf) 친밀감 : 타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정체감을 찾아가는 것

■ 확고한 자아개념(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의 특성

- 개별성 :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얼마쯤 타인과 공유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다르다는 인식
- 총체성 :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
- 계속성 :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

■ Marcia의 자아정체감의 네 범주와 사랑 혹은 친밀감 형성 간의 관계

- 정체감 성취
 - 자신의 인생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에 적극적으로 관여
 - 타인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성장을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성장과 변화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음
 - ☞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

- 정체감 유예

- 친밀감을 형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정체감을 형성하는 문제로 위기상태에 있음
- 타인들이 자신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 함
 - ☞ 현재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

- 정체감 유실

-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타인들이 세운 계획을 받아들임
-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람과 교제, 결혼하는 경향이 있음
 - ☞ 자신의 신념, 직업선택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수많은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부모나 다른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

- 정체감 혼미

-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부모나 권위적 인물에게 대항하지도 못함
- 위기에 직면해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때문에 진실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외로움
 - ☞ 자아에 대해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 데 실패한 상태

■ Marcia의 자아정체감의 네 범주

		위기	
		예	아니오
수행	예	정체감 성취 (위기 해결)	정체감 유실 (위기경험 없음)
	아니오	정체감 유예 (위기 현재 진행 중)	정체감 혼미 (위기경험 없음)

출처: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정옥분. 2015. p425

2. 남녀의 차이

- 과거에는 성차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는데 성차보다는 개인차가 중요한 관점이었음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개개인의 차이를 넘어서는 주요한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지배적

출처: 흔들리는 20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금주. 2015

1)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성차

■ 사회정서적 차이

- 정서의 이해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남
 - 여성은 비언어적 단서(표정, 몸짓, 정서 등)를 통해서 상대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함
 -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의도하는지 혹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추론하는 마음이론능력에서도 여자 아이들이 3세 때부터 남자 아이들을 앞서는 경향이 있음
 - 여성들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남성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감
 - 공감 :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 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정서적 요소로 구성됨
 - 공감 능력은 어릴 적부터 성차를 나타내는데, 남자 아이들은 덜 공감하고 더 자기중심적임
 - 공감능력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침
 - ☞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여성의 우정이 더욱 친밀하고, 여성의 공격 성향이 낮다는 것이며, 이로써 사회적 기술에서 나타나는 성차까지도 설명할 수 있음
- 사회성
 - 여성은 남성보다 대인관계에 더 의존적이고, 남성은 힘과 정치, 경쟁 등에 가치를 둬
 - 남녀의 사회성 : 남성들은 동성 또래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를 바람에 큰 무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둘씩 짝을 짓거나 적은 수의 집단을 이루어 노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은 친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감'으로 꼽는 반면, 남성은 '공통의

관심사'라고 생각함

-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

- 여성은 도움을 직접 요청 받는 경우에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은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 공격성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더 공격적이고, 여성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공격적이어서 냉대하고 무시하며 상대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적의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

■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 과시성 vs. 은폐성

- 남성은 과정적인 대화 내용을 즐기고, 여성은 과시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은 과시하는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과시를 힘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도 않음

- 말 그대로? 혹은 말에 담긴 속뜻?

- 여성은 문제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어함
- 남성의 경우에는 정서적 표현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바라는 여성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남성의 뇌 : 해결지향적 vs. 여성의 뇌 : 관계지향적
- 여성은 생각하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마음과 다르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며 정서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

■ 인지적 차이

- 기억

- 남성은 객관적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기억하는 반면, 여성은 보다 사람 중심적인, 관계 지향적인 내용의 정보들을 기억함

- 공간적 추론능력

- 남성은 공간배치나 공간개념이 여성보다 우수
- 공감 :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황 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
-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는 정서적 요소로 구성됨
- 공감 능력은 어릴 적부터 성차를 나타내는데, 남자 아이들은 덜 공감하고 더 자기중심적임

2) 사랑에서의 성차

■ 사랑의 끌림

- 전통적인 진화론적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능력에 끌리고 남성은 여성의 외모에 끌린다고 함
- 남성과 여성은 모두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여성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가진 남성을 선택하고, 남성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아이를 얻기 위해 우수한 생산능력을 가진 여성을 찾음

■ 사랑의 방식

- 여성은 주로 자기노출이나 감정적 몰입, 애정표현 등의 정서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남성은 함께 활동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도구적인 도움이나 행동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김
-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관심과 이해, 존중을 받으며 자신에게 기꺼이 헌신한다고 느낄 때 사랑에 대해 확신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신뢰와 인정, 지지를 받을 때 사랑의 확신을 가짐
- 연인관계에서 여성은 상대방중심적이고 불안중심적인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이고 회피중심적인 특성을 보임

■ 사랑의 갈등

- 문제가 생기면 여성은 말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만 남성은 침묵하는 경향이 있음
 - 남성은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하며, 여성은 갈등해결 과정을 자신이 통제하고 문제에 직면하고자 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남성보다 더 많이 함
- 여성은 남성보다 부정적인 감정표현이나 부정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상대의 신경을 건드리며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 강함

사랑의 이론적 접근 / 2주차 1차시

1. 사랑의 색깔 이론

1) Lee의 사랑의 유형 : 사랑이야기 카드 분류법

- 여러 문학 작품과 사람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랑의 유형을 도출
- 사람마다 색에 대한 선호가 다르듯이 사랑 또한 어느 하나의 이상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호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사랑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2) 사랑의 기본색

- 에로스(Eros) : 열정적 사랑
 - 강한 정서적 감정을 수반하는 사랑
 -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적 유형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상형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첫눈에 반함
 - 주로 시각적인 신체적 매력에 끌리며, 강력하면서도 육체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관계를 원함
 - 언제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 사랑을 지나칠 정도로 갈망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몰두하기를 바라지만 상대방을 소유하려 들지는 않음
 - 주로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지각하고, 일을 즐기며 사랑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준비도 되어 있음
- 루두스(Ludus) : 유희적 사랑
 - 사랑을 일종의 게임 또는 놀이로 생각
 - 정서적 몰입도가 적은 사랑
 - 마음 속에 그리는 이상형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상대를 고르지 않으며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음
 -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린시절을 그저 평범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몇 번의 좌절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
 -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일도 없고 사랑에 대한 헌신을 기피하므로 미래에 대해 함께 계획하는 것도 꺼림
- 스토르게(Storge) : 우애적 사랑
 - 가깝고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
 - 노골적인 감정표현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선호함
 - 격렬한 열정보다는 은근히 발전해가며, 지속적인 정에 근거한 사랑을 추구
 - 전형적으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가족구성원이 많고 지지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나 혹은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

- 사랑을 우정과 가정이라는 보다 큰 목표의 한 측면으로 생각

3) 사랑의 이차색

■ 마니아(Mania) : 소유적 사랑

- 에로스 + 루두스
- 광적인 사랑
- 소유욕이 강한 사랑으로 극도의 의존성과 질투가 강한 것이 특징
-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항상 상대방부터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함
- 이들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음
-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일에 대한 심한 불만을 느끼거나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 사랑을 하는 동안도 굉장히 힘겹게 하고, 관계의 종결도 상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프래그마(Pragma) : 논리적 사랑

- 스토르게 + 루두스
-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쇼핑 목록 같은 사랑
-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를 고름
- 상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헌신을 하거나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를 꺼려함
- 자신과 서로 어울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상대를 찾기 위해 적절한 후보를 의식적으로 물색하면서, 황홀한 낭만이나 육체적인 매력은 그다지 추구하지 않음
- 과도한 감정의 표출이나 질투심 경멸
- 이 유형은 주로 중매결혼 문화권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음
-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린시절과 현재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노력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생각

■ 아가페(Agape) : 이타적 사랑

- 에로스 + 스토르게
-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고 돌봐주며 용서하고 베푸는 자기 희생적 사랑
- 헌신적이며 이타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랑의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의지의 표현이자 의무로 지각
- 심지어 상대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있음

2. 사랑의 수레바퀴 이론

- 사랑의 발달을 바퀴처럼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설명

1) 라포형성(일치감)의 단계

- 서로 좋아하고 원하게 되는 단계
-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마음을 열게 되고 우호적 감정을 느끼는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단계
- 라포는 상호 신뢰하고 존경에 의해 형성되는데, 라포를 형성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함
- 일반적으로 라포는 사회계층이나 종교 등 배경이 유사할 때가 형성되기가 용이함

2) 자기노출의 단계

- 서로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주고받는 단계

3) 상호의존의 단계

-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면서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로 발전
- 서로에게 관심과 호의를 보이고,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며,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됨
-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행동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시작해서 감정적 상호의존 관계로 발전
- 개인욕구충족의 단계를 유도함

4) 개인욕구충족의 단계

-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랑 받고자 하며, 타인에게 이해, 지지 그리고 격려 받고자 하는 감정적 욕구를 지니고 있음
- 서로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상대방의 감정적 욕구에 만족한다는 것을 지각함
- 이에 따라 좀더 깊은 자기노출, 상호의존관계 심화 그리고 욕구만족 증대 등으로 진행됨
- 사랑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네 단계가 계속적으로 수레바퀴가 돌 듯 회전하며 진행되어야 가능

3. 사랑 삼각형 이론

- 사랑을 세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
- 각각의 요소들의 중요성은 관계의 기간에 따라서 상이하고, 다른 특성을 지님

1) 사랑의 세 가지 구성요소

- 친밀감
 - 사랑의 정서적 측면
 -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끼는 가깝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맺어져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 속성
 -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 이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

- 곤경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 자신의 소유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도 포함
- 친밀감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처음에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점차 속도가 감소하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됨
- 초기에 친밀감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서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 열정

- 사랑의 동기적 측면
- 낭만적인 감정을 일어나게 하거나, 신체적 매력을 느끼고 성적 관계를 맺는 등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망
- 친밀감과 달리 열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생겨나 금방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얼마 못 가서 열기는 식고,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됨
- 열정은 중독적인 속성이 있어서 열정이 사라질 때 금단증상이 유발됨
ex) 허탈감, 신경질의 증가, 의욕 상실 및 식욕 감소

■ 결심/책임감

- 사랑의 인지적 측면
- 단기적 측면: 결심(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
- 장기적 측면: 책임감(그 사랑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
- 결심/책임감은 처음에는 원점 상태에서 시작하여 서로가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 정비례로 커지게 됨

2) 사랑의 유형

좋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요소에서 친밀감만이 경험될 때를 의미 • 진정한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우정과 같은 것 • 강한 열정이나 장기적 책임은 없지만 상대를 향해서 친밀감,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따뜻함 같은 것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
도취적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 결심or책임감 요소가 결여된 열정적인 흥분만으로 이루어진 사랑 • 첫눈에 빠진 사랑 혹은 상대를 자기 안에서 이상화시켜서 보는 망상으로 치우치는 사랑
공허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이나 열정이 없이 결심 or 책임감만 있는 경우를 의미 • 몇 년 동안 계속 서로간에 감정적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부부들에게서 발견됨
낭만적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심 or 책임감 요소는 없이 사랑의 친밀감과 열정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랑의 경우 • 육체적 매력이나 그 밖의 매력들이 첨가된 좋아함의 감정

동료적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친밀감과 결심 or 책임감 요소의 결합으로 생김 • 열정의 주된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약해진 오래된 친구와 같은 부부관계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랑
완전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관계에서 친밀감, 열정 그리고 결심 or 책임감의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존재할 때를 의미
사랑이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세 요소가 모두 없는 상태

3) 사랑삼각형의 기하학

-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균형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 만들어짐
-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상대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강도가 클수록 상대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삼각형의 면적이 커짐
- 관계에서의 사랑의 균형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

사랑의 탐구 / 2주차 2차시

1. 연애가 잘 안되는 이유

- 1) 올바른 사람과 사귀고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
 - 잘못된 대화습관
 -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모름
 -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관계 자체에 태만함
- 2) 잘못된 사람을 사귀고 있는 경우
 - 사랑 스타일 혹은 생활양식이 서로 어울리지 않음
 -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없고 관계에 충분히 전념하지 않음
 -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함
 - 서로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줄 수 없음

2. 사랑에 대한 신화들

- 1)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한다면 어떤 갈등이나 성격적인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관계상의 문제들을 직면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을 피함
 - '내가 그/그녀를 더 많이 사랑해 주면 그/그녀가 변할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애정이 없고 만족스럽지 않는 관계를 지속함
 - 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단지 내가 그/그녀를 더 많이 사랑했다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괴롭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서로 융화할 수 있어야 하고, 관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 2)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알 것이다!?
 - 강렬한 끌림 또는 결합을 너무 깊이 생각한 나머지 관계의 나머지 부분을 살피는 것을 회피함
 - 섬광 같은 시간에 중독되어 현실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사랑을 할 기회를 놓침

폭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다.

- 3) 나에게 맞는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을 환상 속의 '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함
 - 한 관계가 끝난 후에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지 못함

한 사람 이상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연인은 많다.
" 인간의 마음은 그 용량이 엄청나다. "

4) 완벽한 연인이라면 모든 면에서 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줄 것이다!?

- 당신 자신이 충족시켜야 할 욕구들을 연인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좋은 관계를 알아보지 못함
- 당신이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을 당신 연인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냄

나에게 맞는 연인은 내가 지닌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지만,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5) 누군가와 강렬한 성적공명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일 것이다!?

- 융화할 수 없는 사람과 사귀
- 이미 끝냈어야 할 관계에 머물러 있고, 맞지 않는 연인을 떠나 보내는 것을 힘들어함

성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관계는 사실상 거의 없다.
→ "융화" : 서로 어울려 갈등없이 화목하게 됨

3. 사랑에 빠지는 잘못된 이유

- 압력, 삶으로부터의 도피, 외로움, 성장의 회피, 성욕, 죄책감, 정서적 또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1) 올바른 이유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

- 당신 스스로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그 사랑을 공유하고 싶어함
- 사랑하는 사람의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기꺼이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함

4. 관계 초기에 범하는 6가지 큰 실수

1) 충분히 질문하지 않는다.

- 관계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
 - 낭만적이지 못함
 - 답을 알고 싶지 않음
 - 당신 또한 상대방이 당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원치 않음
→ 무지한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님
- 당신의 연인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

- 가정 배경 및 가족관계
- 과거의 애정관계 및 헤어진 이유
- 삶의 경험들로부터 배운 교훈
- 도덕, 가치, 품행
- 사람 및 대화에 대한 태도
- 영적, 종교적 신념
- 개인적, 직업적 목표

2)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한다.

■ 진단

-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신호였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바보처럼 느꼈던 적이 있는가?
- 당신은 사람이나 상황에서 좋은 면을 찾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 이전 관계를 회상해 볼 때,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에야 보이는 것이 있는가?

■ 이유

- 그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함
- 상대방을 위해 변명함
- 합리화
- 부인

3) 성급히 타협한다.

■ 성급하게 타협하는 방식

- 신념과 가치관을 타협하기
- 당신의 흥미와 활동을 타협하기
- 당신의 친구와 가족을 타협하기

■ 관계 초기에 성급히 타협하는 이유

- 일종의 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야만 함
-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어떻게든 상대방과 잘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타협을 함 → 갈등을 피하려는 욕구로 타협하는 것은 잘못된 이유로 타협하는 것

4) 맹목적인 욕정에 굴복한다.

■ 성적으로 친밀해지기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

- 성적으로 친밀해지기 전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친밀해져야 함
- 적어도 두 배 정도의 시간은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보내야 함
-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함
- 그 사람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경해야 함
- 두 사람이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야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야 하며, 당신이 스트레스를 겪을 때 연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야 함
- 피임이나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에 대해 상의해야 하고, 상대방의 이전 성관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함

- 어떤 피임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동의해야 함

당신이 여성이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은가? • 이 사람을 닮은 아들을 갖고 싶은가?

당신이 남성이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여자가 내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 이 여자를 닮은 딸을 원하는가?

5) 물질적인 유혹에 굴복한다.

- 정서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 물질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6) 적합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기 전에 관계에 몰입한다.

- 경고 신호
 - 안 지 한 달도 채 안 돼 성관계를 맺음
 - 사귀 지 3~4개월 내에 동거를 시작함
 - 만난 지 몇 주 안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려 온 사람이라고 확신함
 -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한 느낌의 강도가 함께 보낸 시간에 비해 너무 큼
 - 처음 몇 주 또는 한 달 내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전 관계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함
 - 첫 몇 주 또는 한 달 내에 새로 만난 사람과 여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상상하거나 계획을 세움
- 진단
 -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커플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음
 - 데이트를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젠 지겹고 빨리 정착하고 싶음
 -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버림받았다고 느낌
 - 누군가와 사귀고 있지 않으면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짐
 - 주변 사람들로 부터 누군가를 사귀라고 압력을 받고 있음
 - 생물학적인 시간이 다 된 것처럼 느껴짐
 - 친구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뿐임
 -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속된 사람이기를 열망하는 어린아이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
 - 나는 매우 이상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스러운 점을 쉽게 발견함

5. 잘 될 수 없는 10가지 관계유형

1) 대방이 당신에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마음을 쓴다.

■ 진단

-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이 관계에 대해 흥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보여 주지 않음
- 특별한 날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선물을 준비함
- 내가 먼저 연락함
- 내가 이 관계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느낌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불편해하고, 반응하지 않거나 이야기의 주제를 바꿈
- 나는 그 사람의 습관, 스케줄에 맞추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습관과 스케줄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음

■ 왜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사랑할까?

- 어린 시절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임
- 당신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임
- 당신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했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결과

- 결국 상대방에 의해 통제 당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임
- 결국 사랑에 굶주리게 될 것임
- 결국 화가 날 것임
- 결국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임
- 결국 비참한 느낌이 들 것임

2) 당신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는 것보다 상대방이 훨씬 더 당신에게 마음을 쓴다.

■ 증상

-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비난받으면 방어적이 됨
- 사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담스럽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고 얼마간 떨어져 있어야겠다고 생각함
- 상대방이 너무 매달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짜증남
-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좌절스러움

■ 이런 관계 유형에 빠지게 되는 이유

- 당신은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임
- 당신은 부모를 처벌하고 있는 것임
- 당신은 통제하고 싶은 것임
- 당신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에게 했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임

3) 상대방의 가능성을 사랑하고 있다.

■ 증상

- 상대방이 건전하고 착실하게 살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함
-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당신 연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당신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다른 사람들은 당신 연인을 오해하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당신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함
- 당신 연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 또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에 대해 연인을 위해 변명을 함
- 상대방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함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연인의 생각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임
-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상대방을 신뢰함
- 당신은 당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그 사람에게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도 노력하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함

■ 이유

- 당신에게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
-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삶과 꿈을 회피하게 됨
- 어렸을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을 것임

■ 진단

- 나는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혹은 재정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거나 사권적이 있음
- 내 연인은 자주 혼란스러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거나 무기력하거나 희생을 당한 것처럼 느끼고, 나는 달래거나 안심시키거나 격려함
- 나는 종종 연인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데, 충고를 하고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를 하며 내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좌절함
- 내 연인은 과거에 심하게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그것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느낌

4) 상대방을 구원하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진단

- 내 연인이 나를 지지해 준다거나 나에게 힘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 나는 연인이 화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함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연인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함
- 내 친구였다면 참지 않았을 행동도 내 연인의 경우에는 참음
- 친구나 가족들이 왜 그 사람과 사귀냐고 물으면, 난 마치 그 사람들이 내 연인을 비난하고

있다고 느끼고, 나는 마치 아이를 대하듯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함

- 어느 누구도 나만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난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음
- 만일 내가 이 관계를 끝내면 내 연인은 누군가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가 될 것이라고 내심 걱정함

■ 이유

- 어린 시절에 끝내지 못한 정서적 과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임
- 당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임
- 당신에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임

5) 상대방을 역할모델로서 존경한다.

■ 진단

- 상대방이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함
- 그 사람이 한 말을 자주 인용함
-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신념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평소와는 달리 내가 누구와 사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함
- 내가 내 연인만큼 성취할 수 있거나 훌륭해질 수 없다고 생각함
- 나는 종종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 내가 꼭 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나는 종종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내가 정말 행운이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이 일종의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음

■ 이유

- 어머니나 아빠와 사랑에 빠지는 것임
- 당신은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공허함

6) 외적인 이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훌쩍 빠져 있다.

- 외적인 이유가 사라질 경우,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움

7) 상대방과 부분적으로만 어울린다.

■ 이런 유형의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에서 연인을 만나는 경우
ex) 엘리베이터 안
- 보통 때와는 다른 상황에 함께 처하는 경우
ex) 프로젝트 수행
- 어느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연인을 만나는 경우

Ex) 여행

8) 반항하기 위해 연인을 선택한다.

-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 또한 당황스럽게 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패턴은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무의식적인 반항은 자율성과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임

9) 전에 사귀어 사람에게 대한 반작용으로 새로운 연인을 선택한다.

- 이전의 파트너에게 얻지 못했던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

10) 당신 연인은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 자유롭게 당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
 - 결혼하지 않았음
 - 약혼하지 않았음
 - 고정된 데이트 상대가 없음
 -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음
 - 혼자임
 - 독신임
 - 당신 거임

사랑의 과정 / 3주차 1차시

1. 사랑의 발전단계와 심화요인

1) 사랑의 발전단계

- 이성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
- 사회심리학자들은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관계처럼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을 사회적 침투라고 부름
 - 첫인상의 단계
 - 상대방을 만나 주로 외모나 행동의 관찰을 통해 인상을 형성
 - 지향단계
 - 서로 자신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방을 탐색
 -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타진
 - 자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려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비판을 회피하는 다소 긴장된 상태
 - 개인적 정보에 근거하여 관계지속의 여부가 결정되며 많은 만남이 여기서 끝남
 - 이 단계에서는 상대의 거부로 인해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으나 마음이 상처는 그다지 크지 않음
 - 탐색적 애정교환단계
 - 상대방에 대해 호감 이상의 초보적인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낌
 -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함
 - 가장 예민하고 불안정한 단계
 - 이 단계에서 상대에 대한 실망이나 상대방의 거부로 관계가 끝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이미 감정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관계종결에 대한 상당한 아픔이 있음
 - 애정교환단계
 - 마음놓고 상대를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함
 - 서로 좋아한다는 것 또는 서로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함
 - 빈번한 데이트, 선물이나 편지 교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친밀감이 형성
 - 아직 조심스러움이 있으며 마음 속 깊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음
 - 자신의 약점과 단점은 보이지 않으려고 애씀
 - 안정적 교환단계
 -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소유물에도 마음 놓고 접근함
 -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도 두려움 없이 내보임
 - 이 단계에서는 상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신뢰와 친밀감에 바탕을 두고

안정된 애정교환이 이루어짐

ex) 결혼 약속, 육체적 애정 관계 등

- 이 단계에서 부모의 반대, 유학, 이사, 질병, 죽음 등의 이유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두 사람은 모두 매우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됨

2) 사랑의 강도를 평가하는 기준

■ 정서적 만족도

- 정서적 만족도는 연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비율 및 강도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음
- 미래에 정서적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더 강한 사랑을 느끼게 됨

■ 투자의 양

- 사랑은 현재 연인관계에 투여하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투자의 양에 비례함
- 상대방이 나를 위해 많은 투자와 희생을 보여줄 때 나에 대한 사랑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cf)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 부모가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효과

■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의 양

-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랑의 강도가 평가될 수 있음
- 또한 연인이 나를 위해 미래에 투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 양에 대한 지각이 연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상호의존성

- 사랑의 강도는 상호의존성에 비례하는 경향
- 상호의존성 : 상대방에게 서로 의존하지 않고서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관계

■ 연인관계의 지속기간이나 만남의 빈도

- 오랜 기간 사랑을 유지하고 빈번한 만남을 가져온 연인관계는 견고해짐

3) 연인에게서 찾아야 할 6가지 특징

■ 개인적 성장에 몰두함

- 개인적 성장에 몰두한다는 의미
 - 가능한 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 데 몰두함
 - 자신의 취약한 부분과 미해결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

연인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들

- 과거 10년 동안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깨달은 점
- 이전 관계를 통해 배운 점
- 자신의 가장 큰 약점과 원인
-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불만
- 관계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도움을 구했는가
- 향후 5년 동안 변하고 싶은 것들

■ 정서적 개방성

- 감정을 지니고 있음
-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음
- 그런 감정들을 연인과 공유함
-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연인에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음

연인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

-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감정을 표현하는가?
-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가?
어떤 감정들은 쉬운가?
- 공유하지 불편한 부분이 있나? 이유는?
- 마음을 열고 감정을 공유하면 나중에 어떻게 느끼는가?
-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서 관계에 문제를 만든 적이 있었나?
- 감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과거의 연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 품격

- ■ 품위 있는 사람이란?
 -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
 - 당신에게 정직한 사람
 -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

■ 성숙과 책임감

- 진단
 -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음
 - 책임감이 있음
 - 존중함
ex) 연인의 감정, 연인의 시간, 연인의 소유물, 다른 사람의 감정

■ 높은 자존감

-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사랑을 함
-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함
 -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함
 -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않고 잘 돌봄

■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사랑은 긍정의 힘임

2. 사랑의 붕괴와 종결

- 1) 호감과 매력의 상실
 -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매력은 사랑이 시작되는 요인인 동시에 사랑을 지속하는 요인이기도 함
 - 이성관계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데, 이때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상대방에게 실망할 수 있음
 - 특히 사랑의 중요한 요소인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버리는 경향이 있음
- 2) 갈등해결의 실패
 - 연인간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연인관계는 붕괴
 - 연인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은 갈등 그 자체라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 3) 다른 연인의 출현
 -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보다 더 강한 매력을 지닌 새로운 연인이 생길 수 있음
 - 현재의 연인에 대한 매력이 감퇴되거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연인에게로 사랑의 감정이 옮겨가게 됨
 - 연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사랑의 관계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배신감과 더불어 분노를 느끼게 되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됨
- 4) 부모의 반대나 물리적 이별
 - 연인관계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이지만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음
ex) 부모의 개입
 - 때로는 연인의 지리적 이동(유학, 이민 등)이나 죽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함
- 5) 투자와 보상의 불균형
 -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한 성과와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관계는 와해됨

3. 사랑의 상처

- 1) 실연의 유형
 - 실연 : 사랑의 해체, 종결
 - 일방적 실연
 -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다가 한 사람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경우
 - 상대방의 성격, 능력, 행동에 대한 실망, 더 나은 애정상대의 출현 등이 가장 큰 원인
 - 일방적 실연을 당한 사람은 많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됨
ex) 배신감, 분노, 복수심 등
 - 가장 일반적인 실연의 형태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는 유형임
 - 합의된 실연
 - 사랑하던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종결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
 -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생겨나고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

- 두 사람이 모두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 불만스런 상대방과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련, 아쉬움, 후회의 감정이 수반될 수 있음

- 강요된 실연

-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부모의 반대, 연인의 지리적 이동, 사망 등)에 의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아쉬움, 보고 싶음 등의 슬픈 감정이 뒤섞여서 나타남

- 실연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실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실연의 심리적 반응

■ 정서적 어려움

- 상실에 대한 주된 정서적 반응 : 슬픔, 우울감
- 일상적 생활에 대한 의욕, 흥미의 감소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과 후회
- 상대방의 거부에 의한 일방적 실연인 경우 : 분노, 적개심

■ 인지적 기능의 변화

- 주의가 산만해지고 정신집중력이 저하되어 지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짐
- 판단력이나 기억력도 일시적으로 저하됨
- 종결된 사랑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끊임없는 생각에 휩싸임
- 자기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등 비관적인 생각에 몰두

■ 행동상의 변화

-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활동성 저하
ex) 학업, 직업 활동의 소홀, 학교나 직장에서의 심각한 부적응상태
-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며 칩거생활을 하기도 함
-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무절제한 생활
- 식욕의 저하,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생리불순을 위시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3) 실연의 고통을 피하고 줄이기 위한 방어적 방법

■ 자신의 거부라고 생각

- 실연이 상대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거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

-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결점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함으로써 실연의 아픔을 감소시키는 것

■ 관계에 대한 평가절차

- 헤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었다고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방법

- 이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투자량을 축소평가 함으로써 실연의 고통을 줄이려는 방법

■ 다른 이성관계로 도피하는 방법

- 실연하자마자 재빨리 다른 이성과 애정관계를 맺는 방법

4) 실연의 극복과정

■ 상실의 단계

- 충격과 고통의 시기
- 일상생활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무기력해지고, 슬픔에 차 있음
- 슬픔 뿐만 아니라 우울, 미련, 후회, 배신감, 분노 등의 고통스런 감정에 휩싸이는 시기

■ 수용과 치유의 단계

- 이별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함
- 실연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짐

실연 후 고통 및 아픔의 이유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연의 아픔은 실연을 해서 분노, 고통, 슬픔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

실연 후 잘못된 사고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탓 • 과장과 축소 • 평가절하 • 이분법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급한 일반화 • 점쟁이의 오류 • 독심술 • 명령문(당위진술)

■ 성장의 단계

-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되고,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보다 성숙한 이성관계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게 됨

결혼의 의미 / 3주차 2차시

1. 결혼의 개념과 특성

1) 결혼의 의미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직업의 획득과 더불어 성인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
-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인임을 인정받는 통과의례이며, 두 가문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제도

2) 결혼의 정의

-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해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정덕, 2002)
-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과 다양한 과업 및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 법적 책임관계(Olson et al., 2008)
- 남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사전적 정의)
 - 성인 남녀가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의 법률에 따라 정서적 관계와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 공적인 의식을 갖는 하나의 합의

3) 결혼의 특성

- 결혼은 법률적 계약이다.
 -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조건을 충족(연령 등)돼야 하고, 결혼 이후에도 법률이 정한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가지게 됨
 - cf) 법적 결혼 & 사회적 결혼(동거, 사실혼)
- 결혼은 부부 상호 간에 성적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자녀출산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단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사회 존속
- 결혼은 경제적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다.
 - 경제적 책임은 결혼의 법적 계약 요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
- 결혼은 상호 간에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된다.
 - 결혼은 법적 계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 정직, 존중에 대한 약속이기도 함
- 결혼은 두 사회관계망의 결합이다.
 - 결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속한 각각의 가정, 두 문화가 결합되는 관계
- 결혼은 두 남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결합
- 인간은 결혼을 통하여 개인적 욕구충족과 아울러 사회적인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

2. 결혼의 변화

1) 결혼의 전반적 경향

■ 혼인률의 감소

-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로 독신이나 기타 다양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은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생활방식 가운데 하나인 선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30대 인구의 감소와 학업연장이나 경제활동 등에 따른 결혼지연, 독신 선호 등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초혼 연령의 상승

- 평균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2)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전통적 결혼	→	현대적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과 역할의 강조 • 수직적인 관계 • 엄격한 역할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자적인 감정과 친밀감의 강조 • 수평적인 관계 • 융통성 있는 역할분담

3) 오늘날 결혼의 주요특징

■ 친밀성의 혁명

- 배우자 선택양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 친족 및 지역공동체가 개개인의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약화된 자리에 개인이 등장하면서 자아의 확대와 더불어 친밀성의 의미가 중요해짐을 의미

■ 사랑이 결혼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음

but 결혼생활에 있어 사랑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 전문적인 결혼정보회사의 증가

■ 국제결혼 증가

■ 연애혼의 증가

cf) 배우자 선택의 유형 : 연애혼, 중매혼, 절충혼

3.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관

■ 밀레니얼 세대

-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
-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모바일, SNS 등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진학률이 높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평균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의 부담도 안고 있음
-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우가 많음

- 금융사 투자에 부정적

1)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

■ 개인주의

- 밀레니얼세대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개인주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
- 세계금융위기 & 고용 불안의 장기화
 - 가족관계와 개인의 행복이 중요
 - 가족보다는 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커짐

■ 자기결정권

-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의 스케줄에 따는 삶을 중요시함
- 현재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자기결정권
 -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
 - 서로 다른 다양성을 존중

■ 워라밸 중시 가치관

-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 균형
 - 가족이라는 집단을 위해 개인으로서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 하며
 - 동시에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싶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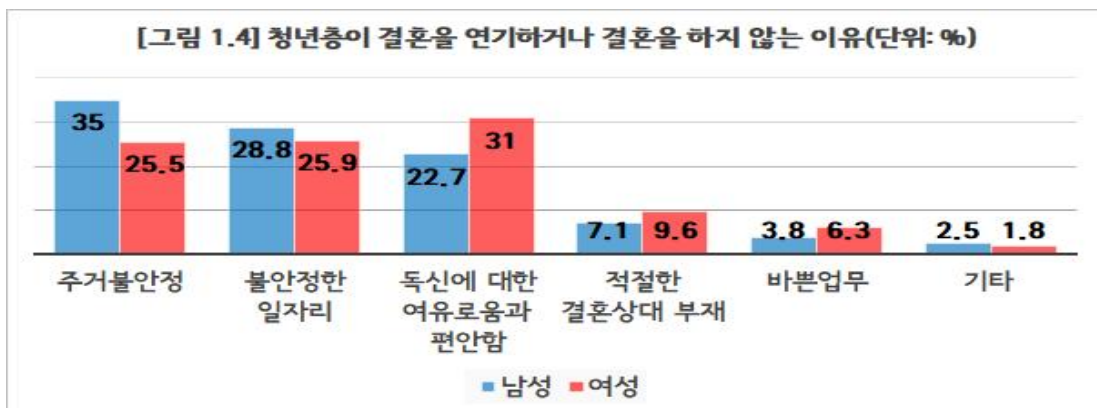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관 관련한 핵심 키워드는 만혼, 비혼, 동거라고 할 수 있음

■ 만혼의 경우, 남녀 초혼연령의 증가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2)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관 특징

■ 비혼

- 미혼: 결혼한다는 전제를 두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
- 비혼: 결혼을 원하지 않으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
- 미혼과 비혼은 모두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발성 유무에서 차이가 남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정책 현안 보고서

-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결혼식 말고 비혼식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유로 결혼이 아닌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비혼이 증가하면서 비혼족 사이에서 가족과 지인을 초대해 자신의 비혼 의사를 전달하는 비혼식이 유행이다. 즉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고 싱글 웨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싱글웨딩은 결혼을 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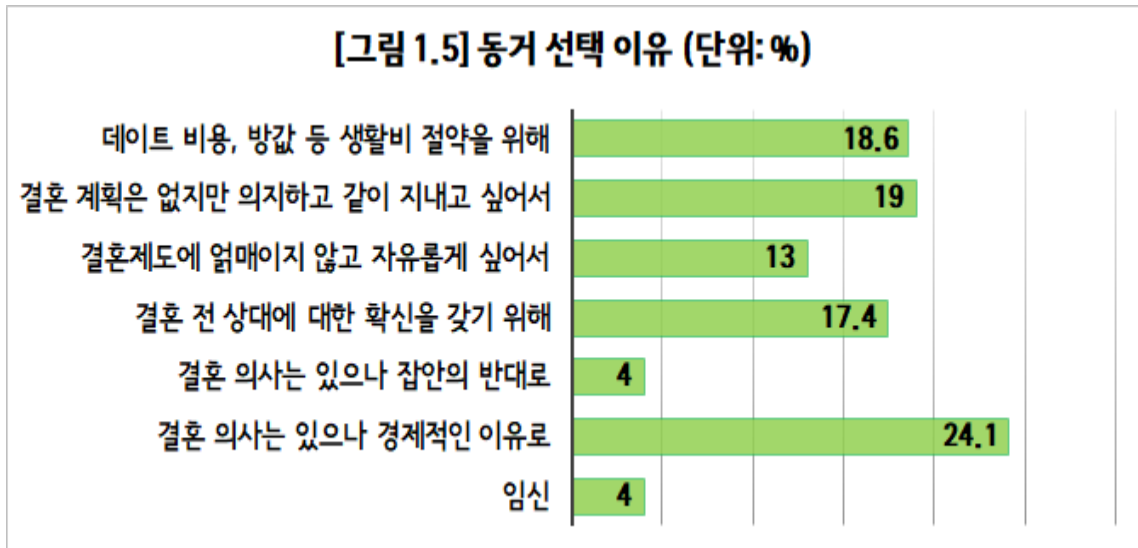
롯데멤버스 리처치 플랫폼 라임(2020)에 의하면 비혼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대가 83.9%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76.4%, 35세 이상이 75.9%로 나타났다. 또한 비혼식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결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이유가 5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즐거운 추억 쌓기'가 25.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38.7%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즐거운 추억 쌓기'가 28.8%, '축의금 회수'가 21.6% 순으로 높았다.

한편 모기업에서는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구성원 비중이 많아지면서 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비혼식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직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혼식 후에는 10일의 비혼휴가도 지급하고 있다.

출처: 엘페이 엘포인트(2020.3.5.), 기업 HR(2019.7.12).

■ 동거

- 동거: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동거
 - 한국 사회에서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동거상태에 대해 미리 인구사회적으로 관리하거나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음

- 자유로운 결혼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하고 있는 서구사회의 사회제도
 - 프랑스의 팩스
 - 스웨덴의 삼보
 -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
 - 영국의 시빌 파트너십
- 한국 사회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가족문화와 직장문화 역시 전통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결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만혼화, 비혼화, 동거
- 한국사회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만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진정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결혼의 이론적 접근 / 4주차 1차시

1. 배우자 선택의 실제

1) 배우자 선택유형

■ 자유혼

- 배우자 선택에서 개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 배우자 선택조건으로는 개인적인 매력이나 사랑의 감정을 가장 중시하는 유형

■ 중매혼

- 결혼을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서 개인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의사가 존중되고, 배우자 선택조건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형
-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배우자 선택유형이었음

■ 절충혼

- 개인의 자유의사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 후에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중매로 배우자를 선택한 후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거쳐 결혼에 이르는 형태
- 자유혼과 중매혼의 장점을 절충한 제도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자유혼적인 성격이 강해지기도 하고, 중매혼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함

2) 배우자 선택의 범위

- 배우자 선택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보았던 전통사회에서는 배우자 선택기준을 일정 범위 안이나 밖으로 한정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제가 있었음

- 내혼제

- 특정 집단이나 일정 범위 안에서 혼인 상대자를 선택하는 제도
- 동일한 민족이나 인종, 종교, 계층 간의 혼인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
ex) 고려의 성골, 진골 간의 계급내혼제, 미국 남부 주에서 백인과 흑인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유대교에서 타 종교인과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
- 대부분의 사회는 연령 차이가 많이 나거나 사회적 신분, 사회적 계층, 종교, 인종, 피부색, 정치적 신념 등에서 불일치하는 결혼을 제한하거나 금기시함

- 외혼제

- 특정 집단이나 일정 범위 밖에서 혼인상대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ex) 근친 간이나 동성동본 간의 금혼제도
- 모든 사회는 결혼을 하기에 너무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에 대한 근친상간의 금기를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내혼의 원리는 보다 큰 범위의 집단을 규정하는 것이고, 외혼의 원리는 좁은 범위의 집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배우자 선택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다 존중되고 있음
- 아직도 배우자 선택은 이러한 배타적인 기준의 제약을 받아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기준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 배우자 선택 관행은 각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게 됨

3) 배우자 선택의 기준

-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보고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른 미혼자의 배우자 선택기준
 - 남성 : 성격, 신체적 조건, 건강, 신뢰와 사랑, 경제력 순
 - 여성 : 성격, 경제력, 신체적 조건, 건강, 신뢰와 사랑 순
- 성격
 - 결혼을 직접 눈앞에 두지 않은 미혼자 집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
 - 중요한 요인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
 - 중요하게 비중을 둔 요인들에서 벗어나면 성격은 고려할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것
- 경제적 능력
 - 교육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교육수준은 이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남성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여성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높은 교육수준의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경향
-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보다 중요시되는 점은 아직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지만, 남성의 경제적 능력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성의 경제적 능력도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4)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할 점

- 자신에 대해 알기
 - 자신과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자신의 결혼동기가 무엇이며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
 - 자신의 인생각본을 근거로 형성된 결혼각본에 비추어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한 과정
 - cf) 인생각본 : 어린 시절 작성되며, 부모에 의해 강화되고, 이어지는 사건들에 의해 정당화되어 결국 삶의 한 방도로 선택된 인생계획
-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 여러 수준에서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중요함
 - 현대사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갈등상황에서 부부를 연결시켜 주는 외적 지원체계가

빈약하다는 것

- 결혼을 유지하는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어 두 사람이 가진 문화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결혼관계의 유지는 더욱 어려워짐
- 여가활동, 역할분담, 가치관, 성생활, 의사소통, 직업 및 가정적 생활목표 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고 비슷한 것은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
- 사랑이라는 감정에 근거하여 서로를 선택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면 공통적인 요소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랑하는 감정

-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중심이 되고, 사랑은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
- 사랑의 감정은 결혼의 필수조건
- 열정적 사랑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과정
- 결혼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관계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부모나 친지, 친구의 지지

- 배우자는 자신이 선택하지만, 낭만적 감정에 빠져있는 두 남녀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친구의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배우자 선택에서 부모나 친지의 지나친 간섭과 진정한 도움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부모님께서 자신의 판단과 불일치한 의견을 보이실 때는 가능한 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

2. 배우자 선택에 관한 이론

- 배우자 선택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은 불가능함
-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여러 이론적 관점이 있음

1) 사회교환이론

- 배우자 선택을 일종의 교환과정으로 설명
- 사람들이 상호관계에서 가지는 느낌은 그들 관계에서 주고받는 보상과 비용에 의해 결정
-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과정에서도 비용보다는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자신에게 가장 많은 보상을 주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됨
- 교환과정에서 비용이나 보상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이나 신체적 매력, 직업, 학벌 등이 중요한 기준
- 여성은 주로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중요한 보상요인으로,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중요한 보상요인으로 생각함

2) 공평성 이론

-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추구하고 보다 적은 비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감을 보장해준다는 것
- 지나치게 한쪽이 보상을 받게 되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가치를 가진 상대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
-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일수록 그들의 결혼 가능성은 낮아지며, 그 결과 사람들은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나 가치관 등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 동류혼
- 최근 결혼정보회사의 배우자 선택방식도 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결혼을 원하는 남녀를 소개시켜 주는 과정에서 학벌, 재산, 외모 등의 기준에 의해 개인을 점수화하여 비슷한 점수대끼리 연결시켜 주고 있음

3) 보완욕구이론

- 자신과 비슷한 특성보다는 서로의 성격이나 욕구가 다르다는 것이 보완적 역할을 하여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
- 이 이론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
 - ex)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의 유사성과 보완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성격이 유사한 경우가 다르다고 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여과망이론

- 배우자 선택이 단순히 사회적 배경의 유사성이나 보완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여과망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음
 - 근접성의 여과망 : 지리적으로 가깝고, 만날 기회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로 대상이 제한됨
 - 매력의 여과망 : 상호 간에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사람들로 그대상이 다시 좁혀짐
 -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
 - 인종, 연령, 종교, 직업, 교육수준 등의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로 더욱 범위가 축소됨
 - 당사자보다 부모에 의해 더욱 강조됨
 - 상호일치의 여과망 : 인생관이나 결혼관 등 중요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가치관이나 견해,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됨
 - 상호보완의 여과망 : 상호 간의 욕구와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줄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때 결혼가능성은 높아짐
 - 결혼준비 상태의 여과망 : 결혼에 대한 부모나 사회의 압력, 결혼에 대한 욕구 등이 결혼준비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병역을 마치거나 취직을 하는 등 결혼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실제적으로 결혼에 이르게 됨
- 초기에는 유사한 특성이 보다 중요하며 후기로 갈수록 상호보완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사한 사회적 배경이나 태도, 가치관을 갖지 못한 남녀는 초기에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상보적 요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어려움

5) 자극-가치-역할이론

■ 여과망이론을 기초로 배우자 선택을 자극-가치-역할의 단계로 설명한 이론

- 자극단계
 - 상호 간에 서로 매력을 느끼는 단계
 - 상대방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속성들과 관련
 - 가치단계
 - 직업, 종교, 생활방식, 자아실현 등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나 가치를 탐색하여 서로의 가치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
 - 가치의 일치는 결혼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기에 다음 단계에서 역할의 조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
 - 역할단계
 - 상호 간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자신의 욕구나 성향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단계
 - 상호 간에 역할기대가 일치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 결혼 vs 종결

■ 이상의 세 단계는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며 동시에 세 단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6) 경사진 배우자 이론

■ 거시적인 관점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를 인구학적으로 설명한 이론

■ 이론의 핵심 : 남성은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한 단계 낮은 여자를 배우자로서 선택한다는 것

결혼의 준비 / 4주차 2차시

1. 약혼

1) 약혼의 의미

- 약혼 :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것
- 현대사회에서 연애결혼이나 혼전동거가 증가하면서 약혼식이라는 공식적 절차는 덜 중요시되고 상견례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 약혼은 배우자와 그들 가족과의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결혼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 준비하며 결혼에 앞서 적응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가 있음
- 약혼은 곧 결혼이라는 인식보다는 상호 간의 적응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단계로서 결혼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지님

2) 약혼의 기능

- 마지막 시험기간
 - 약혼은 결혼에 앞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시험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 일단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다른 이성과의 관계는 차단되고 두 사람만의 관계로 한정됨
 - 상호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상대방의 인성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짐
 - 실제로 약혼을 한 많은 커플들이 적응 문제로 파혼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후 이혼에 따르는 고통과 혼란을 감안한다면 훨씬 덜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형성
 - 좁은 의미 :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
 - 넓은 의미 : 가족끼리 결혼을 약속하는 의식
 - 약혼은 친지나 친척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널리 공포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상대방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형성
 - 약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므로 이를 통해 생활수준이나 가족관계, 가족 내에서의 배우자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응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결혼계획과 준비
 -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약혼기간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 ex) 자녀는 언제 낳을지, 자녀의 수, 터울은 어떻게 할지 등의 계획
 -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추측이 아닌 세부적으로 재정이나 주거문제에 대한 계획이 가능
 - 결혼 전반에 대한 계획, 즉 결혼식 형태, 비용, 시기, 신혼여행 장소, 시간, 비용 등의 계획이

가능

3) 파혼

- 파혼 : 두 사람 간의 결혼 약속인 약혼을 파기하는 것

파혼 사례 분석해보니		
결혼비용 때문에	52.2%	전반적으로 돈이 없어서(7.1%), 예단 때문에(22.1%), 집 때문에(23.0%)
대출 때문에	5.3%	본인 빚 때문에(0.9%), 상대 빚 때문에(1.8%), 가족·친척 빚 때문에(2.6%)
성격 때문에	22.1%	술·이성문제 때문에(9.7%), 기타(12.4%)
시집과의 갈등 때문에	14.2%	시부모·시누이·시동생 등과 다투어서(14.2%)
집안 때문에	6.2%	종교갈등(0.9%), 궁합·사주 안맞아(4.4%), 어른들 반대(0.9%)

자료=레몬테라스·웨딩공부 게시물 339건
(2011년 3월 1일~2012년 3월 20일)

우리나라 민법 804조에 명시된 법적인 파혼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병질이 있을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약혼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의사로 표시하며, 약혼 당사자는 서로 교환한 예물을 반환하여야 함
- 파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2. 결혼준비교육

- 최근 결혼 이후 적응과정에서의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결혼준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결혼준비교육에서는 결혼에서의 책임감, 의사소통기술, 자녀양육 등의 내용을 강의와 토론의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음

-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예방차원의 결혼준비개념이 부각되면서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80~90%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준비는 일반적으로 결혼식 절차나 혼수준비와 같은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단순한 혼례 준비보다는 정서적 측면, 경제 및 법적인 측면 등

결혼준비교육의 목표	
① 개인적 측면의 준비	: 신체적인 건강과 성숙이 바탕이 되어 결혼이나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된 상태
② 관계적 측면의 준비	: 서로가 사랑하고 상대방의 성격 특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
③ 결혼생활 측면의 준비	: 양가 가족이나 친척, 친구관계나 결혼후 재정관리, 역할분담, 자녀출산 및 양육, 성관계, 여가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를 이룬 상태

3. 혼례

1) 혼례의 의미와 기본정신

- 혼례 : 관혼상제의 4례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 인륜지대사
- 혼인 : 여자와 남자가 만나 서로 부부가 되어 일평생 고락을 같이하는 인격적 결합
- 혼인은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평등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여 공경하는 말씨로 대화하며, 남편이 출세하면 아내도 함께 작위가 올랐음
- 전통 혼례의식에서 맹세했던 세가지 : 삼서정신
 - 서부모 :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부모에게 서약하는 것
 - 자신을 있게 한 조상과 부모의 큰 은혜를 기리는 것
 - 서천지 :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것
 - 혼인이 천지의 음양의 이치, 즉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을 두고 부부의 사랑을 맹세하는 것
 - 서배우 : 서로가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것
 -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방에게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

2) 전통혼례

-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는 사례를 기본으로 한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조선조의 사대부계층은 우리나라 혼례의 이상형을 제시하였으며, 사례편람이 그 대표적인 것
- 사례편람의 혼례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
 - 의혼
 - 중매인을 통하여 양가를 왕래하게 하면서 신부 집의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
 - 민간에서는 '혼담'이 오간다고 함

- 보통 신랑, 신부의 양가에서 중매인을 보내어 상대방의 집안이나 사람됨, 형제관계 등을 수소문하고 친척 중에서 신임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 탐색하게 하기도 함
- '간선'이라고 하여 지나가는 사람인 체하면서 상대방을 엿보는 수도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안 어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궁합을 본 다음 청혼을 하게 됨

- 납채

- 신랑 측 혼주가 사주를 보내고 신부 측에 연길을 정하는 절차
- 민간에서는 사성 보내기라고 함
- 양가가 수소문과 탐색이 끝나고 혼인을하기로 결정하면 신랑 측에서는 신랑 될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백지에 적은 사주단자와 혼인을 청하는 납채문을 써서 신부 측에 보냄
- 신부측에서는 사주를 받으면 일단 혼인을 승낙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주단자는 혼주가 나와 정중하게 받아들임
- 사주는 잘 보관했다가 혼수를 보낼 때 함께 보내어 신부의 옷장 속에서 평생 간직하도록 하였음
- 사주를 받은 신부 측에서는 사주에 따라 운세를 가늠해보고 길일을 택하여 혼인 날짜를 잡는데 이를 '택일' 혹은 '연길'이라고 함
- 사주는 잘 보관했다가 혼수를 보낼 때 함께 보내어 신부의 옷장 속에서 평생 간직하도록 하였음
- 사주를 받은 신부측에서는 사주에 따라 운세를 가늠해 보고 길일을 택하여 혼인 날짜를 잡는데 이를 '택일' 혹은 '연길'이라고 함

- 납폐

- 신부 집에서 택일을 하여 신랑 집에 보내면 신랑 집에서는 혼서와 예물을 함에 넣어 신부 집에 보내는 것
- 혼서는 결혼문서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죽을 때 관속에 넣어 간다고 한다
- 신랑이 가난할 경우 혼서와 함께 채단만을 보냄(채단: 청, 홍의 비단 치맛감)
- 여유 있는 신랑의 집안은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봉채' 혹은 '봉치'라고 함
- 예물은 두 가지 이상으로 하되 많아도 열 가지를 넘지 않도록 사례편람에 규정되어 있음

- 친영

- ■ 오늘날의 결혼식에 해당하는 것
- ■ 혼례절차 중 가장 중요한 의식

3) 현대식 혼례

■ 결혼 준비 설계

- 결혼식 날짜 정하기
- 결혼 총예산과 혼수용품 예산 등 세우기
- 결혼식장 및 피로연 장소 정하기

- 결혼식 날짜는 과거에는 신부측에서 택일하였으나 근래에는 신랑 측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보편적
- **예식장소 예약**
 - 예식장소는 예식장, 호텔, 회관, 야외나 사찰, 교회, 성당 등을 이용
 - 늦어도 3개월 전에는 예식장 예약이 끝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맞추기가 어려움
 - 예식장은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음
- **신혼집 준비와 신혼여행지 선정**
 - 예식장 예약이 끝나면 함께 살 신혼집을 알아보고 신혼집에 대한 내부수리나 인테리어에 대한 계획도 필요
 - 신혼여행지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 **주례위촉**
 - 주례는 평소에 친분이 있고 존경하던 분으로 결혼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분이 좋음
 - 주례가 결정되면 최소한 2일 전에는 직접 찾아 뵙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예의
 - 결혼식 사회자, 사진촬영이나 웨딩드레스, 신부화장도 예약
- **청첩장**
 - 청첩장은 3주일 전쯤에 보내는 것이 적당하며 늦어도 1주일 전에는 도착하도록 해야 함
 -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결혼식을 알리는 방법들도 선호하고 있음
- **최종점검 및 혼수 예물준비**
 - 결혼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나 신혼여행지에 대한 최종점검이 필요
 - 신혼살림을 구입하고, 신혼집에 짐을 들이고 배치
- **함**
 - 전통혼례의 납폐에 해당
 - 일반적으로 결혼식 1주일 전쯤에 보냄
 - 함의 근본 목적 :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허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것
 - 최근에서는 함을 생략하거나 보다 간략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결혼식**
 - 일반적인 결혼식 절차 : 개식-신랑 입장-신부 입장-신랑신부 맞절-혼인서약-예물 증정-성혼선언-주례사-내빈끼 인사-행진-폐식
 -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거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특별한 절차가 추가되기도 함
 - 식이 끝나면 기념촬영이 있고, 이어 폐백실에서 폐백을 드린 후 피로연 장소에 나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남으로써 결혼의식은 끝나게 됨
 - 공동생활에 앞서 두 사람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두 사람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다른 번잡한 활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기간
 -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각자의 생활에서 공동생활체로의 적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고 양가 가족에게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함

4) 혼례문화의 문제와 개선

■ 문제

- 화려해지고 상업주의화 되는 결혼식
- 과다혼수
- 혼례비용에서 높은 부모의존도

■ 개선되어야 할 부분

- 개인의 의식변화
 -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점
 -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가장 중요
 - 전통혼례의 정신은 계승하되 형식은 현대사회에 맞게 실용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 ex) 언론매체를 통한 건전한 혼례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예물은 당사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으로 마련하기 등

■ 국가 차원의 지원

- 과다한 결혼비용과 높은 부모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값싼 임대주택의 건립과 같은 주택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솔선하여 실천하는 사회지도층의 본보기

- ex) 제도적 접근의 강화 →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혼인관련법률

■ 혼인의 성립요건

- 혼인적령의 도달
 - 우리나라 민법에는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함
 - 혼인적령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친혼 금지
 - 우리나라는 혈족, 인척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결혼을 인정하지 않음
- 중혼 금지
 -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배우자가 있으면 그 혼인은 성립되지 않음
- 혼인의사의 합의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

■ 혼인신고

-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
- 혼인신고는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 거주지에 신고하면 됨

■ 혼인의 효과

- 혼인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법률적 관계를 형성하며 법적 의무나 권리도 가지게 됨
 -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민법 826조)
 - 부부는 혼인 후에 서로 간에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민법 840조)
 - 법정재산제 규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것은 고유재산,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된다.(민법 830조 1항)
 - ☞ 이때,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며,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된다.(민법 830조 2항)
 -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부담도 부부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833조)

가족의 의미 / 5주차 1차시

1. 가족의 정의와 특성

1) 가족의 기원

- 가족의 출현 시기와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

인간이 가족이라는 단위를 형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관점들	
① 사회생물학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결혼을 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 •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묘사될 만큼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동기가 강함 • 인간에게는 자손을 돌보는 동안 배우자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심리생물학적 성향이 있으며, 가족의 출현은 개인과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진화과정상의 필요한 요소
② 인류학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사회는 생존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간은 근친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것
③ 기능론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아기는 미성숙하여 장기간의 의존기간이 필요하므로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가족은 효율적인 단위라고 주장 • 출산의 주체인 여성이 장기간 동안 육아를 담당함과 동시에 생계까지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가족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

2) 가족의 정의

-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구성되며 공동의 거주, 경제적 협력과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관계를 갖는 최소한 2명의 성인남녀와 그들의 친 자녀나 입양에 의한 자녀를 포함한다.(Murdock, 1949)
-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이외에 가까운 친척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경제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의 다양한 심리적 정담으로 결합되어 있다.(Levi-Strauss, 1956)
-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해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새우리말 큰사전, 1991)
-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소법전, 1985)

3) 가족의 특성

- 가족은 혈연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인간관계 영역이다.
 - 이것이 가족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 가족은 유전자의 일부를 공유하고 따라서 외모나 심리적 특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짐
- 가족은 운명공동체이다.
 - 생활공동체 → 소유공동체 → 운명공동체
 -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가족관계는 부여된 인간관계이다.
 - 가족은 출생과 더불어 주어지는 인간관계
- 가족관계는 지속적이다.
 - 이혼, 의절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유지되는 관계
- 가족은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역동적 체계이다.
 - 가족 구성원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음
 - 성별과 나이가 다른 여러 구성원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남

2. 가족의 기능

1) 성, 애정의 기능

- 가족은 남녀의 애정적 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만큼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짐

2) 자녀출산 및 양육의 기능

- 가족은 후손을 낳아 양육함으로써 가문을 이어 가는 곳
- 자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곳이 가정
-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개체보전과 종족보전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

3) 생산과 소비의 기능

- 생산기능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필수품을 만드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적 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기본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4) 자녀교육 및 사회화의 기능

-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가족문화를 전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전인교육을 담당
- 현대사회에서는 자녀교육과 사회화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옮겨가고 있어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나, 부모를 통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은 개인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5) 보호와 휴식의 기능

- 질병이나 상해와 같은 외적 위험으로부터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그 재산을 보호해줌
- 보호의 기능은 가족이 심신의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이는 사회의 안정성과 직결됨
- 휴식의 기능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기능이기도함
 - 가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인간의 인격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바탕이 됨
 - 이러한 점에서 가족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서 보다 일차적이며 근원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음

3. 가족의 유형

1) 가족구성원의 범위에 따른 분류

- 핵가족
 - 가장 단순한 가족형태
 - 부부와 그들의 미혼직계자녀들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2세대로 한정
 - 요소가족, 단순가족, 부부가족, 개별가족
- 확대가족
 - 핵가족이 중첩으로 연결된 것
 -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
 - 직계가족 : 한 명의 결혼한 아들가족만이 부모와 동거하는 형태
 - 방계가족 : 두 명 이상의 결혼한 아들가족이 부모와 동거하는 형태
 - 복합가족 : 방계가족의 제일 위 세대가 사망하여도 아들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 형태

2) 가족 내 권위의 소대에 따른 분류

- 전통적으로 가족 내 권력은 가장권으로 대표
- 가장권 :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 가족구성원을 감독하는 감독권 및 가사관리권으로 이루어짐
- 부권제 혹은 가부장제 : 가장권이 부계에 속하는 경우
- 모권제 : 가장권이 모계에 속하는 경우
- 동권제 : 가장권이 부부 모두에게 속하는 경우
 - 현대사회는 가족관계가 점점 그 권한에 있어 동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므로 가장권이 부부 공동에 속해 있는 동권제 가족이 보다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3) 가계계승에 따른 분류

- 부계제 : 가계계승에서 가명과 친족의 계보가 부계로 계승되는 경우
- 모계제 : 가계계승에서 가명과 친족의 계보가 모계로 계승되는 경우
- 양계제 : 가계계승에서 가명과 친족의 계보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부부 어느 쪽으로나

계승자를 택할 수 있는 경우

- 현대사회에서는 가족 내의 권한이 동등해지면서 가계계승도 양계적 형태로 변하고 있음

4) 거주규정에 따른 분류

- 시가살이 또는 부거제 : 결혼 후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입주하여 시가 식구와 동거하는 형태
- 처가살이 또는 모거제 : 결혼 후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입주하여 처가 식구들과 동거하거나 처가의 근처에 살면서 처부모의 지배를 받는 형태
- 단가살이 또는 신거제 : 결혼한 부부가 새살림을 차려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
 -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신거제를 택하고 있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호관계나 정서적인 유대관계까지 독립적이지는 않음
 - 최근에는 여성취업률의 증가로 인해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가나 처가와 보다 잦은 왕래를 하면서 도움을 받는 부거제와 신거제, 모거제와 신거제의 절충적인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5) 배우자의 수에 따른 분류

- 단혼제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형태, 일부일처제
- 복혼제 : 남편이나 아내가 동시에 한 사람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는 형태, 일부다처제 & 일처다부제
 - 역사적으로 가장 발달한 형태는 일부일처제이며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일부일처제의 혼인형태를 취하고 있음

6) 결혼 전후에 따른 분류

- 출생가족 : 출생하여 성장을 함께 한 가족, (근)원가족, 방위가족
- 생식가족 : 결혼 후에 새롭게 형성된 가족
 - 결혼과 동시에 출생가족보다는 생식가족에 더 충실하고 가치를 두어야 함
 - 생식가족은 이혼을 통해 결합이 끊어질 수 있고, 출생가족은 그 결합이 끊어질 수 없는 영속적인 관계

7) 부모의 유무나 특성에 따른 분류

- 한부모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의 부모에 의해 자녀가 양육되는 형태
 - 편부모가족
 - 주로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에 의해 생겨나며 때로는 미혼모에 의해 자녀가 양육될 경우도 있음
- 계부모가족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친부모가 아닌 가족
 - 주로 재혼에 의해 형성되며,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에서 데려온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유형

가족연구의 이론적 관점 / 5주차 2차시

1. 가족연구의 이론들

- 가족이나 결혼과 같은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은 존재하지 않음
-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

1) 가족발달적 관점

-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역할과 발달과업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춤
- 효율적인 가족들은 이러한 과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할수록 가족구성원들의 발달도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발달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가족을 정지해 있는 불변하는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적인 체계로서 이해한다는 이점이 있음
- 가족발달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가족도 생성, 확대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한 가족의 소멸은 곧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지만, 각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성과 소멸은 사회라는 거시적인 단위에서 본다면 하나의 주기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으로 설명
- 가족생활주기
 -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
 - 가족은 결혼을 형성되고, 출산으로 확장되며, 자녀의 결혼 및 분가로 축소된 후 사망에 이르면 가족생활의 일주기는 막을 내림
 - 모든 가족이 동일한 가족생활주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기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경험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가족생활주기는 각 생활주기의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나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보편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적응에 유용한 개념
 -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들은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
 - 가족확대기 & 가족축소기
 - 가족확대기 : 부부의 결혼에서부터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까지
 - 가족축소기 :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는 시기부터 배우자 중 어느 한쪽 또는 두 사람이 함께 노년기를 보내는 시기

■ 가족생활주기의 단계

Duvall의 8단계
① 신혼 부부가족
②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첫 자녀 출산~2.5세)
③ 유아기 가족(첫 자녀 2.5~6세)
④ 아동기 가족(첫 자녀 6~13세)
⑤ 청년기 가족(첫 자녀 13~20세)
⑥ 자녀독립기 가족(첫 자녀 독립~막내 자녀 독립)
⑦ 중년기 부부가족(부부가족~은퇴기)
⑧ 노년기 부부가족(은퇴 후 ~사망)

유영주의 6단계
① 형성기(결혼~ 첫 자녀 출산)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첫 자녀 출산~첫 자녀 고등학교 입학)
③ 자녀교육기(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첫 자녀 고등학교 졸업)
④ 자녀성년기(첫 자녀 고등학교 졸업~첫 자녀 결혼)
⑤ 자녀결혼기(첫 자녀 결혼~막내 자녀 결혼)
⑥ 노년기(막내 자녀 결혼~배우자나 본인 사망)

- 이상의 분류를 자녀가 있는 가족의 생활주기이며, 무자녀 가족 등 다른 형태의 가족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생활주기도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음
-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형성기의 시작이 늦어지고, 무자녀가족의 증가나 출산을 저하로 자녀양육기가 아예 없거나 축소되고 있음
- 은퇴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자녀교육비는 증가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결혼기 이후의 시기는 점차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가족체계적 관점

- 출생 직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한 가족관계의 영향은 대를 이어 영속적으로 전달
- 가족체계적 관점에서는 가족구성원은 상호 연관된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
- 가족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은 그 이외의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봄
-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상호연관성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면 한 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뿐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체계가 문제해결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
-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에는 미시체계뿐만 아니라 외체계, 거시체계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 브론펜브레너의 5가지의 환경체계
 -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
 - 미시체계 : 개인의 근접환경
 - ☞ 물리적 특성(집의 크기, 근처 운동장의 시설물, 학교 도서관에 구비된 장서의 크기

등), 가족, 친구, 학교, 이웃

☞ 대부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이때 개인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

☞ 건강한 미시체계는 호혜성에 기반하고 있음

ex) 부모는 자녀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녀는 부모의 합리적인 요구를 존중함으로써 화답

• 중간체계 :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관계

☞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면 할수록 아동의 발달은 순조롭게 진행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간의 발생 가능 문제	
① 여러 미시체계의 각기 다른 가치관	ex) 음주와 흡연에 대한 또래집단과 부모님과의 차이
② 미시체계들 간에 의미 있는 연결이 거의 없는 빈약한 중간체계	ex) 개인의 생활이 각기 분리됨:자녀의 친구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

• 외체계: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ex) 부모님의 직장상사

• 거시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다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

☞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아동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거시체계는 신념, 태도, 전통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침

☞ 거시체계는 다른 체계보다 더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거시체계는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처럼 펼쳐 있는 사회계획을 포괄함으로써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

• 시간체계: 전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 사회역사적인 환경

☞ 이 체계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외적인 사건(부모의 죽음)이나 내적인 사건(심리적 변화)이 구성요소가 됨

ex)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변화

■ 가족체계이론에서는 특정 체계를 중심으로 보다 큰 체계인 상위체계와 작은 체계인 하위체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

ex) 부부를 하나의 체계로 볼 때, 상위체계 : 가족, 하위체계 : 두 사람의 개인

■ 체계이론의 중요한 전제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 즉, 가족은 개인들의 합 이상

■ 체계이론에서 강조하는 전체성과 상호연관성의 핵심은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 가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역도 가능하다는 것

■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구성원을 상호의존적인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는 가족체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

- 개인의 문제를 심리내적인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과 맥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춤
- cf) 가족치료: 개인치료와는 달리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관계성을 중시

가족의 이해 / 6주차 1차시

1. 가족형태의 변화

- 우리나라의 가족은 형태상으로 부계 직계가족에서 부계 핵가족으로 변화해 왔음
-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1) 부계 직계가족

-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유교적 이념이 지배적인 사회규범으로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족은 부계적 특성이 강한 가족으로 변화해 나가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가족은 가계계승이 부계로 이루어지고 그중에서도 장남, 장손으로 계승되는 직계가족, 가족 내의 권위에서는 부의 권한이 강한 가부장제 가족이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음
 - 장남과 동거하는 부계 직계가족 :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이후부터 이상적인 가족 유형
- 전통가족의 모델로서 여전히 우리나라 가족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부계 핵가족

- 196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 가족형태는 가계계승에서는 부계가족의 형태를 유지하였음
-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수에서는 직계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였으며, 가족 내의 권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 가장중심 핵가족
 - 산업화, 근대화 과정으로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은 형태상으로 보다 기능적인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가족이념이나 가치는 그대로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지속시켜갔음
 - 외형상 : 핵가족
 - 실제 : 부계 직계가족적인 특성이 강한 가장중심 핵가족
 - 부부중심 핵가족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가족형태는 보다 평등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

개정가족법

- ① 호주제 폐지 : 호주제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는 전근대적 가족관념을 형성하였음
-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② 국적법 개정: 아버지의 국적만을 따르도록 하는 종전의 부계 혈통주의에서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것도 가능한 양계혈통주의로 개정
- ③ 그 외 : 거주지도 종전의 부계에서 부부협의로, 생활비 부담도 종전에는 남성이 부담하던 것을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시 자녀양육권도 친권자가 종전에는 부였으나 부부협의로, 면접교섭권 규정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재산상속도 종전의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에서 자녀균등상속으로, 친족의 범위도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양계적인 형태로 변화

-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법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로 대체

가족관계등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인이 기준이 되며 • 본인을 기준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 • 부모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아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은 과거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간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함 • 동성동본금혼은 동성동본인 혈족 등에서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변경됨

- 모자중심 핵가족
 -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의 근간은 모권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통해 모권보다 강한 아내권을 갖게 되었음
 - 동시에 자녀양육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음
 -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와 자녀와의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여 아내권은 가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2. 가족이념의 변화

1) 전통적 가족이념

■ 집의 개념

- 전통사회에서는 중심의 축이 한 개인이 아니라 집 또는 가문이었음
- 집 :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미래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영속적 집단의 개념
- 가족의 최대관심사 : 조상의 유업을 어떻게 존속, 발전시켜 자손에게 물려주는가에 있었음
 - 제사에 의한 조상숭배, 가산의 유지와 확대, 집의 계승을 가능케 하는 아들의 출산이 강조
-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집이 존속되므로 아들을 우대하는 의식이 생겨나고, 부자관계는 부부관계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음

- 집의 번영을 위한 다남의 욕구
 - 아들의 의미 : 가사노동력의 증대 & 다수의 가장후보자

■ 부자관계

-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
- 집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
- 아버지는 아들을 교육하고 그 책임을 지는 반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낳아준 은인으로서 무조건 복종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 '효'의 개념

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을 골자로 하는 것 • 부모에 대한 완전한 예속성을 나타내주는 윤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의 언행이나 부양뿐만 아니라 사후의 제사나 상례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까지 포함 • 한국인의 생활원리 • 모든 인간관계에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 • 보은이라는 윤리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사회적 윤리로 승화되어 '충'의 사상으로 발전되었음

■ 부부관계

- 부부간의 애정적인 관계보다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적인 목적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음
- 상하관계 → 남녀 간의 차별을 보여주는 것
 - ex) 칠거지악
 - 7가지 잘못을 저지르면 친정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남성에게 부여
 - 삼종지도
 -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고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됨을 의미),
 - 출가외인
 - 결혼 후에는 친정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시집살이를 견디어내어야만 했음
- 부부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부부유별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도 아내의 지위가 낮았다고는 볼 수 없음
 - ex) 사소절: "하늘과 딸이 비록 높고 낮더라도 그 만물을 길러내는 공은 한가지이다"
 - 부부는 유별하지만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묘사
 - ex) 어머니나 시어머니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상당히 강했음

2) 근대적 가족이념

- 근대사회의 중심적인 가치 : 낭만적 사랑, 모성애, 가정성
- 가족의 자율성과 응집성을 중요시하는 가정성의 가치가 가족형태에서는 기능적인 핵가족을 지향하게 만들었다면, 모성성은 부모자녀 간의 유대를, 낭만적 사랑은 부부간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이념을 형성하게 했음

■ 도구적 가족이념

- 부양자로서의 부모역할이 강조되는 도구적 가족주의가 발전
- 남편이자 아버지의 도구적 역할 &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 표현적 역할
- 역할분화이론에서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역할이나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봄
→ 생계유지자 & 가사담당자
- 도구적 가족주의이념에서는 아버지는 생계부양자로, 어머니는 자녀양육 및 가사담당자로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됨
→ 부부보다는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며,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한 직업적 성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도구적 가족이념의 부작용	
① 부부 간의 친밀한 애정관계 형성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적 가족주의이념을 가진 세대의 많은 부부들은 부부간에 친밀한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실패 ex) 황혼이혼 : 부부의 애정 여부에 관계 없이 자녀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탱해보다가 자녀를 잘 키워 출가시키는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아무런 애정적 유대가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만 남은 가족을 지탱할 이유가 없어 선택한 결과
② 가족 이기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족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남이야 어떻게 되는 내 가족, 내 자식 지상주의로 치달게 되는 배타적, 이기적인 문제점이 대두 • 자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됨

■ 정서적 가족이념

- 도구적 가족이념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강조됨
- 급격한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 소외현상으로 인해 사랑과 안정, 소속감을 중시하는 정서적 욕구가 강조됨
- 정서적 가족주의에서는 부부가 가정의 중심에 있고, 일보다는 여가나 취미가 강조되는 동반자적 부부관계에 의미를 두며, 자녀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과 동시에 자신들과의 관계도 중시
- 정서적 가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관계이며, 가정은 부모와 자녀라는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교류의 장이 됨
- 가정의 중요한 기능은 가족원이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기능이며, 이러한 열망은 여성의 표현적 역할을 필요하게 되었음

3) 탈근대적 가족이념

- 탈근대적 가족이념 : 뚜렷한 이념으로 특징지을 수 없는 다양한 가족이념, 즉 전통적 가족이념과 근대적 가족이념, 다양한 탈근대적 이념이 혼재된 상태
- 탈근대적 가족의 특성
 - 자녀양육자로서 역할상실
 -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 동지로서의 가족의 해체
 - 근대사회의 가치, 즉 낭만적 사랑, 모성애, 가정성과 상반되는 특징
- 부부관계의 불안정성
 - 탈근대 가족에서는 낭만적 사랑 대신 합의적 사랑, 즉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중요시 됨
 - 낭만적 사랑에서 중시하던 성적인 절제와 정숙한 여성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결혼의 중요한 부분도 아님
 - 부부는 자신들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함과 동시에 평생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
 - 합의적 사랑의 개념은 여러 상황 요인에 따라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결혼의 안정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음
- 역할의 탈분화
 - 탈근대 가족에서는 역할의 탈분화가 이루어져 성역할과 직업적 역할에서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음
 - 여러 직종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은 사라지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 분담하는 역할구분도 모호해지고, 종종 일터와 가정의 구분도 무너지고 있음
 - 탈근대 가족의 특성인 역할에서의 융통성은 부모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어린 자녀에게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됨
- 소비지향성
 -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가족의 기능 가운데 경제적 기능, 그 가운데서도 소비기능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음
 - 성장과정에서부터 물질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자란 결과, 소비수준이 높아져 있음
 - 거의 대부분의 신세대는 자신이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소비지향적 가치관이 정서적인 가치관보다 우위에 있게 되었음
 - 표면적으로는 탈근대적 가족이념을 표방하지만 강한 소비지향성으로 인해 신세대는 부모세대의 가족이념이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이념의 혼재상황을 야기하게 됨

3. 가족가치관의 변화

1) 결혼관

■ 혼인율감소

-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자발적 독신의 증가
 - ex) 초식남, 건어물녀
- 동거율의 증가도 혼인율 감소와 관련이 있음

■ 초혼연령 상승

- 혼인연령의 결정은 개인의 가치관, 가족이나 사회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
- 특히 여성의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이혼율 증가

2) 자녀관

■ 자녀출산

-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두 남녀의 애정적 결합이라는 의미보다는 집과 집, 가족과 가족,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 대다수의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ex) 자녀양육 자체에 대한 보람과 자녀를 통한 자기실현보다 직업을 통한 자기실현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경향
 -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도 선택의 문제이며 끊임없는 의사결정과 상호 간의 합의를 필요하는 것으로 인식

■ 자녀수

- 자녀출산이 선택의 문제로 변화하면서 희망하는 자녀수도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ex)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30명(2012년 기준)
- 저출산의 이유
 - 양육 및 교육 비용의 부담
 - 맞벌이 가족의 증가
 - 직업적인 성취
 - 불임부부의 비율 증가

■ 출생성비

- 가계계승과 노후의존도의 감소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의 약화
- 자녀의 가치 변화(도구적 → 정서적)

3) 가족부양관

- 우리나라 전통가족의 특성 : 강한 가장권과 동시에 아내권보다 강한 모권이 존재
-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효'의 규범은 가족 내에서 세대 간위계질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음

- 근대화와 탈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형태나 이념의 변화로 '효' 규범의 가치를 퇴색시켰고, 동시에 모권보다 강한 아내권의 등장으로 가족부양관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음
- 여성취업률의 상승은 가족부양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가족의 이해 / 6주차 2차시

1.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적 이론

- 에릭슨은 내적 본능 및 욕구나 문화·사회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발달이 전생애를 통해 계속된다고 주장
- 에릭슨에게 있어 주요 개념은 자아정체감의 발달
-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해 8가지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 8단계는 발달단계마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으며, 그 갈등은 양극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성공적인 해결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최상의 해결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것

1)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 신뢰감 vs. 불신감 : 출생~1세
 - 영아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신뢰감 형성
- 자율성 vs. 수치심 및 회의감 : 1세~3세
 - 쟁점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의존적이고 자기회의로 가득 찬 부끄러운 인간이 되느냐
 - 자기통제 : 배변훈련을 통한 특정의 항문부위를 넘어서 신체전반의 근육조직에 관한 통제능력이 요구됨
 - 성공적인 통제 : 자율성 획득, 통제력의 부족: 수치심 유발
- 주도성 vs. 죄책감 : 3세~6세
 - 생기와 활력, 호기심이 왕성하며 활동 에너지가 높은 시기
 - 급격한 언어의 발달: 끊임없는 질문
 - 아동의 호기심으로 인한 탐색적 행동과 주도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 근면성 대 열등감 : 6세~11세
 -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시기
 -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시기
 - 근면성 : 아동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 정체감 vs. 정체감 혼미 : 12세~18세
 - 자아정체감 :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 '나는 누구인가?'
 -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

-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성적 성숙, 진학문제, 전공선택 문제, 이성문제 등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됨
- 정체감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획득

Marcia의 자아정체감의 네 범주-위기와 수행(의사결정)	
• 정체감 성취	: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신념, 직업,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
• 정체감 유예	: 현재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 신념, 행동 등을 실험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
• 정체감 유실	: 자신의 신념, 직업선택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수 많은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부모나 다른 역할모델의 가치나 기대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
• 정체감 혼미	: 자아에 대해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 데 실패한 상태

- 친밀감 vs. 고립감 : 성인기
 - 친밀감 : 자신의 정체감과 다른 사람의 정체감을 융합시키는 능력, 타인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을 나누는 수용력
 - 정체감을 확립한 후에 진정한 친밀감 형성이 가능
 -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 :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고립감을 느낌
- 생산성 vs. 침체성 : 중년기
 - 생산성 : 성숙한 성인이 다음 세대를 구축하고 이끄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
 - 생물학적 생산성 : 자녀를 낳아 기를
 - 직업적 생산성 : 기술을 전수
 - 문화적 생산성 : 문화를 창조, 혁신, 보존
- 통합감 vs. 절망감 : 노년기
 -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 : 통합감
 -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평가 : 절망감

2. 가족발달

-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은 발달에 나가게 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됨
- 발달과업: 생활주기의 특정 시기에 직면하는 과업
- 각 단계에서 각각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면 이후의 발달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의 발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1) 가족형성기

- 부부 상호 간의 적응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후의 가족생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 부부는 여러 영역에 걸친 적응과 이후 가계운영, 자녀출산 및 부모역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단계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됨
- 성격적 적응 :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특성 및 생활습관을 이해하는 것
ex) 결혼 전의 환상과 결혼 후의 실제에 대한 적응
- 경제적 적응 : 부부의 경제생활, 특히 소비지출에 대한 태도에서의 합의
- 출생가족으로부터의 독립 : 부부는 각기 독립적이고 성숙한 개인으로 출생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함

2) 자녀출산 및 양육기

-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준비와 아울러 부모자녀 간 상호관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 임신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적절한 태내환경의 제공, 자녀출산을 통해 부부라는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자녀를 포함한 관계에 대한 적응이 필요
- 자녀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준비와 자녀출산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적절한 역할분담도 필요
- 자녀와의 기본적 신뢰감 형성과 자녀의 자율성이나 주도성 발달을 위해 적절한 정서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

3) 자녀교육기

-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됨
- 사회적 관계도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아가 또래집단의 비중이 커지게 되고 놀이가 중심이던 생활에서 학습의 비중이 커지게 됨
- 아동기 자녀가 적절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학업 성취를 통해 근면성을 발달시켜 나가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
- 동시에 부모도 자기발전을 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델을 자녀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한 발달과업
-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하므로 가족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에 대한 준비도 중요한 발달과업임

4) 자녀성인기

- 직업 선택, 군 입대, 배우자 선택 등과 같은 자녀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이 시기에 부모들은 빈 동지 시기로서 부모역할에서는 다소 해방되는 시기
- 빈 동지 시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역할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에너지를 부부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다시 상승하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몰두하여 자신의 생활을 발전시키지 못한 경우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함
- 자녀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부부 관계의 재조정이나 기타 사회적인 관계의 확장이 중요한 발달과업

5) 자녀결혼기

-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외형상으로 가족은 축소되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확장
-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은 자녀결혼기의 주요한 발달과업

6) 노년기

- 만성적인 신체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문제에 적응해야 하며,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족생활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의존적 특성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죽음을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여 배우자나 자신의 죽음을 침착하게 받아들임
-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다양한 가족(1) / 7주차 1차시

1. 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 정의

-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2) 한부모가족의 경향

- 한부모가족은 어머니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
-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이혼이나 혼전출산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3) 한부모가족의 특성

- 발생사유에 따라 상이하지만, 한 부모가 두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적인 특성
-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역할의 과부하
 - 경제적 역할과 동시에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함
- 경제적 어려움
 - 특히 저소득층에서 부자한부모가족보다 모자한부모가족에서 심각함

이데일리 뉴스 2016년 3월 22일자 기사 내용 중

- "한부모가족 60만시대의 그늘...이혼 후 워킹푸어로 전락"
 - ✓ 한부모가족의 10명 중 8명(77.1%)은 이혼을 통해서 사별은 15.8%, 기타는 7.1%
한부모 연령 : 40세 이상 49세 이하(61.2%) > 39세 이하(25.3%). 50대 이상(13.5%)
 - ✓ 이들의 자녀수는 △1명 49% △2명 44.8% △3명 이상 6.1%로 나타났음
 - ✓ 자녀의 연령 : 53.3%가 중학생 이상, 32.9%는 초등학생, 13.8%는 미취학 아동
 - ✓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 월 189만 6000원(2012년(172만 4000원)보다 17만 2000원 늘었음)
 - 하지만 전체가구 평균소득은 3년 동안 352만 8000원에서 389만 7000원으로 36만 7000원 늘었으므로 같은 기간 한부모의 소득인상액은 일반부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 특히 모자가구의 생활은 더 열악.
 - ✓ 모자가구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 147만 5000원
 - ✓ 부자가구의 평균 근로·사업소득 : 204만 2000원
 - 모자가구가 부자가구 보다 56만 7000원 적었음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36.7%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남녀 임금격차가 한부모 임금격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임

- ✓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10가구 중 4가구
 ex) 18.5%는 국가기초생활수급혜택, 28%는 차상위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인정돼 매달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았음

■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 의도적으로 전 배우자와 함께 형성하였던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사회적 지원의 양도 감소하게 됨

■ 정서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 무력감과 같은 정신질환 유발요인이 됨
-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한 고립은 불안과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이데일리 뉴스 2016년 3월 22일자 기사 내용 중

- “한부모 5명 중 1명 우울증 경험 ”
 절반 이상의 한부모는 경제적 사정(53.4%)을 이유로 아파도 참았다.
 특히 한부모 5명 중 1명은 2주 이상 우울증을 경험했지만, 병원 상담 대신 ‘혼자서 참는다’(54%)고 답한 이들이 많았다. 그 외에 △술을 마신다(21.9%)
 △친구·가족에게 이야기한다(13.6%) △의료기관의 치료·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다(5.7%) 등의 답변도 있었다.

4)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제

■ 전반적인 자녀양육문제

- 경제적 문제, 과중한 역할과 정서적,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부모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양육태도에 그대로 반영
- 이혼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
 ex) 이혼부부에 대한 국내의 연구(한경혜, 1992)에 따르면, 이혼부부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녀 모두 자녀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ex) 2005년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1391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정 4880건 중 45.9%가 한부모가정에서 발생(부자가정: 33%, 모자가정: 12.9%)

■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제는 한부모가족이라는 가족형태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부모 자신이나 자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모와 관련된 변인
 - ☞ 부모의 연령 :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
 -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가 독재적, 방임적일 때보다 민주적일 때 자녀는 보다 잘 적응함
 - ☞ 이혼 전의 갈등 유무 : 이혼 자체보다도 파괴적인 부모갈등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때 더욱 심각

- 자녀와 관련된 변인

- ☞ 자녀의 성별 : 남아는 여아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문제와 행동문제를 보이며,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딸을 가진 어머니보다 어려움을 겪음
 - ➔ 이유: 부성실조 가설,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어머니의 태도
- ☞ 자녀의 연령 :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ex) 학령전 유아 : 죄책감
 - 학령기 아동 : 불안감이나 수치심
 - 청소년기 :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

5) 한부모가족의 부모역할을 위한 지원

■ 사회적 지원

- 특히 모자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마련과 아울러 취업의 중요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인식의 전환이 필요 : 한부모가족을 결손가족, 불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환이 요구됨
 - ex) 편부모➔한부모('한': 하나, 즉 하나로서 온전하다는 의미.
 - 한 명의 부모가 두 부모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있다는 의미)
 - ex) 가족의 구조적 특징 & 기능적 특징
- 한부모가족의 역할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나 친지와 같은 사회적 지원망과 적절한 보육시설을 제공해주는 것

■ 부모역할의 지침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은 가족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자신의 태도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침
-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부모 자신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신감이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 ☞ 이혼으로 인한 인생에 대한 실패감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음
 - ➔양육자로서의 자신감 결여
 -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 ☞ 자녀의 양육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
 - 사회적 지원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친지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원망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2. 재혼가족

1) 재혼가족

-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한 한쪽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형성되는 가족

cf) 계부모가족 : 재혼가족에서 부부 가운데 어느 쪽이든 전혼 자녀가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2) 재혼가족(계부모가족)의 경향

- 재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통계상의 수치로 반영되지 않지만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재혼가족도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계부모가족은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 사별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계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

3) 재혼가족의 특성

■ 전혼의 영향

- 전혼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나 좌절감, 외로움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부정적 경험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됨
- 계부모가족은 부모-자녀 간의 유대가 배우자 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부부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ex) 부자가족의 경우에서 딸 :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면 딸은 계모를 자신의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역할의 모호함

- 계부모가족에서는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
- 역할을 애매성으로 인하여 가족응집성이 낮고 빈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는 상호간에 낮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적 편견

- 계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부모역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특히 계모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범문화적 고정관념 중 하나

4) 재혼가족의 자녀양육문제

■ 계부모의 문제

- 자신의 친자녀가 아닌 누군가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 계자녀들은 편가르기의 방법을 곧잘 사용하며 이로 인해 부부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이 생길 수 있음
- 자녀의 친부모인 배우자가 계부모인 자신이 자녀훈육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음
- 자신이 새 배우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음
- 가정의 경제적 형편상 계부모의 욕구보다 계자녀의 욕구해결이 우선 시 될 때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음

■ 계자녀의 문제

- 자신의 친부모를 계부모와 공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함
- 자녀는 새로 형성된 가족도 이혼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새 가족에 정을 붙이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음
- 자녀들은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행동방식에 적응해야 하며, 자신의 친부모가 용인해주었던 행동을 일일이 계부모의 훈육과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음
- 자녀들은 자신이 계부모를 좋아한다는 것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친권부모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음
- 자녀들로서는 이혼한 부모들의 재결합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 힘든 일이며, 이로 인해 계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갖기 쉬움

5) 재혼가족의 부모역할에서 고려해야 할 점

■ 바람직한 계부모의 양육태도 취하기

- 재혼 초기에 계자녀와 따뜻한 관계 형성
- 친부모의 훈육방식 지지
- 갑작스럽게 통제적 훈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제

■ 자녀양육에 대한 개입수준 조절하기

- 계부모가족은 초혼가족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혼가족과 같다고 생각하며 초혼가족처럼 보이려고 가장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
- 자신이 친부모를 대신하겠다는 슈퍼 계부모 역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기

- 부모자녀관계는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지 않음
- 하나의 가족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전혼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배려해주기

- 계자녀의 기억 속에 함께 살지 않는 친부모와의 기억이 남아 있음을 인정해주고, 자녀에게 비친권자인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적응에 도움이 됨
- 계부모는 친부모와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정립을 시도하는 것이 좋음

다양한 가족(2) / 7주차 2차시

1. 입양가족

1) 입양가족의 개념

- 입양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 입양가족 : 입양으로 형성된 가족
 -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의 자녀를 사회적,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
 -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됨
- c) 파양 : 양친자관계(養親子關係)를 소멸시키는 행위
 - 파양으로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하고,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양친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도 종료(민법 776조)

2) 입양의 의의

- 출산을 통해 부모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개인적 측면의 긍정성)
- 친부모가 기를 수 없는 아이를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사회적 측면의 긍정성)
- 법에 따라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
 - 입양아동은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 민법에 의한 양자입양
 - 양자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
 - 민법에 의한 친양자입양
 - 일반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의 관계가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 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됨

■ 입양공개 여부에 따라

- 비밀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여,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입양
- 공개입양
 - 공개입양은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하지만 친생부모와는 접촉하지 않는 입양
- 개방입양
 - 입양사실을 공개하며, 친생부모와도 편지, 사진교환, 만남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입양

■ 혈연 유무에 따라

- 친족입양
 - 확대가족 등 혈연관계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성립된 입양
- 비친족입양
 -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입양부모에 의해 성립된 입양

3) 입양가족의 특성

■ 혈연관계가 없는 부모자녀관계

- 현대사회에서 입양으로 맺어진 대부분의 부모자녀관계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자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파양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
 - 이러한 사실은 양부모가 아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 자녀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영속적이라는 믿음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회적 편견

- 우리 사회에서는 계부모에 대한 편견과 유사한 편견이 입양부모에게도 존재
 - ex) 왜곡된 사고 : 친엄마(친부모)가 아니라서 나한테 이런가?
- 우리나라에서 비공개입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함

4) 입양가족의 문제

■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 ex) 불임으로 인해 입양을 하는 양부모들

■ 입양 전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 ex) 입양아동 : 친부모로부터의 버림,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정체감 혼란

■ 양부모의 잘못된 기대

- ex) 입양아동이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가족에 완전하게 동화될 것이라는 기대

- 부부관계에서의 문제

ex) 부부 중 한쪽이 지나치게 입양아동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음으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5) 입양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 공개입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최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공개입양이 입양아동과 부모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점차 공개입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입양절차나 입양 이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입양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입양부모의 조건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입양 이후에 체계적으로 입양가족의 적응문제를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

-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

- 입양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오히려 입양에서의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ex) 입양아동 : 가슴으로 낳은 자식

2.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개념

-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

-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족 등 차별적 용어 대신 '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

-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도에 다문화사회로 진입

2) 다문화가족의 문제

- 국제결혼의 제도상 문제점

- 초스피드 결혼 : 일단 하고 보자 식의 결혼
- 무책임한 국제결혼정보회사들 : 결혼 성사에만 급급해 배우자의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기도 함
- 사기 및 위장결혼 : 한류 체류나 취업을 위해 결혼이 악용됨
-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국적취득 :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자,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취득 가능한 국적 모두 남편의 동행으로 가능함

- 국제결혼의 생활상 문제점

- 부부갈등 : 언어장벽, 문화 차이 등
- 자녀교육 문제 : 인종차별,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한 언어습득의 어려움 등

■ 국제결혼의 생활상 문제점

- 2020년에는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이 다문화가족이 되고 10년 후 농어촌 학생의 25% 정도가 다문화자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비해 국제적 인권, 언어, 문화 적응, 자녀교육 등의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
-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유아기, 학령기에서부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구조적 실업이나 사회부적응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3. 동거와 독신

1) 동거

■ 동거의 개념

- 혈연관계나 친족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생활형태
- 1960년대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나타나 서구의 여러나라로 확산되었음
ex) 미국 : 절반 이상의 성인이 결혼 전 동거 경험 있음

■ 동거의 이유

- 우리나라의 경우 동거문화는 초기에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동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동거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의 경우, 결혼에 앞서 상대방을 파악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할 것이고 이혼율도 줄어든다는 것 → 실제 연구결과는 분분함 •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 비교적 평등한 관계형성이 가능 : 역할 분담 등 • 비교적 자유로움 : 결혼과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나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동거관계에서도 심리적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 • 동거의 경험이 오히려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적 인식의 문제 •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2) 독신

■ 독신의 개념

- 최근 가족형태에서의 뚜렷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독신의 증가추세
- 독신기간이 장기화되고, 결혼시기도 늦어지고 있어 이제 독신도 결혼의 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

■ 독신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삶의 추구 •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데 유리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움 :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로움의 문제고 증가함 •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 :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거나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됨 •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 • 사회적 문제 : 낮은 출산율

다양한 가족 3 / 9주차 1차시

1. 맞벌이가족

- 최근 가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확대되었다는 점
- 맞벌이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현상은 아님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유사 이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단지 그 형태상의 변화가 있었을 뿐임
- 농경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아 부부가 공동으로 생계유지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남성은 일터로,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종사함으로써 분리된 생활영역을 갖게 되었음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노동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게 되었으며, 부부가 모두 일터로 나가는 맞벌이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맞벌이 가족의 특성

■ 역할분담 관련 문제

- 역할과부하와 역할갈등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쪽에서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게 됨
- 맞벌이가족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역할과 부하 현상은 역할분담 실태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가사분담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비맞벌이 가구에서 총 가사활동 시간은 여성이 6시간 43분, 남성은 1시간 6분, 맞벌이 가정에서는 여성이 3시간 45분, 남성은 1시간

→ 참여시간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가사노동을 분담하기보다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도 남성의 가사활동 시간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 역할분담 의식의 문제

- 우리나라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분담의식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역할갈등은 불가피함
- 남성은 아내의 취업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아내의 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전업주부로 자리를 비울 때 생기는 공백이나 부담은 싫어하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음
- 남성의 의식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식도 마찬가지여서, 여성이 맞벌이를 할경우에도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거나 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퍼우먼 콤플렉스 : 아내나 부모, 직장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여성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

2) 맞벌이가족의 자녀양육문제

- 맞벌이가족의 역할분담 실태나 의식에 비추어볼 때, 맞벌이 가정에서 최대의 난제가 자녀양육문제임
- 자녀양육에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양육자 부재 문제
 - 전통가족에서와는 달리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됨으로써 여성이 취업할 경우 이를 대체할 양육자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1995년 보육시설 확충 3년 계획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차원에서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 왔음
 - 그러나 아직도 보육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일뿐만 아니라 기존 보육시설은 취업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첫 자녀가 3~4세 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함
 -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패턴은 선진국과는 대조적으로 M자형을 보이게 됨
 - 어린 자녀의 존재 여부는 여성들의 취업중단 경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이며, 최근의 저출산율은 이러한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 자녀양육과 관련된 역할분담 문제
 -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녀양육을 자신이 전담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양육에서 남편의 분담의식은 상당히 낮은 편임
 - 이러한 역할분담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데, 취업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
 - 예) 연구결과, 취업모가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경우(67.8%)가 갖지 않는 경우(24.4%)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맞벌이가족을 위한 지원
 - 맞벌이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배려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임
 - 사회적 지원과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지원
 - 다른 가족의 문제와는 달리 맞벌이가족의 문제는 사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 ☞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인 확충이 급선무임

- ☞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보육비용 부담이 심각한 문제임
- ☞ 그 외에도 실제 부모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필요함

예) 직장보육시설, 영아전담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실을 더욱 확충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게도 보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형 보육 시스템이나 베이비 시터에 대한 정보부족,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교대로 육아를 하는 공동유모제, 인터넷으로 아이의 모습을 볼 수있는 사이버 보육원, 영유아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원, 저소득층의 모자결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엄마에게는 일이나 기술습득을 지원해 주고 자녀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서구의 모자통합보육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필요함

• 제도적 지원

-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최장 90일의 산전 산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음
- ☞ 서구에서와 같이 출산한 아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남성 출산휴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일단 중단했다가 다시 복직할 수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분거가족

- 분거가족 : 가족원들이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둘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여 비교적 장기간 별거 생활을 하거나, 동거를 하더라도 성원들의 출타가 장기적이고 빈번한 가족 형태

1) 거가족의 현황

우리나라의 분거가족의 발생 원인 :
남편의 직장문제 → 자녀의 교육문제, 여성의 취업률 증가

- 우리나라에서 분거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산업화가 가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부터임

- 농촌에서 거주하던 가족들이 일시에 도시로 이주하기 어려워 일부 가족원이 먼저 이주하면서 분거가족이 나타났음
- 1970년대에는 경제활동 영역이 도시가 아닌 해외로 확대되면서 해외취업으로 인한 분거가족이 생겼음
- 1980년대부터는 분거가족의 한 형태인 주말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지방산업의 활성화로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만이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나머지 가족들은 살던 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분거가족은 날로 증가 추세를 보였음
- 최근의 분거가족은 자녀의 교육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대도시에서 살던 가족이 가장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자녀들이 고학년일 때에는 자녀와 어머니가 대도시에서 남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에 살던 가족도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대도시로 옮겨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내뿐 아니라 자녀의 해외 조기유학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국내와 해외에 각각 거주하면서 떨어져 살거나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아버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기러기아빠'와 같은 신종 분거가족들도 급증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여성의 취업률 증가도 분거가족의 증가에 일조를 담당함
- 결혼 후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분거하기도 하지만, 분거를 전제로 결혼을 하는 주말부부도 상당수 있음
 - 또한 여성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부부의 맞벌이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주중에는 어린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형태도 급증하고 있음

2) 거가족의 장단점

- 장점(어떤 측면에서는 독신생활에서의 장점과 유사하다)
 - 대다수의 분거가족들이 분거의 이점으로 직업적 성취에 보다 매진할 수 있고 떨어져 있음으로써 서로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가사분담이 보다 평등해지거나 재분배될 수 있음
 - 특히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음
- 단점
 - 부부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기고 어색하며 성적인 문제나 심리적 불안감이 생길 수 있음
 - 부모모델의 부재로 인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분리된 생활 때문에 생활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분거와 재회가 반복되는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함
 - 또한, 기러기 아빠들의 경우,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무자녀가족

-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 자녀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 : 불임, 자녀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 자발적 무자녀 가족 :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 자녀 가족의 증가원인

- 여성교육수준의 향상과 취업률의 증가
- 개인주의적 가치관
- 양육자 부재 및 보육시설의 문제
- 경제적 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교육비·돌봄 비용 등) 지출액은 1자녀 64만8000원, 2자녀 128만5000원, 3자녀 152만9000원으로 조사됨

양육비 중 30%를 차지하는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 소득에 따라 최대 5배 넘게 차이가 났음

아이가 1명인 가정과 2명인 가정의 월평균 양육비 차이는 딱 2배 수준이었지만 자녀가 3명인 가정은 둘째가 있는 가정보다 19%(약 25만원)만 증가

보건복지부(2011)는 전국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이라고 답했음

2) 무자녀 가족의 장점

- 자녀양육의 책임이 없어 자유롭고, 부부관계가 방해받지 않으며, 직업적 성취에 유리하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음

3) 무자녀 가족의 문제점

- 개인적 발달과업의 문제
 - Erikson은 부모됨의 선택은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사회적인 측면의 문제
 - 무자녀 가족은 사회구성원을 충원시키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혼율의 증가
 - 무자녀 가족은 유자녀 가족에 비해 이혼을 결정하기가 쉬운 편임

'무자녀 이혼' 첫 50% 돌파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50.4%인 5만8073쌍은 미성년 자녀가 없었음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가 2만9972쌍(26.0%), 2명이 2만3344쌍(20.3%)이었음
3명 이상은 전체의 3.3%인 3천863쌍에 불과했음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까지 뛰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음

4. 미래의 가족

1) 사회변화와 가족의 변화

-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수동적인 변화와 동시에 가족은 스스로 변화속도나 방향을 조절해 나가는 능동적인 단위이기도 함
 - 가족은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가족은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음
- 사회변화에 따라 한국가족은 부계 직계가족에서 핵가족, 핵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기능적으로 변화해 왔고, 이러한 형태상의 변화에 부응하여 가족이념이나 가치관도 변화해왔으며, 전통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부 의 형태로 우리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외형적인 변화와는 달리 아직도 한국가족에서는 부계 직계가족의 원리가 여전히 중요한 가족가치로 잔존해 왔음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지만 아직까지 핵가족은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존재하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선보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나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독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만 재혼율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파탄보다 가족의 파탄을 더 심각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음
 - 또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무자녀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온갖 치료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2) 가족변화에 대한 관점

- 부정적 관점
 - 사람들이 가족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려 하지 않고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이를 사용함
 - 이러한 개인주의로 인해 가족관계에 가치를 두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이 가져야 할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권리가 실종되었고, 동시에 가정의 기능도 쇠퇴하였으며 앞으로도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음
 - 가족의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세대차가 크게 나타나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변화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족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특히, 자녀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긍정적 관점

- 가족의 변화는 시대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에서 이에 적응해 나가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임
 - 가족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출해 낸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농경사회에서는 확대가족이 보다 적응적인 형태였지만,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이 가장 적응적인 형태였으며,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에 가장 적응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 나고 있음
 - 가족의 변화는 위기라기보다는 가족이 사회변화에 걸맞게 적응해 나간 결과로 보아야 함
- 가족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신뢰하고, 여전히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가족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
 - 가족이라는 제도가 해체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제도는 건재함
 - 가족형태, 이념, 가치관의 변화에도 가족원들은 상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3) 미래의 결혼과 가족

■ 결혼과 가족의 전망

- 개인화 현상
 - 텔레비전이나 전화를 공유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개인단위의 미디어가 등장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집단의 구속력, 가족의 구속력은 약화될 것
 - 개인의 성취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독신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
 - 동시에 초혼 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혼인율은 정체상태이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또한 결혼을 한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출산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인터넷 가상공동체의 출현으로 모든 개인의 활동이 다차원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사회의 형성
 -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에서 실제 가족이나 친척관계보다 더 밀접한 의사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공통의 욕구나 관심사에 근거하여 형성된 인터넷 언론, 채팅, 온라인 동호회 등과 같은 문화 공동체는 실제 가족관계 못지 않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가족관계가 느슨하고 다양해지는 관계의 유연화
 - 관계의 유연화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의미나 응집력은 약화되고 특정한 유형의 가족이 주류를 이루기보다는 그 형태 면에서 보다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과의 관계로 변화하여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도 보다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변화해 갈 것임
 - 남녀 간의 역할구분도 보다 느슨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친밀감과 더불어 독립적인 속성이 공존할 것으로 보임
 - 결혼과 독신, 남성과 여성의 대립체계가 해체되고, 경계가 허물어지며, 편견이 감소하고, 평등성은 보다 증가할 것임
- 앞으로의 과제
 - 가족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모습의 가족 이후에 오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엄연히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음
 - 가족은 혈연보다 유대감과 정서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의 해체나 붕괴보다 가족의 변화라는 현실을 수용해야 함
 -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이며, 이상적인 가족은 그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가족원 모두의 욕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음
 - 바이탈 가족
 - 이상적인 가족형태는 어떠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개념
 -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세대를 초월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존중함
 - 아직까지는 이론적 모형에 불과할 수도 있음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상적인 이념만이 제시된 실정이기 때문임
 - 이러한 가족의 개념은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형태가 어떠하든 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존중 받는 균형 있는 가족의 구현이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켜 주고 있음
 - 가족은 형태만 변했을 뿐 그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
 - 여전히 가족은 개인에게 위안과 휴식,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이 많이 바뀐다 해도 가족에게 사랑과 안식, 행복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은 바뀌지 않을 것임
 - 가족의 다양성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모두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함

결혼의 실제 / 9주차 2차시

1. 결혼의 동기 및 기대

1) 결혼의 동기 :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

- 결혼은 하나의 계약임
- 계약은 당사자인 두 사람 간의 특정한 권리를 허용하고 특정한 의무를 떠맡아야 하는 것임
-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 속에 담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약속 이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임
- 그런데 결혼의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게 되더라도 법적인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서로 어긋나면 헤어지지만, 막상 결혼하면 연애 때와는 달리 헤어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
-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이유이자 결혼 속에 숨겨진 트릭이 있기 때문임

2) 결혼은 헤어지지 않기 위한 고도의 속임수

- 결혼은 헤어짐을 어렵게 만듦. 왜 이러한 트릭이 필요하냐면, 그것은 남녀관계의 속성 때문임
- 남녀관계란 매우 불안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불안정한 남녀관계를 쉽게 깨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 결혼은 이별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그로 인해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임
- 결혼은 특수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장치가 필요함
- 특수한 투자 : 결혼을 염두해 두고 배우자 후보들을 탐색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 수고가 있어야 함.
결혼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특수한 종류의 투자를 감행해야 함
- 친밀감과 따뜻함을 생산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 그런데 헤어지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공들여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림
- 결혼은 이렇게 특수한 종류의 투자를 감행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완화시켜줌
- 불안정한 남녀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족쇄를 채워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
- 장기적이고 특수한 투자가 단한번의 역풍에 허사가 되어버리는 사태를 막아주는 것임
- 만약 남녀 간의 이별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그 누구도 막대한 노력과 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감행되는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임

3) 결혼의 기대

■ 결혼생활의 이득

- 결혼하면 돈을 벌 수 있음

① 고정비용의 감소 : 가격대비 큰 가치

예) 싱글과 커플의 전자렌지 사용

② 분업의 힘 : 전체 생산성 향상

- 2인조의 팀으로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음
-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처리함으로써 전체 가사활동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임

③ 규모의 경제 : 대량구매와 생산을 통한 비용절감

- 어떤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할수록 그 활동의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것
예) 다림질
- 남성들에게 결혼은 부와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
예) 실제로 학력, 직업, 연령 등 동일한 조건의 남자를 기혼과 미혼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기혼남이 미혼남보다 10~40%의 높은 봉급 상승률을 보였음
-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식까지 평균 1년의 준비기간이 든다고 봤을 때, 대략 그 무렵부터 총각시절의 무질서한 생활습관을 자제하게 되어 지각, 결근, 병가 등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서 봉급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임

④ 그 외

- 데이트 비용의 절약
예)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 1회 평균 데이트 비용 7만2000원, 한달 평균 데이트 횟수 10회
- 결혼의 가치는 연간 10만 달러
예)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
-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별거 혹은 이혼한 사람이 결혼한 상태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연간 약 10 만달러의 소득이 늘어나야 했고, 독신자가 결혼한 상태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연간 약 7 만달러의 소득이 늘어나야 했음
-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이라는 목적의식이 생겨 함부로 돈을 쓰기보다는 미래를 고려한 저축과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큼

- 결혼하면 수명을 연장시킴

- 기혼남성들은 독신남성보다 평균 10년 더 오래 삼
- 같은 나이라도 기혼남성들은 신체연령이 3년 더 젊으며 특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남자는 독신에 비해 신체 나이가 평균 4.5년 더 젊다는 보고
-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신남성보다 기혼남성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덕분이라고 함

- 뉴질랜드의 한 연구 : 결혼은 남녀 모두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은 삶의 행복지수를 높임
 - 스위스의 한 연구 : 독신자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진행과정을 수년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찍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결혼의 특수한 이득: 비물질적인 재화의 생산
 - 친밀감, 애정, 신뢰, 따뜻함, 함께하는 즐거움 등

2.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개념

■ 결혼만족도

-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결혼의 질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개념
-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결혼만족도의 개념은 결혼생활의 지속성 여부를 지칭하는 결혼 안정성과는 개념적으로 상이하지만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결혼의 안정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부들은 얼마든지 있음
-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음
-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

■ 안정성과 만족도에 의한 부부관계의 유형

- 껍질 속이 짝 찬 유형
 - 안정성과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형
- 껍질 없는 유형
 - 안정성과 만족도가 모두 낮은 유형
- 반 껍질 유형
 - 만족도는 높는데 안정성이 낮은 유형
- 빈 껍질 유형
 - 만족감은 낮으면서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는 유형
- 실제로 결혼생활에는 이들 네 가지 유형들이 모두 존재함
 - 예) 껍질 없는 유형은 절반이 결혼 후 7년 이내에 이혼함
 - 예) 빈 껍질 유형은 애정은 없으면서도 의무감과 자녀문제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함

2) 결혼만족도의 구성

■ 영역별 구성요인

- 교류적 과정 : 의사소통 & 갈등해결
 - 부부관계의 교류적 과정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짐
 -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부부 간의 친밀성을 증가시키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임

- 정서적 과정 : 친밀감

- 친밀감 : 상호 간에 여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존중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서로 돌보아주고 돌보아진다는 감정과 성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 인지적 과정 : 규범적 규칙 & 이데올로기

- 규칙은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며, 가족원 간의 경계를 명백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음
- 규칙은 주로 부부관계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가족의 이데올로기는 가족의 목표와 규범,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어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하위개념이 됨

■ 고정적, 유동적 위험요인

-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인은 변화가능성 여부에 따라, 고정적 요인과 유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고정요인

결혼생활에서 많은 요인들은 고정적인데, 모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고정요인들이 많을수록 결혼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어렵게 됨

일상적인 문제나 실망스러운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신이나 배우자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종교적 배경이 상이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유동요인

고정적인 요인과는 대조적으로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험요인 부부관계에서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생각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상호간에 대화나 다툼이 부정적인 형태인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진 경우.
상호 간의 헌신 정도가 낮은 경우 신념을 함께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건 유동적이건 높은 위험요인은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야기함
-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적, 유동적 위험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됨
- 고정요인은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동요인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살펴본 결혼만족도의 교류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유동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사회인구학적 요인

-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는 결혼기간, 성별, 사회계층, 자녀수, 가족의 크기 등을 들 수 있음
-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그 자체로는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고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른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결혼기간

- 결혼기간이 증가하면서 결혼만족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vs.
- 결혼초기에는 높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후기에 다시 높아진다는 두 가지의 연구결과로 분류됨
-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해 나가는가는 두 사람이 형성하는 결혼의 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상호간에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한 부부관계에서는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신혼기의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은 감소하지만 동료적이고 동반자적인 사랑은 오히려 깊어지며, 결혼만족도도 증가함
- 반면 불신감이나 갈등이 누적된 결혼생활에서는 오히려 두 사람의 연결고리인 자녀가 독립하는 빈 동지시기에 상호간에 아무런 유대감을 발견할 수 없으며, 결혼만족도는 감소하고 결혼생활은 오히려 위기를 맞게 됨

(2) 성별

-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가부장적인 가치관 속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역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

(3) 사회계층

-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남
- 즉, 수입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경제수준은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4) 자녀수

- 자녀의 수와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부적 상관을 보임
- 돌보아야 할 자녀수가 많다는 것은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

(5) 가족구성원

-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함
- 확대가족의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별거하는 며느리보다 더 많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핵가족의 비취업모가 확대가족의 비취업모 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가족체계적 요인

- 결혼만족도에는 개인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응집성이나 융통성과 같은 가족체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침

(1) 가족응집성

- 가족응집성 :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
- 가족응집성은 개별성과 집단성 간의 균형이 핵심임
-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하고자 하는 '개별성'과 욕구와 타자의 의지에 따라 의존적이며 공동체로서 존재 하고자 하는 '집단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욕구가 존재함
- 가족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가깝고 친숙한 느낌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독립도 필요함
- 그러므로 가족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욕구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융통성

- 융통성 :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가족 내의 권력구조나 역할관계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융통성은 안정과 변화 간의 균형이 핵심임
- 가족 내에는 안정감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경우 변화를 위해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함

부부관계의 이해 / 10주차 1차시

1. 부부관계의 역할

- 결혼 이후 공동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임
 -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주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사회변화로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 간의 역할에 대한 상호 간의 기대와 수행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1) 부부관계에서 역할의 의미

- 역할 :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의무의 총체
- 역할과 관련된 개념에는 역할기대, 역할수행, 역할인지, 역할만족, 역할갈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영역이 있음
- 역할기대 : 상대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
 - 남편은 아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나름 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역할수행 : 이러한 기대와는 무관하게 실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
- 역할만족 : 우리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대방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며, 이러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간의 차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
 - 부부 중 한 사람의 기대가 지위 지향적인 유형이고 다른 사람은 인간지향적인 경우, 유사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역할만족도는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
- 역할인지 : 상대방의 기대나 자신의 수행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 상대방의 역할기대에 일치하는 역할수행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지각하는 역할인지와 일치하는 역할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반면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됨
- 부부간 주요 역할 문제

- 불공평한 가사분감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음
- 가사분담이 개인의 관심사보다 전통적인 역할구분에 의해 이루어짐
- 남편은 아내만큼 역할적응을 위한 의지가 없음
- 자녀가 어린 경우 아내의 취업여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음

- 평등한 관계유지를 위해 부부 모두 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음

- 부부는 각기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데, 부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부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남편은 경제적 생산 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육하는 엄격한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했음
 - 아내는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을 담당하며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자애로운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이 기대되었음
 -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다양해졌음
 -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부부의 권력과 역할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부부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과 더불어 새로운 부부역할을 지닌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 부부역할의 유형

1. 부부취업형 가족

- 부부취업형 가족 : 부부가 각기 직업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가족
- 이런 가족은 부부가 모두 직업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며 직업생활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반면, 과거 전통적 가족에서 아내의 역할이었던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뒤따름
- 부부가 모두 경제적 수입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어서 부부 간에 평등한 가족권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아직 가부장적인 의식이 남아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서는 가족권력과 가족역할의 분담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

2. 역할공유형 가족

- 역할공유형 가족 : 가정 내의 역할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의 가족
- 과거의 전통적 가족에서 전적으로 아내에게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역할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갖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남편도 식사를 준비하고 세탁을 하며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일에 동참함
- 아내 역시 친인척과 관련된 일이나 가족을 대표하는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양역할을 분담하게 됨
- 역할공유형 가족은 아내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역할의 공유영역이 확대되고 가족 내 성역할이 평등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가족형태이다.

3. 역할전환형 가족

- 역할전환형 가족 : 전통적인 가족에서 담당했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뒤바뀐 가족 형태
-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정 내에서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 직업이 생겨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는 가정 내에서 일하는 남편과 가정 밖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아내로 구성된 가족이 나타남

- 때로는 가정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가사일을 선호하는 남성도 있음
-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경제적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남편이 가정 내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도된 부부역할의 형태가 나타남

2) 역할분담 실태와 인식(통계청(2014). 사회조사 자료)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가사분담, 남자 42.7%가 「공평하게 분담」 의견
실제 분담은 16.4%에 불과

-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7.5%로
2008년 32.4%에 비해 15.1%p 증가함

*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 :
32.4%('08) → 36.8%('10) → 45.3%('12) → 47.5%('14)

- 성별로는 여자(52.2%)보다는 남자(42.7%)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평분담 비율이 낮아짐
- 한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평소 가사분담 실태를 질문한 결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남편은 16.4%, 부인은 16.0%로 견해와 실태 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

(단위 : %)

	계	부인이 주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 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2년	100.0	52.0	5.3	46.7	45.3	2.7	2.2	0.4
2014년	100.0	50.2	5.3	44.9	47.5	2.3	1.9	0.4
남 자	100.0	54.6	7.0	47.6	42.7	2.7	2.1	0.5
여 자	100.0	45.9	3.7	42.2	52.2	1.9	1.6	0.3
13~19 세	100.0	25.1	1.6	23.5	71.8	3.1	2.7	0.5
20~29 세	100.0	29.5	1.3	28.2	68.2	2.3	2.1	0.2
30~39 세	100.0	48.5	3.3	45.2	50.4	1.1	0.9	0.2
40~49 세	100.0	58.5	5.3	53.2	39.5	2.0	1.5	0.5
50~59 세	100.0	60.6	6.2	54.4	36.4	3.0	2.4	0.6
60세 이상	100.0	61.7	11.0	50.7	35.8	2.5	2.1	0.4

【 가사 분담에 대한 실태(함께 살고 있는 부부) 】

(단위 : %)

	계	부인이 주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 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14년								
남 편	100.0	80.5	25.0	55.5	16.4	3.1	2.3	0.8
부 인	100.0	81.5	29.6	51.9	16.0	2.5	2.0	0.5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19세 이상 '남편'과 '부인'만 응답함

3) 역할과 가족 내 권력 관계

-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족 내의 권력은 상당 부분 남성에게 주어졌으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가족 내 권력의 소유자나 권력구조의 형태는 점차 변화하고 있음

- 가족 내 권력의 근원

- 가족 내 권력 : 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권력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권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작용의 형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동일한 권력에 대한 인식에서도 개인차가 있음
- 자원이론에서 설명하는 가족관계에서의 권력은 교육수준, 금전, 직업적 명성 등과 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좌우되므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함
- 이 이론에 따르면,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이 표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보다 교육수준이나 금전, 직업 등의 영역에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됨
-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입이 많음에도 여성의 지위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므로 가족 권력은 단순히 교육수준, 금전, 직업적 명성 등과 같은 자원의 기능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능이나 성격특성, 외모, 대인관계능력, 유머감각 등 다양한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즉, 가족 내 권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권위뿐 아니라 보상이나 처벌, 존경심과 같은 다양한 자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가족 내 권력관계의 인식

- 부부관계의 권력구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등한 유형이 전통적인 유형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특히 남편보다 아내가 자신들의 관계를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예측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 내 권력관계의 유형

- 남편지배형 : 남편이 우두머리인 권력구조

- 아내지배형 : 아내가 우두머리인 권력구조
→ 이들 두 가지 유형은 한 사람은 지시하고 상대방은 따르는 유형이므로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움
- 협동형 : 권력이 공평하게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유형
- 자율형 : 전반적으로는 권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나 남편과 아내가 각각 특정한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

2. 부부관계의 적응

1) 부부의 적응

-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는 기쁘고 즐거운 변화
 - 그러나 결혼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인생의 커다란 변화이기도 함
- 결혼을 하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김
 - 남편 또는 아내로서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이 부여됨
 -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많은 부부들이 행복해야 할 결혼 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함
- 결혼생활은 적응해 가는 과정임
 - 행복한 부부관계는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
- 결혼으로 새롭게 부과된 역할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일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필수조건
 -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적응과제와 갈등이 새롭게 떠오름
 - 이러한 과제와 갈등을 잘 해결하여 적응하지 못하면 결혼생활은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워짐
- 부부관계에서 적응이라는 의미

1. 결혼생활에서 드러나는 부부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
결혼하여 함께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점과 결점을 수없이 발견하게 됨
이러한 부부간 차이는 성격, 행동습관, 감정표현, 가치관, 흥미 등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며 흔히 부부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됨
이러한 차이를 서로 수용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조화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부부관계 적응의 주요한 과제임
2. 결혼 전 연인관계에서 결혼 후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서로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
연애와 결혼은 현격하게 다르듯이, 연애할 때의 상호관계와 결혼생활에서의 상호관계는 다름
상대방에 대한 호칭, 애정표현방식, 부부의 역할과 권력, 친인척과의 관계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김
결혼 초에 특히 이러한 변화된 관계를 잘 인식하고 그에 적응해 가는 일이 중요함
즉, 결혼 전의 연애상태가 아니라 결혼한 부부로서 서로를 대하고 행동하는 변화와

전환이 필요함

3. 부부관계의 적응은 결혼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상적 과업을 배우며 익히는 과정
결혼을 통해 새로이 부과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적응임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수행해야 되는 새로운 과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적응의
중요한 측면

2) 성공적인 부부관계

- 행복하고 이상적인 부부관계, 즉 성공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7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결혼생활의 지속성 즉,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부부관계를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
 - 결혼생활에서 갈등, 다툼, 불안, 문제가 적은 부부
 - 부부간의 일체감과 응집성이 높은 부부
 -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부부
 - 결혼생활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도가 높은 부부
 -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은 부부
 - 사회적 요구나 기대에 부합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 성공적인 부부의 8가지 심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주관적으로 행복감을 느낌
 -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음
 - 배우자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서로 도움
 - 결혼생활을 통해 인격적인 성숙과 잠재능력의 발휘가 이루어짐
 - 부부는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함
 -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함
 - 배우자의 행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님
 - 가족과 배우자에 대해서 자발적인 책임을 느낌

부부관계의 탐구 / 10주차 2차시

1. 부부 갈등

-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한 연구에서 불만족의 차원은 주로 갈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되어 왔음
-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만족스러운 결혼인 것은 아니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음
- 그러므로 부부갈등은 만족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결혼생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

1) 갈등의 개념

- 갈등 : 인간관계에서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대립되는 감정이나 욕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
- 결혼생활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요소임
-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뿐 아니라 부부간의 기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임
- 성생활과 대화방법, 성격, 처가 및 시가와의 관계, 본가와와의 관계, 자녀 양육방식, 경제문제, 습관, 가치관 등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제약들이 사라져 감에 따라 선택의 여지나 가능성이 많아졌음
-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 각자가 수많은 의사결정에 직면해야 함으로 의미하며, 의사결정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됨
- 부부간의 문제는 갈등여부가 중요한 변수라기보다는 이러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한 경우에 발생함
- 성공적인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갈등을 경험하되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2) 갈등대처양식

- 회피유형
 -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관심 모두 낮은 유형
 -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에 대해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묻어두게 됨
 - 이 유형은 갈등상황을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는 이점은 있으나,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보다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함
- 조절유형
 -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은 반면에 타인에 대한 관심은 높은 유형
 - 이러한 경우 타인의 욕구는 충족되지만 자신의 욕구는 외면하게 됨

- 이 유형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노를 유발함

■ 경쟁유형

- 타인에 대한 관심은 낮은 반면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은 유형
- 이러한 경우 타인의 욕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게 됨
- 이 유형은 힘은 가지게 되지만 친밀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실패하게 됨

■ 협력유형

-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
- 이러한 경우 쌍방은 자신과 타인 모두 피해를 보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성취했다고 느끼게 됨. 그러나 현 실생활에서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음

■ 절충유형

-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만족시켜 줌으로써 쌍방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간의 친밀감과 응집력을 높여 줄 수 있음

3) 부부관계 유형과 결혼만족도

■ 활기찬 유형

- 결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임
- 이들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성관계, 재정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다수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화로운 유형

- 이들은 자녀양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지만 활기찬 유형에 비해 강점을 덜 가지고 있음

■ 전통적 유형

- 전반적으로 행복하지만 성격의 조화나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은 활기찬 유형이나 조화로운 유형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은 자녀양육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결혼이 불만족스러워도 이혼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임

■ 갈등적 유형

- 전반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거의 강점이 부족하며 관계의 성장을 필요로 함
- 이들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서 문제를 보이며 절반 정도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활기없는 유형

- 전반적인 영역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음
-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고 별거율이 다른 유형보다 많았으며 대다수가 이혼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은 갈등해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임

2. 부부의 의사소통

-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 가운데 정서적 기능이 부각되고, 관계적 차원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
- 교류적 영역의 핵심요소인 의사소통은 인간이 언어적,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의사소통은 일종의 상징적 상호교류과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결혼생활에서 상호 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요소이며,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갈등해결의 도구로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임

1)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의미

- 여러 학자들은 의사소통이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음
- 부부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 방식임
- 의사소통의 기능에 따라 지지적 의사소통 & 방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
 - 지지적 의사소통
 - 상대방에 대한 성실한 경청, 자신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자발적 문제해결 노력, 공감적 이해, 평등한 관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순기능적 의사소통
 - 방어적 의사소통
 - 일방적 의사전달, 상대방에 대한 통제, 자기책임의 회피, 우월감이나 무관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소통
 - 방어적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관계의 역기능을 초래함
 - 의사소통은 특히 부부 간에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 문제와 관련된 감정의 노출정도와 언어화의 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 (1) 차단형
 - 문제를 피하거나 숨김으로써 이를 언어화하지 않고 감정을 노출하는 의사소통 방식
 - (2) 억제형
 - 문제나 자신의 내면 상태를 분명하게 언어화하지 않지만 비언어적 단서를 통하여 감정상태를 노출시킴
 - (3) 분석형
 -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명백하게 언어화하며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지니지만 자신의 감정은 노출하지 않는 지적인 의사소통 방식
 - (4) 친숙형
 - 자신과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어화하며 감정적 노출을 많이 하는 유형
 - (5)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차단형과 억제형의 의사소통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반면, 분석형과 친숙형은 너무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음

2) 파괴적인 의사소통 방식

■ 확대

-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부정적 의사소통이 단순히 분노와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연장으로 발전하는 것

남편 : (빈정대는 투로) 당신 치약 뚜껑 닫아 놓을 줄 몰라?

아내 : (역시 빈정대는 투로) 당신은 한번도 뚜껑 닫는 걸 잊어버린 적이 없는 모양이네

남편 : 나는 항상 닫아 놓지

아내 : 그렇지, 내가 당신이 얼마나 강박적인 사람인지 잊어버렸네. 그래 맞아

남편 : 내가 왜 당신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아내: 마음대로 해. 아무도 붙잡지 않으니까

- 통제할 수 없는 확대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그들 결혼생활의 활력의 근원을 위협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점임
- 분노할수록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자 하는데, 이는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고, 이러한 과정에서 내뱉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한 속마음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친밀감에 상당한 손상을 줌

■ 평가절하

-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 성향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것

아내 : 당신 또 약속 잊어버렸네. 왜 그렇게 무책임해요? 당신 아버지처럼

남편 : 고맙군. 우리 아버지 처럼 나를 대단찮은 존재로 알고 있어서

아내 : 아버지하고 당신은 똑같아

남편 : 미안해. 내가 책임감의 전형인 당신과 결혼한 행운을 잊고 있어서

상호 간에 멸시하는 분위기가 담겨 있고 상대방의 성격 자체를 공격하고 있음

아내 : 오늘 평가받은 것 때문에 속상해 남편 :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아내 : 당신은 이해 못해. 나는 속상해

남편 : 그래. 그런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거야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음
남편은 자신의 이러한 반응을 아내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아내의 기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존중, 생각에 대한 존중이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정적 해석

-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내 : 이번 연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가요
 남편 :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
 아내 : 부모님이 나에겐 중요해요. 당신이 안 가도 나는 갈거야
 남편 : 나도 가고 싶지만 이번 달에는 지출이 많지 않소
 아내 :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싫은 거죠?

→ 남편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내의 부정적 해석으로 인해 의사소통 기회가 차단됨

- 부정적 해석은 관계가 보다 고통스러우면 더욱더 빈번해짐
- 부정적 해석의 문제는 이를 감지해 놓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해석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쉽사리 변화시키기가 어려움 또한 상대가 적개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면 부정적인 해석을 더욱 고수하게 됨

■ 철회나 회피

(1) 철회

- 논쟁 도중 나가버리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대화를 끝내기 위해 마음에도 없으면서 쉽사리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버리는 것

(2) 회피

- 아예 대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
- 회피하려는 사람은 아예 원하지 않는 대화가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며, 만일 대화가 시작되면 의도적으로 철회의 방법을 택함

3) 효율적 의사소통 방식

■ 경청하기

- 친밀감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의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음
- 옳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르다는 것은 자신의 견해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함
-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경청기술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임

- 일단 자신의 감정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더많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갈등의 소지도 감소하게 됨
- 또한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도 경청의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 인정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는 것임

■ 표현하기

- 경청하기만큼 중요한 의사소통의 또 다른 기술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임

(1) 나-전달법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표현은 어디까지 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
-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경청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비판단적 진술, 감정의 진술,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의 세 요소로 구성됨

행위	감정	영향
•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밤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다	•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된다	• 무슨 사고를 당해서 다쳤을 까봐

- 나-전달법에서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들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나-전달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됨
- 나-전달법이 모두 효과적인 것은 아님
-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화를 내면서 사용하는 나-전달법은 너-전달법과 동일함. 그러므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므로, 행동과 사람을 분리시켜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느낌만을 말해주어야 함

(2) 자기노출

- 상대방이 다른 대상을 통해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자신에 대한 정보나 감정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것
- 친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자기노출도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남

(3) 일치형의 의사소통

- 자신, 타인, 상황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을 중시하는가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

① 회유형 : 타인과 상황만을 중시하고 자신을 중시하지 않는 유형

- ✓ 이들은 타인의 필요나 욕구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자신이 희생한다는 느낌을 가지며,

상대방에게는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됨

- ② 비난형 : 회유형과는 반대로 자신과 상황만을 중시하고 타인을 중시하지 않는 유형
 - ✓ 이들은 실제로는 자신을 무가치하고 실패자로 생각하므로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됨
 - ✓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고, 타인은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함
- ③ 초이성형 : 자신과 타인은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시하는 유형
 - ✓ 이들은 감정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상황만을 중시하며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함
- ④ 산만형 : 자신과 타인, 상황을 모두 중시하지 않는 유형
 - ✓ 이들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찰력도 결여되어있음
- ⑤ 일치형 : 자신과 타인, 상황을 모두 중시하는 유형

부모의 이해 / 11주차 1차시

1. 모성과 부성

1) 모성

- 원시인류 때부터 엄마의 본능은 그렇게 자연 선택 되어진 것
- 연약한 인간의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키우려면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엄마가 맡음

1) 모성의 이유 1 : 뇌의 반응(뇌 영역의 활성화)

- 영국에서 실시한 실험: 엄마들의 본능을 뇌 영상 촬영으로 보여주는 실험
- 엄마 20명을 대상으로 3종류의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의 사진을 볼 때 보이는 뇌 영상을 촬영
- 자신의 아이들 사진, 잘 알고 지내는 아이들 사진, 성인인 친구들 사진을 보여줌
-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볼 때, 음식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반응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음
-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비판적 사고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뇌 활동은 줄고, 행복감이나 도취감을 일으키는 뇌 활동이 늘어남
- 이 뇌 활동의 모습은 로맨틱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 활동과 흡사함 즉,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 감성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아이를 끔찍이 사랑하도록 뇌에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임
- 소위 성인이 사랑에 빠지면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뇌는 아이를 키우는 20년 동안 그런 상태임

2) 모성의 이유 2 : 옥시토신 호르몬

(1) 옥시토신

- 엄마 몸에서 분만과 수유를 촉진하고 육아의 민감성을 높이는 호르몬
-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작용을 함

예) 스위스에서 실시한 실험 :

옥시토신을 코에 뿌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 일정한 금액을 준 후 투자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대로 투자를 해보는 실험을 했음.

결과 : 옥시토신을 뿌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두 배 높은 투자율을 보였음

(2) 옥시토신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임신 막 달부터 수유기간 동안, 엄마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유독 잘 믿어 아기와 관련된 다소 불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옥시토신 탓일 수도 있음

3) 모성의 이유 3 : 번식 속도(노력에 비례한 가치)

- 진화심리학자들은 엄마들의 강렬한 모성본능을 번식 속도로도 설명함 즉, 아빠는 상황만 되면 평생 수백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엄마는 최대한 20~30여 명밖에 되지 않음
-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 갖는 가치가 다른 것임
- 사람은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일일수록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갖게 되기까지 부여하는 노력의 시간이 다른 것임
- 아빠는 적은 시간만 투자해도 되는 반면 엄마는 10달을 투자해야 함.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어렵게 얻은 쪽인 엄마가 아빠에 비해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도 설명할 수 있음
- 엄마들 안에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아이에 대한 큰 사랑, 모성이 있음
-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세상에 보냈다는 서양 속담처럼 엄마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임

2) 부성

■ 아빠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무한 책임감을 느낌

예)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처음으로 아빠가 된 15%가 산후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함

예)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초보 아빠의 62%가 산후우울증의 초기 단계인 베이비 블루스를 경험한다고 밝혔음

- 이러한 결과는 산모들 중 70%가 경미한 산후우울증을 겪는다고 봤을 때, 초보 아빠들도 엄마만큼 산후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보여줌

■ 아빠들이 베이비 블루스를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때문

- 아빠들의 경제적 부담감은 죄의식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어 아기를 낳은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심각한 것은 엄마들의 산후우울증은 호르몬 탓이라 1~2개월이면 사라지지만 아빠의 베이비 블루스는 심리적인 탓이라 가만두면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임
- 이때 필요한 것이 '아내의 관심'임
- 남편의 부담감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와 편안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함

■ 아이가 태어나면 평소 다정했던 남편이 갑자기 좀 냉정하게 변하기도 함

- 아기가 없던 신혼 시절에는 아내가 걱정을 하면 "걱정마, 나만 믿어"라고 말하던 사람이 아기를 낳고 나서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해"라고 말함
- 출산 후 남편이 이렇게 바뀌면 아내들은 예전처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같아 불안하고 서운해함
- 그런데 이 또한 부성애의 일종
- 아내에게 보다 독립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야만 아내가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임

- 이 또한 원시인류 때의 아버지의 습성과 관련 있음
- 사냥을 갈때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가야 하는데, 다른 부족이나 맹수가 침입하면 아내가 아이를 지켜내야 했음
- 아빠들 안에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내가 이전보다 강인해지기를 바라는 것임

2. 엄마와 아빠의 불안

1) 엄마들이 남편들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짐

- 돈을 버느라 육아나 교육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일임하는 유형
- 첫번째 유형의 아빠처럼 평소에는 육아나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가도 훈육을 할 때만 전면에서 나서는 유형
 - 아빠 된 사람으로서 훈육만큼은 책임져야 한다는 묘한 사명감을 느낌
- 이상주의적인 유형
 - "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 아이는 내버려줘도 잘 크다. 때가 되면 다 잘 한다." 하는 식으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주의적인 유형

(1) 엄마, 아빠 누가 옳을까?

- ① 엄마들은 아이의 성장발달이나 교육에 있어 이왕이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어함
 - 아이에게 필요한 시기별 자극도 질 높은 것으로 찾아주고, 교육도 앞서서 빨리빨리 시키자고 생각함
- ② 아빠들의 생각은 이와는 좀 다름
 - 아이의 성장발달이나 교육에 있어 내버려둬도 잘하게 되어 있고, 아내가 안달복달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함
 - 아내의 행동이 욕심 내지는 극성으로 보임
- ③ 아빠와 엄마 누가 더 옳고 틀린 게 아니라 무승부

(2) 엄마와 아빠는 서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이나 행동은 같은 종류의 것

- 엄마가 내 아이에게 갖는 도를 넘는 걱정이나 아빠가 내 아이에게 보이는 지나친 무관심은 모두 '불안'이라는 감정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임
- 불안할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 끊임없이 걱정함
-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함
- 엄마의 불안이 전자의 모습이라면, 아빠의 불안은 후자의 모습임
- 아빠들 역시 불안함
- "괜찮아,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라고 말해도 그 말은 편안함,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상쇄해버리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불안에 직면하기 싫기 때문
- 그리고 이것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본능적인, 무의식적인 반응임
- 결국, 엄마의 지나친 걱정과 아빠의 무관심의 뿌리는 불안임

3) 엄마의 불안 → 걱정

■ 엄마들의 불안은 오래된 본능임

- 인류가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시대의 불안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음 불안은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면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임
- 원시인류 때부터 엄마의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탓인지 지금도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튀어나옴
- 엄마가 되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우면서 종의 생존이 필요한 본능으로 갖게 되는 아이에 대한 불안
- 자연은 많은 동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력한 인간의 아이가 성인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엄마에게 아이에 대한 불안이라는 걱정의 본능을 주었음
- 불안은 모성의 무한한 보살핌 본능으로 나타났음
- 엄마는 아기를 갖게 되는 준비기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보살핌 본능의 지배를 당함
- 엄마의 뇌 회로는 아기의 안전에 완전히 맞춰져 조금이라도 위험한 것은 차단하려고 둠

■ 정체성 혼란도 불안에 한 몫

-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정체성 통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임
-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순간, 대부분 강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음
- 나의 자존감의 핵심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됨으로써 그것이 힘들어진 것
-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르다 보니 계속 갈등하고 불안한 마음의 연속임
- 옛날 엄마들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덜 겪었음
 - 자신은 엄마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림하면서 아이를 먹이고 보살핌
-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들 밥을 굶기지 않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하면서 불안감이 없었음
- 요즘 엄마들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음
- 엄마처럼 내 인생을 아이 때문에 송두리째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엄마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다고 생각함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육아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뭘까? 엄마가 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수시로 둠
- 엄마의 무의식 안에는 묘하게 아이에게 100% 희생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존재함
 - 이것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정보들 즉, 한쪽에서는 "여자도 자아를 성취해야 함"
- 한쪽에서는 "여자도 자아를 성취해야 한다.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키워야 한다. 육아는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두 가지 측면 모두 맞는 말이지만, 갑자기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이론들을 통합하고 결론을 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벅찼다 볼 수 있음
- 젊은 엄마들은 미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자아도 찾아야 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할 것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임
-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여러 가지 정체성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아님
 - 한가지만 고를 수 있는 문제라면 혼란이 적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함
- 한가지를 고르기 보다 스스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한, 누구도 한 가지 정체성만 갖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
- 직장에 있을 때와 아내로 있을 때, 아이를 보살필 때의 나의 모습을 모두 편안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 자신의 정체성을 통합해서 받아들여야 함
- 정체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자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 ① 자신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수시로 물어봐야 하며, 끊임 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함
 -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든, 책을 읽든, 명상을 통해 성찰하든 현실과 본능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자아 기능을 강화시켜야 함
 - ② 자기 자신한테 조금은 너그러워져야 함
 -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하는 것
 - 회사일을 잘하던 사람이 아이가 생기면 이전만큼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함
 - 일에서 부족해진 자존감은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기쁨과 행복감으로 채워짐
 -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성장, 발전이라고 생각해야지 도태나 상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됨

■ 아빠들의 불안

- 원시사회에서 아빠의 역할은 사냥이었음
 - 사냥 시 화살이나 도끼를 던져야 하는 순간, 너무 오래 생각을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냥감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남자들은 딱 한 가지만 보고 순간적으로 결정함
 - 사냥과 싸움 본능은 아빠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거나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게 됨
 - 아빠들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함
 -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거나 알기 위해 물어보는 것을 자존심 상해함
 -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적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켜 싸움에서 지게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모르는 것을 묻은 것은 자신이 사냥꾼으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인식하는 것

- 자신이 모르는 분야의 문제가 나오면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하기보다 “그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빠에게 가장이라는 말을 붙였음
 - 가장은 집안의 우두머리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 따라서 우리나라 아빠들의 유전자에는 ‘내 집안은 곧 나에 대한 평가’라는 생각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음
 - 아빠들은 우리 가정,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문제는 나의 책임, 나의 흠이라고 생각함
 -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아이나 그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아니”로 일관함
 - 아이 문제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입장에서 생각함. 아빠들은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함
 - 그것은 자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기는 것임. 때문에 아빠들은 아이의 문제에 대해 방어적임

3. 자녀의 개별화

1) 자녀의 개별화

- 우리 사회는 유독 혈연, 가족 중심
- 단일민족, 한 핏줄이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 우리는 남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함
-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피와 살을 받고 태어난 아이한테는 오죽하랴.” 우리 부모들은 아이와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존중해야 할 다른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은 자기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믿음
- 아이가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재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함
- 열등감이 많은 부모일수록 아이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을 ‘반역’이라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함
- 아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으며, 내가 낳았다는 것만으로 나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좋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아이나 부모나 모두 발전할 수 있음
- 아이의 개별화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됨
-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자세를 낮춰야 함
-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부모가 낮은 모습이 되어야 함
- 부모가 강하게 나올수록 아이는 권위적인 힘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이런 적대감은 무조건 자기를 누르고, 힘으로 자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적대감을

갖게 함

- 권위 = 적대감이 됨
-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를 무시하고 협박하지 말고, 부모의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야 함

부모자녀관계의 기초 / 11주차 2차시

1. 부모의 역할

1) 개요

- 부모 : 아동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 2) 전통가족에서의 부모역할
 - 아버지의 역할
 - 도구적 역할 : 가정의 대표자, 생계 유지자
 - 통제적 역할 : 자녀의 행동을 통제
 - 어머니의 역할
 - - 표현적 역할 : 정서적 욕구의 충족
 - - 양육적 역할 : 말이나 행동, 신체접촉을 통해 온화함을 제공

2) 어머니의 역할

- 부모역할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아동발달에서 어머니 역할의 절대성을 주장하였음
 - 예) Freud : 어머니는 구강 부위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이므로 아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며, 이후의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예) Bowlby : 고아원이나 보호 시설의 아이들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결손이 아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 어머니 역할의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생존이나 신체발달과 관련된 것
- 어머니는 수유를 통해 무기력하게 태어난 아기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며, 적어도 생후 1년까지 이러한 영양공급은 생존에 필수적임
- 어머니는 단순히 영양공급뿐 아니라 신체접촉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예) 어머니와의 신체접촉이 결여된 아동: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체중미달 등 여러 가지 신체발달상의 문제를 보이게 됨
- 어머니는 정서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은 태내에서부터 시작됨
- 임신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정서상태는 태아의 정서적 안정감과 직결되어 있음
- 어머니는 태내에서부터 태아에게 애착을 형성할 뿐 아니라 출산 직후에도 곧바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영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안전기지의 역할을 함

3) 아버지의 역할

-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대비시켜 이차적인 역할이라고 함
-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에 비해 미미하며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과거에는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은 무시되어 왔으나 이제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음

20세기에서의 아버지 역할(Pleck, 1987)

-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아버지
- 성역할 모델로서의 아버지
-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 사회변화로 인해 아버지는 더이상 가정에 물질적 도움을 주는 부양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며, 어머니 못지않게 자녀의 성역할발달,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발달에서 어머니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여아보다 남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침
-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 않게 사회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수유를 하고 시중을 드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는 놀이를 통해 타인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습득케 함
- 전형적으로 영아와 아버지의 관계는 애착욕구보다는 사교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화의 대상이나 놀이친구로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족 이외의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를 가르쳐 줌
- 아버지는 자녀의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따라 상이함
- 아버지의 역할은 여아보다 남아의 인지능력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5세 이전의 아버지의 부재는 남아의 지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학보다는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여성적 인지특성을 보임

4) 사회변화와 부모역할

- 최근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부모역할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음
-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성인이 제한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자녀양육이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음
-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아버지도 자녀양육자의 역할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
- 특히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한부모가정에서 이러한 역할에 재빨리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 아동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됨
- 이제는 아버지는 거칠고, 엄격하고 어머니는 부드럽고 양육적인 전통적 역할구분이 변화하여 점차 양성적인 부모역할로 바뀌고 있음

심리적 양성성

-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Bem은 양성성으로의 사회화가 전통적인 성역할 보다 훨씬 더 기능적이라고 주장함
- 심리적 양성성 : 하나의 유기체 내에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
-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은 한 사람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개념을 의미함
- 양성적인 사람은 성유형화된 사람보다 자아존중감, 자아실현, 성취동기, 결혼만족도가 높고, 도덕성발달과 자아발달도 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남
- 양성적인 사람은 다차원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높다는 것
- 그러나 개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양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이라고 주장되면서, 양성성이 곧 적응성이라는 가설이 부정되기도 하였음
- 성역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양성성이 가장 융통성 있는 성역할 유형이라고 보고한 반면, 남성성이 보다 효율적인 성역할 유형이라고 하는 연구 또한 상당수 있어 현재로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움
- 이 분야에 관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뚜렷한 역할구분보다는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사회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예) 슈퍼 대디, 프렌디, 대미 등

- * 슈퍼 대디(Super Daddy) : 집안 일은 물론 아이 교육에도 적극적인 요즘의 젊은 아버지 → 권위주의적 가장(가장)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쓴다
- * 프렌디 : 프렌드(Friend)와 대디(Daddy)를 합친 신조어
 - 친구 같은 아빠라는 뜻으로 육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아빠를 지칭
 - 사회 복지의 원조인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주5일제 시행과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프렌디가 늘어나기 시작함
 - 특히 아이의 사회성 형성이나 성 역할 인지에 엄마의 양육효과만큼이나 아빠의 양육도 교육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면서 빠른 속도로 유행함
 - 비슷한 용어로 '플대디(Play+Daddy, 함께 노는 아빠)'가 있음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렌디 [Friendl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 대미(Dammy)
 - 엄마 같은 아빠
 - daddy+mommy의 합성어

- 연구결과에서도 아버지의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온정성과 양육성을 보일 때 아동의 창의성, 독립성, 관대함과 민감성의 발달은 촉진된다고 함
-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빠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일수록 긍정적이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빠와의 스킨십은 정서발달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며 아빠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일수록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아빠의 양육 참여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는 1960년대부터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들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기 시작했음
- 이러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됐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마이클 램 교수는 아빠를 '아동 발달에 잊혀진 공헌자'라 불렀으며 심리학자 로스파크는 아이의 심리 발달에 미치는 아빠 특유의 영향을 '아빠 효과'라 명했음

2. 부모의 양육태도

- 어떠한 양육방식이 자녀의 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가족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는 여러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음

1) 양육태도의 세 가지 유형

- 권위있는 양육태도
 -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한계를 설정할 뿐 아니라 반응성도 높음
 - 이들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계를 설정하지만 자녀의 의사도 존중함
 -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의 성격특성은 자신감이나 자제력, 탐구심, 책임감을 보이게 됨
-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절대적 기준이나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려 노력하며, 질서나 고통을 고수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줌
 - 언어적 의사소통을 장려하지 않으며, 기준에 위배되는 행동은 엄하게 한계를 설정하거나 벌을 줌
 -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불행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어떤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이 어렵고 의존적임
- 허용적 양육태도
 -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응성 수준은 높지만 한계 설정이 거의 없음
 - 자녀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며, 가끔은 부모를 화나게 하는 행동까지도 허용함
 - 이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미성숙하고 자제력이나 탐구심이 결여된 성격특성을 보이게 됨

2) 우리나라 청소년 상담원(1996)에서 분류한 부모의 양육태도

- 자애로움과 엄격함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의해 분류하였음
- 자애로움 : 자녀를 신뢰하고 따뜻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 엄격함 :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해진 바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
 -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부모
 - 자녀는 자신감이 있고 성취동기가 높으며 사리분별력이 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엄격하기만 한 부모
 - 자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예절이 바르나 지나치게 복종적이고 순종적이며 항상 걱정이 많고 불안해함
 -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기비하가 많으며 우울하여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함
 - 자애롭기만 한 부모
 - 자녀는 인정이 많고 따뜻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쉽게 좌절하며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행동특성을 보임
 - 엄격하지도 자애롭지도 못한 부모
 - 자녀는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나 타인에 대해 불신감이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좌절감을 많이 느낌

4) 반응성과 한계설정의 원리

- 자녀의 행동을 전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시켜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부모의 양육태도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시시각각 변하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이나 수용의 정도를 말해주는 애정-거부의 차원과 통제의 정보를 말해주는 통제-허용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애정-거부의 차원에서는 거부보다는 애정적인 태도가 보다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로 인정됨
- 통제-허용의 차원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통제의 개념상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음
- 통제의 개념에는 방임이나 지나친 허용과 대별되는 긍정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통제와 심리적 자율성과 대립되는 부정적 차원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포함됨
- 후자의 경우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자의 의미에 속하는 통제-허용차원에서의 통제는 무조건적인 허용과 대립되는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제는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성공적인 자녀양육의 기본원리는 반응성의 원리와 한계설정의 원리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반응성의 원리
 - 자녀에 대한 지지, 애정, 수용과 관련된 것 -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는 양육의 원리
 - 이는 영유아기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도 적용됨
 - 반응적인 부모를 가진 아동들은 인지, 도덕성, 사회성, 자존감에서 또래보다 앞서는 경향이 있음
 - 반면 반응성의 결핍은 다른 아동에 대한 공격, 비행, 학습능력 결여, 정서문제 등 발달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
- 한계설정의 원리
 -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자녀에게 온정적이기만 해서는 아동이 잘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으며 부모가 적절한 통제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
 - 이는 온정적이면서 동시에 엄한, 즉 사랑이라는 정감과 두려움이라는 정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격발달의 실체이며, 이러한 사랑과 두려움은 엄부자모로부터의 가정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된다고 보았던 우리사회의 양육태도와도 일치하는 것

3. 자녀의 감정 다루기

1) 부모의 감정 다루기

■ 정서노동

■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인내가 아니라 이해하기

■ 인내심 :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 축소 전환형

-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
- 자녀의 부정적 감정표현이 불편해서 자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

- 억압형

-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더 엄하게 비판하고 질책함
- 자녀의 감정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둠
- 협박하거나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함

- 방임형

-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도 않고 모든 감정을 허용함
- 그러나 자녀의 감정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한계를 제시하지 못함

- 감정코치형

- 자녀의 감정을 모두 받아주되,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둠

2) 감정 코칭의 5단계

- 1단계 : 자녀의 감정을 인식함
 - 자녀가 특정 감정을 갖는 데에는 자녀 나름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
 - 행동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놓치지 말아야 함
- 2단계 : 감정적 순간을 친밀감 조성의 기회로 삼음
 -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은 부모가 자녀와 공감대 및 친밀감을 형성하며 감정을 적절히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함
 - 자녀 스스로 자기감정을 들여다보고 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어야 함
 - 이 단계가 감정 코칭 단계 중 가장 중요함
 - '왜?'라는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보다는 '무엇', '어떻게'를 사용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음
- 4단계 : 자녀가 자기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줌
 -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것
- 5단계 :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 정해 주기
 - 한계 정하기 :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한계 정하기
 - 목표 확인하기 : 직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기
 - 해결책 모색하기 : 자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 제한된 해결책을 함께 검토하기 :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기
 - 자녀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돕기 : 자녀를 믿어주기

4.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언어환경 조성

1)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언어환경

- 자녀가 스스로를 가치 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며, 자아존중감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결국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방해함
-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하기 쉬운 부정적인 언어 유형 및 행동
 - 명령하기
 - 비난과 잔소리
 - 경고나 위협

2)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언어환경

-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의 자기인식, 사회적 유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에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효율적인 경청하기 : 반영적 경청

cf) 수동적 경청

- 자녀가 말하는 동안 부모는 말하지 않음
- 최소한의 반응을 보임
- 자녀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주거나 자녀의 말을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을 함
- 자녀의 관점에서 문제를 듣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함

ex) 엄마 미워요. 주사 안 맞을래요.

- 나-전달법의 사용

- 자녀의 문제행동을 지적하면서 자녀에게 변하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부모를 주어로 하여 부모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표현법
-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도 부모가 그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된 책임이 자녀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자녀의 수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비난 없는 서술
- 그 행동이 부모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서술
- 자녀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나 느낌을 서술

예) 마트에서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는 자녀에게

★ 너 여기 사람도 많은데 엄마 손도 안 잡고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 엄마는 진우가 사람들도 많은데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너를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돼.

• 고려할 점

☞ 부모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임

cf)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 반영적 경청

☞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잘못된 행동을 아이와 분리해서 생각함

구분	나-전달법	너-전달법
표현방식	• 상황 + 결과 + 느낌	• 지시, 평가, 비교기, 비난, 경고의 표현
책임소재	• 느낌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	• 느낌의 책임을 유아에게 돌림
전달해석	•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됨	•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미워함 • 비난, 비판, 질책으로 받아들임
효과	• 느낌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 • 청자에 대해 부정적인	• 죄의식을 갖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함 • 배려를 받지 못하고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나 부적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를 저해하지 않음 • 청자로 하여금 자성적인 태도와 변화하려는 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높음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항적, 공격성, 방어를 야기하여 자성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어렵고 행동 변화를 거부하도록 함
관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적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만남

- 칭찬의 효과

- 칭찬의 긍정적 효과
 - ☞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
 - ☞ 성취동기를 높임
 - ☞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줌
- 칭찬의 부정적 효과
 - ☞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과 결과만 중시하는 태도를 갖게 함
 - ☞ 보상에 중독됨
- 비효과적인 칭찬이 아닌 효과적인 칭찬(격려, 인정)
 - ☞ 과장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칭찬하기
 - ☞ 긍정적 환상 : 실제적 자신보다 더 자기를 크게 지각하는 것
 - ☞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칭찬하기
 - ☞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
 - ☞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했구나.
 - ☞ 그림을 예쁘게 그렸구나.
 - ☞ 잘했어, 괜찮네.
 - ☞ 책 세 권을 읽었구나.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나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 ☞ 책 세 권을 읽었네. 엄마가 칭찬 스티커 한 장 줄께.
 - ☞ 공을 열심히 쫓아가 잘 잡았구나.
 - ☞ 운 좋게 잘 잡았구나.

발달단계별 부모 역할 / 12주차 1차시

1. 태내기의 부모 역할

자녀의 출생

- 결혼생활의 많은 측면에 변화를 초래
 - 성인 남녀는 부부관계 이외에 부모자녀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부부 상호 간의 재적응과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져야 함
 - 배우자로서의 부부관계의 재정립과 가사노동자나 양육자로서의 과중한 역할부담에 대한 적응이 필요

1) 태내기

- 인간의 생명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 결합으로 시작 → 수정 또는 임신
- 태내에서의 40주 동안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하나의 세포는 빠른 속도로 하나의 생명체로 성장

2) 태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양

- 과거 : "작게 나아서 크게 키워라" vs 현재 : 충분한 영양섭취 권장
- 예) 스위스의 크레틴병으로 출생한 아이들 사례 :
옥소의 부족으로 갑상선 기능장애가 나타났음
- 충분한 철분, 칼슘, 단백질, 비타민 공급
- 임부의 하루 섭취량 : 평상시에 비하여 15~30%(300~500cal) 증가가 바람직
- 태내기는 뇌세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특히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수적

■ 약물복용

- 임부의 약물복용은 태아의 인지, 운동, 언어, 사회성, 정서발달의 여러 영역에 걸쳐 심각한 결함 초래
- 예) 아스피린, 탈리도마이드(신경안정제), 피임약, 헤로인, 코카인, 카페인 등

■ 질병

- 풍진 : 태내결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 특히 임신 3개월 이전에 모체가 풍진에 감염된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등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음
- 성병 : 임부가 매독이나 임질 등의 성병에 감염된 경우, 감염된 태아는 30%가 출산 이전에 사망하거나 기형아 출산
- AIDS : 에이즈는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태반이나 출산과정에서의 접촉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됨
- B형 감염,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 연령 및 출산 횟수

- 임신 최적의 연령: 23~28세. 35세부터 노산

- 노산 : 자연유산, 임신중독증, 난산, 미숙아 출산, 다운증후군
- 태내환경 : 첫 아이보다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가 더 유리
- but 출산간격이 짧거나 출산횟수가 많아질수록 이점이 상쇄됨

■ 음주

- 알코올은 빠른 속도로 태반에 침투하여 장시간 영향을 미침
- 태아 알코올 증후군 : 정신지체나 주의집중력의 결핍, 과잉행동, 출생 전후의 성장지체, 비정상적인 두개골 모양, 눈이나 심장, 사지, 관절의 결함을 갖고 태어남

■ 흡연

- 흡연은 저 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 직접적인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흡연도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흡연을 하는 어머니의 심리상태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정서상태

- 분노, 불안, 공포와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부신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며, 이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다른 신체기관으로 전환시키게 되며, 이로 인한 태반 내 혈액량의 감소는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공급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
- 태내기에 어머니의 정서적 혼란이 수 주 동안 계속된 경우, 태아의 움직임은 임신기간 내내 높게 나타났으며, 출생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요인

- 방사능 : 방사능의 영향은 방사능의 양, 태아의 상태 및 노출시기에 따라 상이하나, 신체 기형이나 정신지체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 뜨거운 목욕이나 온천 :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임신한 여성의 자궁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태아의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

■ 태내환경과 아버지의 영향

- 아버지의 흡연 : 정자의 수를 감소시켜 생산능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
- 심한 음주 :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감소시켜 불임 유발
- 특정 화학약품에 노출된 직업: 사산,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았음
- 아버지의 연령이 20세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 : 다운 증후군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
- 자폐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음
 - ➔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만의 책임이 아님
 - ➔ 남성도 동시에 책임이 있음

2. 영아기의 부모 역할

1) 영아기의 부모역할

- 영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이후 발달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음
- 프로이드는 출생 초기 영아는 만족의 근원이 구강이며 이러한 구강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였음
-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는 양극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 출생 초기에 영아는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에게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함

■ 영아기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

- 신체접촉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함
- 감각운동기의 특성에 비추어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등 자녀의 발달상황에 적절한 자극을 충분하게 제공해 줌
- 자녀의 상태를 고려하여 식사, 취침, 놀이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정해서 실행함
- 언어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활동(목욕, 옷 입기, 수유 등)을 활용함
- 하루일과에서 상호작용놀이와 환경탐색활동의 균형을 맞추어 줌

- 또한 영아가 걸음마기에 접어들면 활동반경에 넓어지므로 부모는 보호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보호자로서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자율성을 시험하고 학습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함

- 걸음마기 영아는 발달하는 근육을 사용하여 혼자 힘으로 걷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됨

■ 영아기 걸음마기의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

- 자율성이 발달되는 시기인 만큼 자녀가 식사나 옷 입기 등을 혼자 힘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심을 길러줌
- 간단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자녀가 준비가 되었다고 여겨질 때 배변훈련을 시키도록 하며, 실수를 하더라도 혼내지 말고 잘했을 때 격려해줌
- 호기심을 억누르기보다는 격려함

3. 유아기의 부모 역할

1) 유아기의 부모역할

- 유아기는 애정 어린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
-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걸음마기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함
- 유아기는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변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인지발달을 위한 충분한 지적 자극이나 학습기회 및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 프로이드는 남근기에 유아는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였음
- 에릭슨은 유아기를 주도성 대 죄책감이라는 양극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 유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

- 자녀의 주도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계를 설정해 줌
- 주도성의 발달을 위해 스스로 시도하는 행동과 환경을 탐색하는 행동을 격려해줌
- 권위 있는 양육방법을 사용함
- 처벌보다는 자연적, 논리적 결과의 방법을 사용함
-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녀의 끊임없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줌
-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촉진시킴
- 또래와 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

4. 아동기의 부모 역할

1) 아동기의 부모역할

- 아동기는 성격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성인기의 성격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발달하게 됨
- 또한 여러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어 사회, 정서, 인지능력의 확장과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임
- 프로이드는 아동기를 지금까지의 격렬한 동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잠복기로 명명하였음
- 잠복기에는 지금까지 외부로 표출되었던 심리적 에너지를 사회적인 기술과 문화적인 태도를 습득하고 급격한 인지발달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고 하였음
- 에릭슨은 아동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양극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 이 시기는 신체적, 성적 측면에서 비교적 잠재적인 시기이나 인지적인 면에서는 급성장의 시기임
- 아동기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

- 근면성의 발달을 위해 가정 안팎에서 자녀에게 풍부한 학습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줌
- 성취를 위한 압력보다는 자녀의 노력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줌
- 부모의 관심이나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여가활동에 대한 자녀의 관심을 지지해줌
- 아동기는 많은 어른과 또래집단의 평가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아동의 자아개념이 쉽게 손상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동시에 또래집단의 규준이나 수용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함

5. 청년기의 부모 역할

1) 청년기의 부모역할

-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역할에서 다소의 혼란을 경험함
-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이러한 부모역할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나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세대차의 문제는 부모역할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됨
- 프로이드는 생식기에 해당되는 청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잠복기에서 내면에 잠재해 있던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로 표출되어 신체에 대한 관심이나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으로 표출된다고 하였음
- 에릭슨은 이 시기의 발달을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라는 양극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 성인도 아동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나가는 작업은 청년기를 더욱 혼란스러운 시기로 인식하게 하며 부모역할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청소년기 부모역할에 대한 지침

- 온정, 수용, 이해의 분위기를 유지함
- 자녀와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함
- 자녀가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줌
- 자녀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적절한 감독과 관심을 유지함
-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다양한 이념적 탐색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음을 인식함
- 성에 대한 지식, 조기 성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줌
- 또래집단의 범죄행동과 약물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고 신호에 민감해야 함

중·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12주차 2차시

1. 부부관계에서 원가족의 의미

- 부모자녀관계는 일생동안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움과 의존이라는 역동적인 관계를 갖게 됨
- 성인자녀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가운데 하나는 고부 관계나 장모 사위 관계 등 상대방의 근원가 족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은 외형상으로는 핵가족이지만 이념상으로는 여전히 부계 직계가족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원가족과의 관계 형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
- 어떤 부부들은 원가족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고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이 형성한 생식가족의 응집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어떤 부부들은 원가족과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어서 원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의 고부갈등이나 장모 사위 갈등도 그 근저에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아들,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딸의 존재가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2. 중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근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관계는 원천적인 부정적 관계로 인식되어 온 고부 관계와 최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장모 사위 관계임

1) 고부 관계

- 고부 관계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의 필연적 산물임
-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지위는 타고난 지위인데 반해 여성의 지위는 성취 지위이며, 이러한 여성의 성취 지위를 굳건히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남아의 출산임
- 아들의 출산이 어머니에게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관계에 비해 모자 관계는 밀착된 특성을 보이며, 아들이 장성하여 혼인을 하게 되면 며느리의 존재는 이처럼 밀착된 모자 관계의 아성에 대한 침입자이며, 그 결과가 고부갈등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음
- 전통사회에서는 가부장권의 영향으로 이러한 고부갈등은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보다 평등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고부갈등은 공공연하게 표면화되어 가족 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장모 사위 관계

- 자신의 억울한 경험에 비추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고 노력하나 대신에 딸에게 집착함으로써 아쉬움을 달래려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음
-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이나 딸에게 집착하는 것이나 자녀를 출생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자녀의 생식가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 또한 분리되지 않은 모녀관계는 여성 취업률 증가와 맞물려 보다 굳건한 관계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는 장모와 사위가 늘고 있음
-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시가와의 갈등만을 포함시켰던 상담분류항목에 1999년부터 장모 사위 갈등을 추가했음
- 장모 사위 갈등은 장모의 심한 간섭, 의존적인 아내, 가부장적인 남편의 의식 모두가 총체적 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함. 아내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모와 밀착되어 있어 사위를 소외시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됨
- 앞으로 맞벌이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교육연한의 연장이나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자녀세대가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주의와 맞물려 장모 사위 갈등은 보다 심각한 가족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
- 결국 고부갈등이나 장모 사위 갈등에서 중재자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됨

3) 자녀세대의 과업

- 가족관계에서 적응을 위해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발달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중년기의 이해
 - 신체변화
 - ☞ 모든 신체의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노화하고 신체적 힘과 원기가 감퇴
 - ☞ 생활공간 및 활동범위의 제약으로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자연히 체중이 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며,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
 - ☞ 쉽게 피곤해지고 이러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이전보다 많은 시간이 걸림
 - ➔ 탄력과 활력이 줄고 점점 쇠진되다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 ☞ 생식능력의 감퇴

1. 여성

- 재생산능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갱년기 현상으로 인해 쉽게 불안을 경험
- 폐경기를 겪으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 감소로 번열증, 요실금, 골다공증 등이 나타남

2. 남성

-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현저한 감소
- 남성은 중년이 될 때까지 인생을 최고로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긴박감에 쌓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큼
- 남성도 여성처럼 과민, 안절부절못함, 피로, 불안, 잦은 기분변동 등이 나타남

- 인지적 변화
 - ☞ 기억력의 감퇴
 - ☞ 보통 오래된 옛날 일에 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만 최근 일에 관해서는 잘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많아짐
 - ☞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능력도 점점 감소
 - ☞ 융통성이 없어지고 완고해져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 ☞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문제는 잘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휘력, 장기기억력 등에서의 수행력은 우수함
- 심리적 변화
 - ☞ 중년기 심리적 변화의 두 가지 주요 영역은 가정과 직장
 - ☞ 특히 중년기 후반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는 은퇴와 자녀의 독립임
 - ➔ 자녀의 출가로 인해 빈둥지 시기를 맞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이 감소하고 상실되게 됨
 - ☞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신체적 변화에 기인된 것이기도 함
 - 예) 남성 및 여성 호르몬의 감소(신체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
- 빈둥지 증후군

- 중년의 주부가 자기 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심리적 현상
- 공소증후군, 빈둥지 신드롬이라고도 함
- 남편은 바깥일에 골몰하느라 날로 높아져가는 주부의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대화마저 무관심하고 자식들 또한 커갈수록 진학·취직·연애·결혼 등 각자 독립의 길을 밟아가게 되면서 세대 차이를 이유로 상대해 주지 않아 삶의 보람을 주는 애정의 보금자리라 여겼던 가정이 빈 둥지만 남고 주부들 자신은 빈껍데기 신세가 되었다는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정신적 질환
- 빈둥지증후군 외에도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심리상태인 부엌공포증,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노인기피증 등이 있음
- 특히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주부들 사이에서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이 적지 않음
- 심리적 상실감과 시간적 공허감은 주부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예) 자신에 대한 연민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중년 여성들의 건강염려증이나 성형수술
- 빈둥지증후군을 해소하려는 미봉책으로 늦둥이를 가지려 한다거나 심리적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음
- 특히 늦둥이 출산은 1990년대 중반 일종의 신드롬으로까지 발전했음

[네이버 지식백과] 빈둥지증후군 [empty nest syndrome]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797&cid=40942&categoryId=31531>

➔ 빈둥지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적인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아내야 함

-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이 중요하며 다양한 삶에 대한 애정과 활력소들을 찾아내어 사회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4) 부모세대의 과업

- 갱년기의 신체적 변화, 은퇴와 더불어 자식들이 떠난 빈둥지 시기의 행, 불행 여부는 궁극적으로 부모세대가 이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는가에 좌우됨

- 부모자녀관계의 재정립 및 조부모 역할

- 부모세대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의 독립된 부부관계를 인정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함
-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와 건강한 결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 손자녀의 출산으로 조부모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임
 - ☞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애정적인 관계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
 - ☞ 조부모와 손자녀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양육방법에서 자녀세대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함
 - ☞ 조부모의 여가나 노후생활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

- 부부관계의 재정립

- 부모세대는 지금까지 부모 자녀 관계에 몰두해 왔던 에너지를 전환해서 부부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임
- 자녀문제가 직업상의 문제, 건강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중년기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중년기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
- 이 같은 상반된 결과는 자녀 결혼 이후 빈둥지 시기에 자녀양육으로 소원해 졌던 부부관계를 여가나 취미 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재정립해 나가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 시기에는 부부 간의 성역할도 변하게 됨
- 중년기가 되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비슷해지기 시작하여 남성은 보다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여성은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해짐

- 은퇴에 대한 적응

- 은퇴의 의미
 - ☞ 무거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러워진다는 점 → 삶의 새로운 시작
 - ☞ 직업생활을 함으로써 향유했던 모든 심리사회적 기능들의 상실 → 위기

- 은퇴의 영향

- 1) 경제적 문제
 - 노인의 경제적 문제의 원인
 - (1) 정년으로 인한 수입 감소
 - (2)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 (3) 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원
 - (4) 재취업의 어려움
 - 노년기 빈곤의 특징
 - (1) 장기화, 만성화 현상
 - (2) 대량화 현상
 - (3) 가속화 현상
- 2) 심리적 문제
 - 남성들은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사회적 유대관계의 감소, 역할상실 등을 경험하게 됨
- 3) 건강문제 : by 불규칙한 생활패턴

- 특히 조기은퇴는 상대적으로 퇴직자의 노화를 재촉하고 중년기의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됨
 - 은퇴시기에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 즉, 은퇴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인식하고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전환해야 함

3.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와의 관계

- 노년기 부모와의 관계는 중년기와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됨
- 중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자신의 생식가족과 출생가족이 얼마나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면, 노년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1) 노부모 부양

- 노부모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지만 노부모의 부양에 따른 보상은 있음
- 노부모와의 관계가 증진되고, 노부모로부터 육아나 가사의 도움을 받거나 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됨
-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도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최근 노인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점차 독립적인 노년기를 희망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존적 노년기를 경험하게 되므로 모든 세대가 의존적 노년기의 부양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2) 자녀세대의 과업

- 노년기의 이해

• 신체적 변화

- ☞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
- ☞ 신장과 체중이 감소하고, 주름과 노화반점이 많아지며, 행동이 둔화되는등 외모와 움직임의 변화가 일어남
- ☞ 시력, 청력, 후각, 미각, 촉각 및 통각이 감퇴되는 시감각기관의 변화가 일어남
- ☞ 혈압이 상승하고, 허파기능이 저하되는 순환계와 호흡기에 변화가 일어남
- ☞ 면역체계의 효능성이 감소하고, 대뇌기능이 전반적으로 둔화됨
- ☞ 잠들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잘 자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어려운 수면상의 변화도 발생함

• 인지적 변화

- ☞ 지능의 감퇴는 60대가 되면 가속화됨
- ☞ 결정지능이 유동성 지능보다 연령에 따른 감퇴가 덜함
- ☞ 결정지능 : 교육과 경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능
- ☞ 유동성 지능 : 중추신경계의 기능에 더 많이 의존하는 지능
- ☞ 언어성 지능은 연령이 증가해도 큰 변화없이 유지되지만, 동작성 지능은 감퇴함
- ☞ 동작성 지능 : 시, 공간적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지능
- ☞ 노인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할 때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
- ☞ 일부 인지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향상되기도 하고, 저하된 기능을 보상하려는 능력도 존재함

• 심리사회적 변화

- ☞ 우울증 경향의 증가
- ☞ 노년기에는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증가함
- ☞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 :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 그러나 이러한 우울증 경향은 개인의 적응능력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며 전혀 보이지 않는 노인도 있음

•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 ☞ 대체로 노년기가 되면 사회적 활동이 점차 감소하고 사물의 판단과 활동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부로 돌리는 행동양식을 갖게 됨
- ☞ 노인은 외부 자극보다는 자신의 사고, 감정 등 내부 자극을 향해 더 많이 반응하며, 생활상에 감정을 덜 투입하고 자기주장을 관철함에 있어 지구력이 약하며 새로운 것에도 전하기를 꺼림

- 성역할에 대한 지각의 변화
 - ☞ 노인은 이전과는 달리 일생동안 자신에게 억제되었던 성역할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남자는 수동적이고 위축되며 양육동기가 더 증가하고, 여자는 공격성, 자기중심성, 권위적 동기가 더 증가함
- 경직성의 증가
 - ☞ 어떤 태도, 의견, 문제해결 장면에서 그 해결 방법이나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마찬가지로의 방법을 고집하고 이를 여전히 계속하려고 함
 - ☞ 노인은 경직성의 증가로 인해 학습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하기도 함
- 조심성의 증가
 - ☞ 노인이 될수록 행동이 더욱 조심스러워짐
-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 후세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커짐
 - ☞ 정상적인 노화과정을 겪는 노인들은 사후에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는 욕망이 강한데, 이를 유산을 남기려는 갈망이라고 함
 - ☞ 자손을 낳고 재산과 골동품, 독특한 기술, 토지와 보석 등을 후손과 친지에게 물려주고자 하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노인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의존성의 증가
 - ☞ 노년기를 제2의 유년기라고 할 만큼 노인들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유대가 강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며, 남에게 의존적이게 됨
- 경제적, 정서적 지원
 -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인데, 수입이 줄어들고 이를 회복할 기회가 거의 드물기 때문
 - 노년기의 4고(苦)를 가난, 질병, 고독, 역할상실이라고 함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이러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지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잦은 방문이나 정서적 지원임

3) 부모세대의 과업

■ 자아통합감

- 에릭슨
 - 노년기에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음
 - 노년기를 쇠퇴의 시기로 간과하지 않고, 지나온 생애가 과연 의미 있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망감을 겪으면서 내적인 성찰에 이르는 통찰의 시기로 보았음
- 노년기의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인생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자아통합의 달성이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음

■ 죽음 및 질병

- 죽음

-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

1. 죽음의 정의

- 죽음 :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

1) 생물학적 정의

- 신체기능의 정지

예) 심장 박동이 멈추거나 뇌의 활동이 멈출 때

2) 사회적 정의

- 죽음의 사회적 측면은 장례식과 애도의식 및 권리와 재산의 법적 재분배에 관한 것

3) 심리적 정의

- 죽음의 심리적 측면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

2.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

1) 부정

-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함

2) 분노

- 자신의 죽음을 더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분노하게 됨
- 대체로 격분, 분노, 질투, 원한의 감정을 경험함

3) 흥정

-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를 바램

4) 우울

- 말이 없어지고 혼자서 울며 슬퍼하는 시간을 갖음

5) 인정

-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인생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

- 우울증

- 노년기 우울증은 노년기 정신장애 중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서 치료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실상 노년기 우울증은 발현 양상의 복합성, 주변의 관심 저하, 본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견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노년기에 겪게 되는 직업과 역할의 상실, 빈곤, 외로움, 사별 등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치매

- 기억력과 언어, 실행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고 나아가 정서변화 및 행동문제 그리고 인격변화 등을 초래하는 질환
- 환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질병임

-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로 이루어져 있듯이, 어리석은 바보나 멍청이가 되는 질병을 의미함
- 치매를 뜻하는 영어인 Dementia 역시 De-mentia의 합성어로 바보가 되는 병이란 뜻을 지니고 있음
- 치매는 과거에 노망, 망녕이라는 용어로 불렸던 노년기 정신장애이다
- 치매의 유병률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함
예) 75세 이상에서 현저하게 증가, 85세 이상에서는 20%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보임
- 치매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 치매는 본래 정신지체가 아닌 사람이 점차적으로 지적 기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일상생활의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정신장애임
- 치매의 예방

- 치매환자들이 나타내는 인지적 손상의 속도는 환경적 자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즉, 환경자극이 차단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는 인지적 손상이 가속화되는 반면, 적절한 지적 자극을 통해 인지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지적 손상이 지연되거나 완화된다는 연구보고가 많음
- 체계적인 지적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인지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
-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보를 잊지 않도록 반복하여 암기하기, 간단한 지적 과제나 게임하기,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기,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 외우기, 날짜 확인하기 등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됨
- 신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 활동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노년기의 이해 / 13주차 1차시

1. 노인에 대한 역사적 관점

■ 긍정적인 삶의 단계 vs 부정적인 관점

1) 고대사회의 관점

- 노인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
- 노인 : 존경의 대상이자 권위의 상징
- 복지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거나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음
- 예) 우리나라의 고려장, 에스키모인들의 이주

2) 그리스·로마시대의 관점

- 그리스·로마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생활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간주하기 시작
- 사회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것은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 :
남성노인의 권위, 사회의 지배계층
- 그러나 점차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쇠퇴를 의미하는 불행한 것으로 간주
- 노인은 현명하면서 동시에 약한 존재, 노인을 영원한 젊음을 갈망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묘사

3) 중세사회의 관점

- 그리스·로마시대에 보다 수명이 짧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중세시대 노인에 대한 관점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음
- 노인은 추악하고 약하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제2의 유년기이자 전적으로 망각의 시기
- 이도 없고, 눈도 없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진 시기로 묘사

4) 근대사회의 관점

- 17~18세기에는 노인은 공적으로나 가족 내에서도 존경의 대상(by종교)
- 형식적으로 노인은 공격의 대상이었으나,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와 다소의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었으며, 사회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구분

5) 현대사회의 관점

- 현대화이론:현재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 중 하나
- 현대화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현대화가 노인의 지위상실의 주요원인이라는 것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
- 즉,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자원으로써 유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 내에서 지위와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음

2. 노인의 정의

■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

- 노인 : 나이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 호칭
- 노년 : 노년기라는 발달과정상의 시간적 의미가 강함
- 고령자 : 장년-노년층의 보다 넓은 인구계층(특히 55세 이상의 자)
- 일상용어 :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존칭), 한아비(古語)
- 영어: 늙은 사람(older person), 나이든 사람(aged), 연장자(elderly), 선배시민(senior citizen), 황금연령(golden age)
- 프랑스: 제3세대, 일본: 실버세대 또는 노년, 중국: 長年(60+), 尊年(70+)
- 학술연구에서는 '노인'이라는 중립적 용어
- 실천과 일상에서는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적절

1) 생활연령에 따른 정의

■ 생활연령:달력에 의한 나이

-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이라고 말하는 것(65세~)
- 그러나 생활연령을 노인을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정의

■ 생물학적 연령 : 신체적 외모나 운동능력, 지적 능력 등이 그 기준이 되어 평가

- 흰 모발, 주름진 피부, 구부러진 자세 등
- 생물학적 노화는 여러 다양한 과정의 산물로 이루어지며, 신체 기관의 노화가 동일한 비율로 진행되지 않음
- 발달 & 노화 :
노화는 개인차가 상당히 크며, 생물학적 연령은 지연시킬 수 있음

■ 심리적 연령 : 한 개인의 심리적 성숙도

- 심리적 연령은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며, 예기치 않은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는가가 기준이 됨
-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능력
 - Erikson의 자아통합감 vs 절망감

3) 사회적 연령에 따른 정의

■ 사회적 연령 : 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연령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의미

- 사회적 기대나 규범을 반영하는 나이
- 보편적 기대, 적령기
- 사회적 연령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함

4) 개인의 지각에 따른 정의

- 실제 나타나는 노화와는 별개의 문제로 자신이 노인이라고 지각하는 데 있어서도 집단이나 개인 간의 차이가 나타남
 -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에서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
 - 여성에 비해 남성이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지각
 - 하류계층에 비해 중산층 이상에서 노년기가 더욱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지각

3. 고령사회의 이해

1) 노인인구의 증가

- 의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기대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순위	국가	평균 기대수명
1	홍콩	85.39세
2	일본	84.62세
3	마카오	84.37세
4	싱가포르	83.74세
5	한국	83.43세
6	채널 제도	83.24세
7	노르웨이	83.21세
8	오스트레일리아	83.20세
9	스위스	83.10세
10	페로 제도	83.09세
...
69	미국	77.28세
...
74	중국	77.10세

*시점: 2020년
*자료: 세계은행
그래픽: 윤선정 인턴

-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4%
- 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20%
-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 표 1-2 65세 이상 노령인구 추이

연도	2000	2004	2008	2012	2016
총인구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	339	459	536	707	1,022
비율(%)	7.2	9.5	11.0	14.3	20.8

출처 : 통계청(2006c). 장래인구신추계.

표 1-3 세계 각국의 교령화율추이

구분	도달연도			소요연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09	40	37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출처 : 보건복지부(2006d). 통계청 자료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비 심층분석

2)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 노인의 4대 고(苦)

- 첫째, 병고(病苦) : 노년기 질병과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
- 둘째, 빈고(貧苦) :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겪는 고통
- 셋째, 고독고(孤獨苦) : 대인관계상에서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
- ➔ 은퇴와 노화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의 축소, 세대 간의 소원함과 단절 및 분리
- 넷째, 무위고(無爲苦) : 할 일 없는 적적함 때문에 느끼는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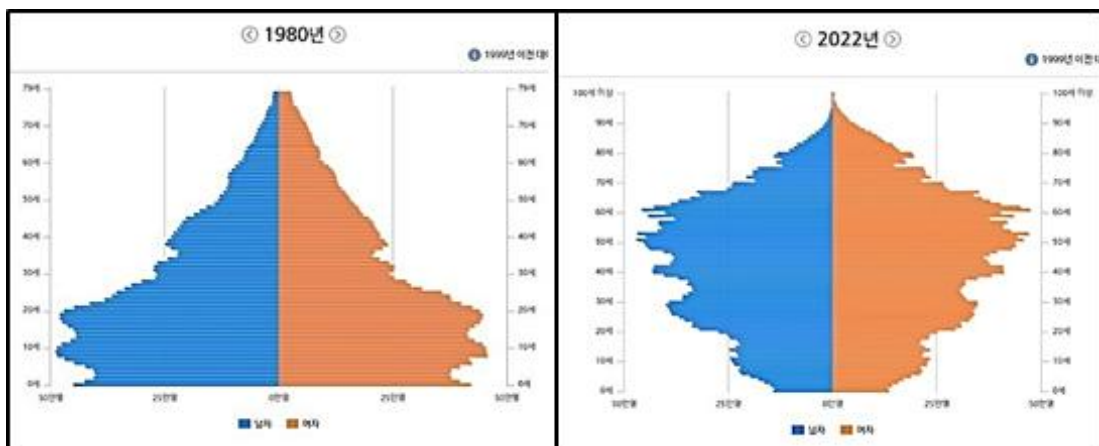
3)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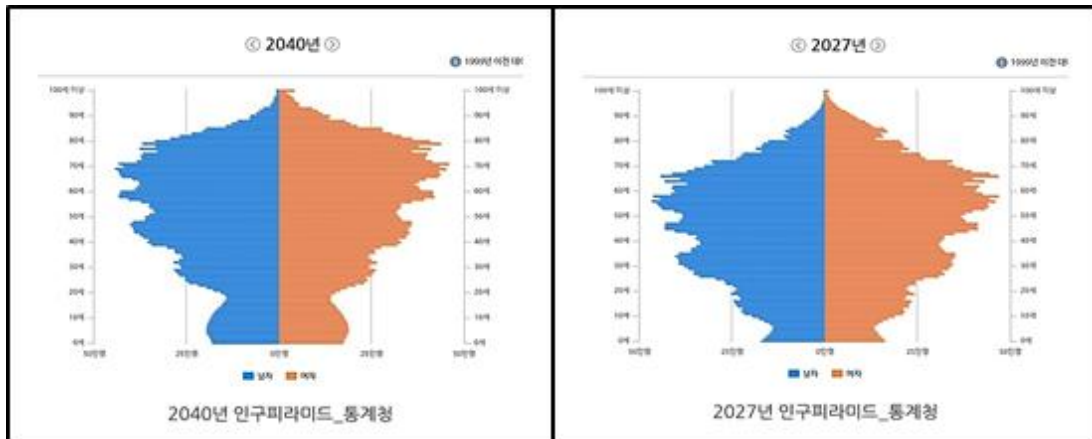
■ 출산율의 감소

-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인구 구성비의 문제

- 인구피라미드: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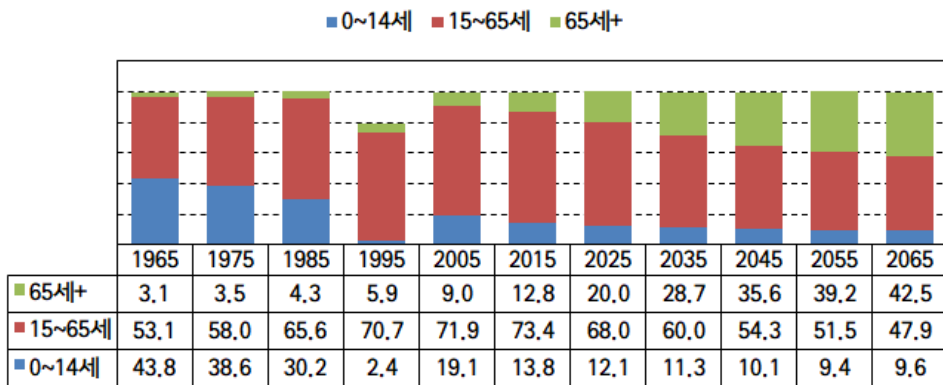


1908년도와 2022년도 인구피라미드_통계청

■ 노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전체 인구 가운데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율
 - 노년부양비가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생산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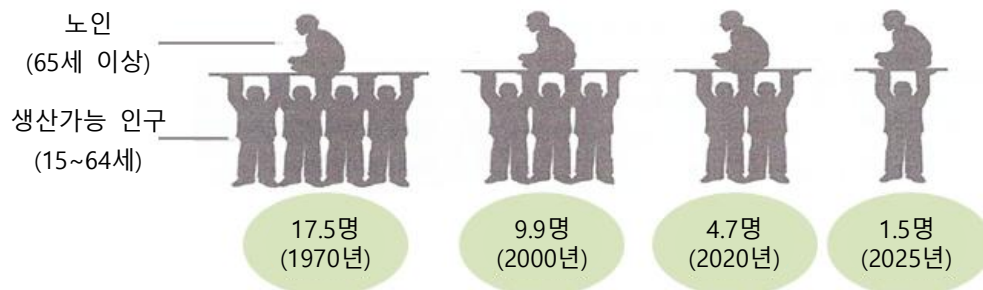
<그림 1-6>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5~2065)



(단위 : %)

■ 노년부양비

- 그림 1-4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



출처 : 통계청(2001). 인구·가구·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 자기부양의 문제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부양을 당연시하는 문화였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 노인부양에서 자기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자기부양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였다는 사람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 우리나라 빈곤의 두가지 특징 : 노인화, 여성화
- 65세 이상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 → 65.1%(남성 30.7%)
- 여성 노인 빈곤의 이유 :
 - ✓ 경력단절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점
 - ✓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점

4)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준비

- 오늘날과 같은 노동지향적 사회에서 직업은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정체감을 심어줌
-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생을 바쳤던 직업으로부터의 은퇴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 은퇴에 대한 적응은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인다 :
 - 자발적인 은퇴가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된 나라인 경우는 은퇴 잘 적응
- 경제적 측면의 준비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다각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 필요 :
 - 즉,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측면들이 다각도로 준비되어야 함

결혼의 재구성 / 13주차 2차시

1. 이혼

1) 이혼의 의미와 현황

■ 이혼 : 혼인한 부부가 법적인 결혼의 제도적 장치를 소멸시키는 것

■ 유형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협의이혼

- 부부가 자녀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협의이혼 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는 것
- 숙려기간제도
 - ☞ 개정전법에 의하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 ☞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법 제836조의 2제 2항 및 제3항 신설).
즉,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상담권고제도
 -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836조의 21항)
 - ☞ 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 및 무효 등 사건의 재판이나 조정에서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 cf) 면접교섭권
- 재판이혼
 - ☞ 이혼 소송을 하려는 사람이 소장을 제출하여 하는 것
 - ☞ 우리나라 민법(제840조)에 규정된 법률적 이혼 사유
 -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파탄주의(무책주의)

☞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

★ 무책주의, 무결점이혼이라고도 함

★ 어떠한 사유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이혼유책주의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주의이다.

즉, 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초기의 법 제도는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소극적으로 이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07년 스위스 민법에서 '혼인 공동생활이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의 심각한 파탄이 생긴 때'를 전제로 이혼을 인정한 이후 유럽 등 각 나라에서 이혼무책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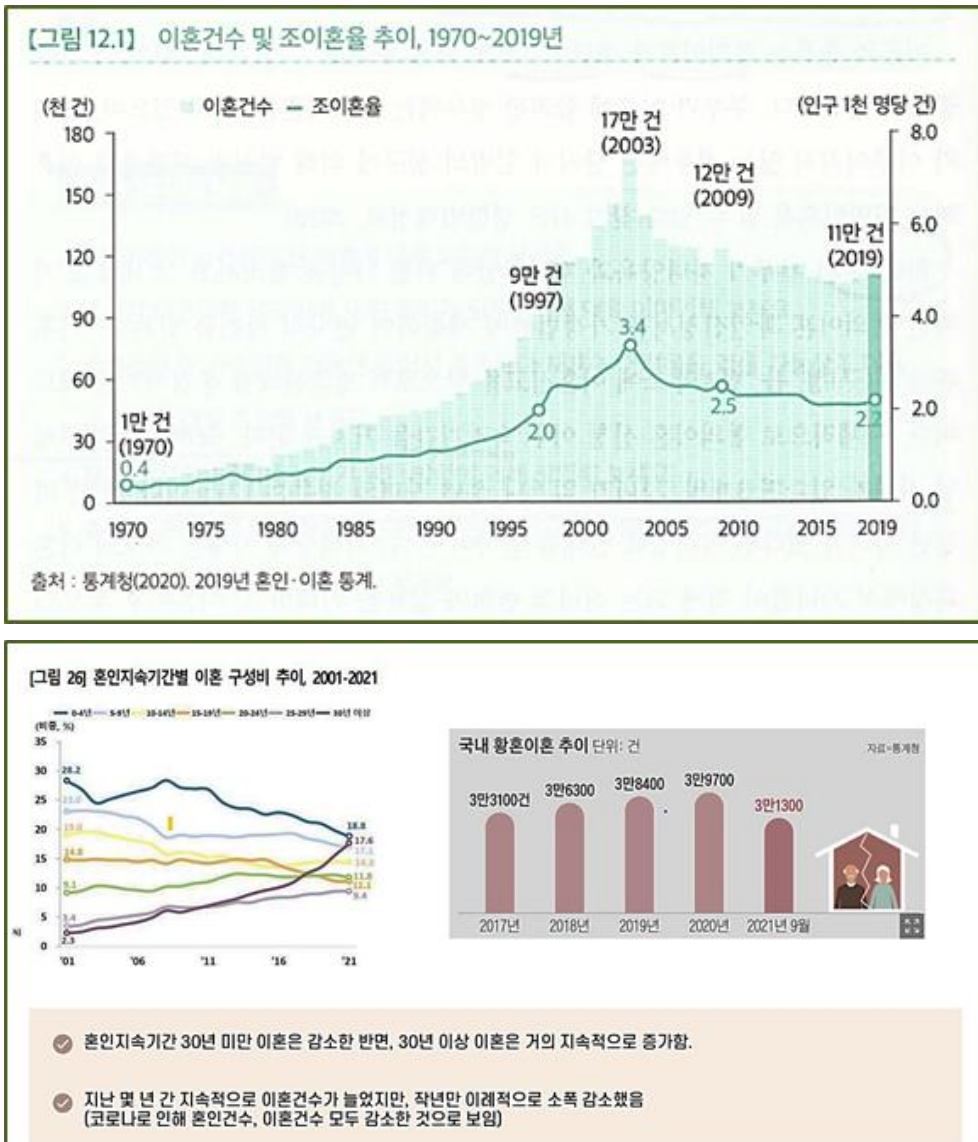
• 유책주의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

★ 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이에 반해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이혼의 의미와 현황



3) 이혼의 증가 원인

■ 가족가치관의 변화

- 과거의 부계 직계가족에서는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였으나 오늘날의 핵가족에서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시되며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 가족가치관도 변화하여 오늘날의 결혼은 두 사람의 애정에 기초한 합의적 관계로 인식되므로 가족관계가 개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더이상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분히 실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였음
-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소가족, 무자녀 가족의 증가로 자녀가 더이상 이혼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는 것도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사회적 인식의 변화

- 부정적인 관점 : 일탈로 규정. 인생의 실패
 - 부정적 관점에서는 서구에서도 이혼은 배우자의 죽음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사망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이라고 보고되고 있음
 - 이혼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
- 긍정적인 관점 : 불가피한 사회현상. 불행한 결혼생활의 해소
 - 이혼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갈등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것
-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의 증가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으로써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자의식이 강해지고 심리적 독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 과거 여성들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상황과는 달리 경제력을 확보한 여성들의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생활을 참고 살기보다는 이혼을 제기하는 가능성이 높아졌음

4) 이혼의 과정

- 정서적 이혼
- 법적 이혼 : 부부관계를 합법적으로 종결하는 것
- 경제적 이혼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부부 공동의 재산처분과 이혼 후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한 정리
- 지역사회 이혼 :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알고 지낸 친지 및 친구 등의 관계망이 분리되거나 상실되는 것
- 심리적 이혼 :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의존 정도, 이전의 결혼에 대한 애착 및 분노 등의 감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

5) 이혼의 영향

-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 경제적 부담, 시간관리, 가사노동 등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
 -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문제 경험
 - 심리적 손상
-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1) 전반적 적응문제
 - 심리적 갈등
 - (2)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은 자녀의 대처기술, 가족의 상호작용 특성 등의 보호요인이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자녀의 이혼 후 부적응에 대한 관점

- 부성실조 가설 : 이혼가정에게 생기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관점
- 경제적 빈곤 가설 : 이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는 이혼 자체보다는 경제적 빈곤에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
- 복합스트레스 가설 :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거주지의 이동, 가족의 해체, 부모의 재혼과 같은 여러 복합적인 환경요인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관점
- 부모적개심가설 : 자녀의 부적응 행동의 주요 요인은 부부 상호간의 적개심이라는 것
- 부모적응 가설 :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친권부모가 이혼 후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6) 이혼으로 인한 적응과제

- 이혼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 독립적인 정체감 확립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
- 비동거 부모의 양육비 지원과 부모역할에 대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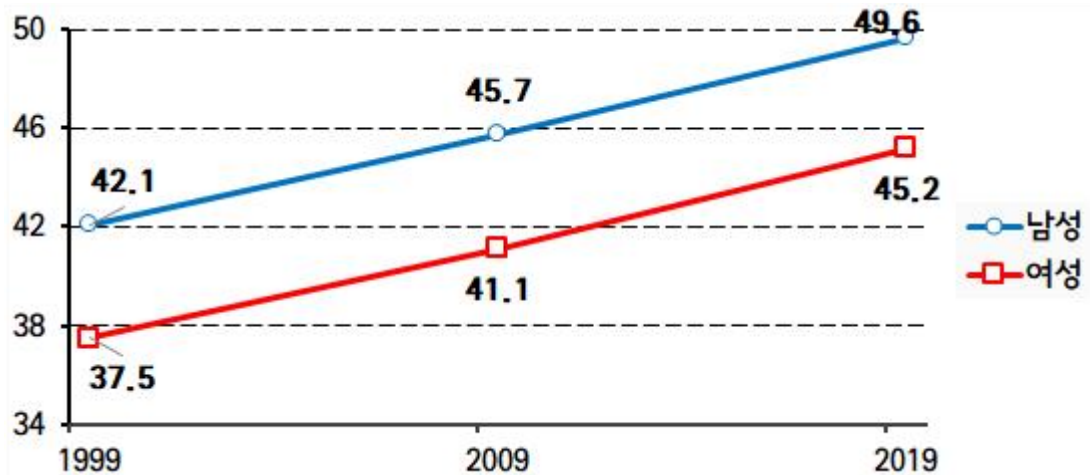
7) 이혼에 대한 사회적 대책

- 이혼예방대책
 -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함
 - 문제가 없는 부부라 할지라도 사전교육을 통해 이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위기 상태에 있는 부부는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혼을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 이혼과정상의 대책
 - 법적지원 : 부부간에 법적인 이혼이 결정되기 이전에 화해나 조정 등의 중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들이 보다 공정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되도록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
 - 상담기회제공 : 예를 들어, 이혼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경우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자신과 자녀가 겪게 될 정신적 충격 등 다양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재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
- 이혼 후의 대책
 - 이혼 후 독신이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
 - 자녀양육비나 교육비 및 생계비 보조, 한부모 수당이나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이혼 당사자와 그들 자녀의 정신적 고충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

2. 재혼

1) 재혼의 의미와 현황

- 재혼 :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성인남녀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공식적인 결혼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출처 : 통계청(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2) 재혼가족의 적응과제

- 문제
 - 빈약한 부부관계
 -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 경계의 모호성
 - 사회적 편견
 - 경제적 문제
 - 전혼의 영향

3. 줄혼

1) 줄혼의 의미와 현황

- 줄혼
 - 법적, 사회적 결혼상태는 유지되어 있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
 - 소극적 줄혼& 적극적 줄혼

2) 줄혼 증가의 원인

- 줄혼의 진정한 동기
 -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족관계, 생활패턴, 역할분담을 리셋하여 본연의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함
 -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해 맞지 않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보다 줄혼을 선택

3) 졸혼의 준비

■ 졸혼의시작은 대부분 자녀 진수기 이후에 중노년기 부부에서 이루어짐

- 준비사항

- 졸혼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 정기적인 만남을 정해야 한다
- 역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 부부의 성생활
- 가족대소사 및 가계경제 운영

가족의 위기 / 14주차 1차시

1. 가정폭력 및 학대의 정의

1) 가정폭력의 정의

- 아내학대, 아내구타, 아내폭행,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됨
-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임
- 상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밀치기부터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폭력이 있음
- 다음으로는 화를 내거나 위협 등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심리·정서적 폭력이 있으며, 욕이나 비난 등 말로써 상처를 입히는 언어폭력과 강제적인 성관계나 공격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등 성폭력이 있으며, 또한 경제권을 갖고 생활하면서 상대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지 않거나, 경제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의하여 자신의 소득을 통제당하는 경제적 폭력도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 일이 아닌 범죄로 취급되어짐
-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 고발할 수 있는 전화번호 : 위기전화 1366

2) 가정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신화

-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임
 -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구타하는 일방적인 폭력행위임
 - 그 결과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과 정신의 황폐화를 이야기함
-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음
 - 설사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 없음
- 몇 대 때리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임
 - 이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사고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내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나는 입장을 고수하는 비논리적인 태도임
- 가정폭력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서만 일어남
 - 폭력행위는 이러한 특성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음
-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술 때문에 구타함
 - 폭력이 알코올과 관련성이 높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님
 - ➔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잘못된 인식에 의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사생활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왔으나, 현대에는 부모와 자식 간이나 부부간에도 합의가

없는 묵시적이고 지나친 간섭 혹은 물리적 통제로 인한 갈등은 부부폭력과 같은 일종의 폭력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가정폭력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한 울타리 속에서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그 일상화의 심각성이 제기됨
- 또한, 가정폭력에 의해 폭력의 대상자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불안, 두려움, 공포 등으로 인한 자존감 상실과 더불어 조절 장애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음
-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는 폭력이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폭력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음

2. 가정폭력 및 학대의 실태

1)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부폭력 발생률 및 폭력유형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 (부부폭력 발생률) 지난 1년('12년 8월~'13년 7월)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2010년 53.8%에 비해 낮아졌음
- 신체적 폭력(경한+중한)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
- (폭력피해 첫 발생시기) 부부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가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 60%를 상회함
- 부부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상해)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함
-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8.2%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3.9%가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었음
- (정신적 고통)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17%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함
-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0.1%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3.3%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고 응답함
- 정신적 고통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70%,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37.7%,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 30.6%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43.6%)와 '매사에 대한 불안, 우울'(38.5%)에서, 남성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78.7%)이 높게 나타남

- (생활의 변화) 전체 응답자 중 20.2%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18.5%로 가장 높음
-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부부폭력이 일어난 당시에 68.0%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 16.8%, ‘함께 폭력행사’ 12.8%, ‘주위에 도움 요청’ 0.8%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66.4%, 남성은 69.9%가 ‘그냥 있었다’고 응답함
- 여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40.5%, ‘가족이기 때문에’ 32.8%,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19.5%였음. 남성이 그냥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38.0%,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 33.5% 순으로 나타남

- (폭력행동에 대한 도움요청) 폭력 발생 당시 혹은 발생 이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2%였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8%였음
- (도움요청 대상)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 친척’ 3.4%, ‘이웃, 친구’ 3.1%, ‘경찰’ 1.3%였음,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4%,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1%였음
 -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경찰이나 1366 등의 지원체계 이용률 보다 높았음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61.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7% 순
- 가정폭력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법률 인지도)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61.3%임

(가정폭력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 89.2%로 가장 높았음. 뒤를 이어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1.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7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유사한 추이를 보임

(법률 인지도)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9.0%, ‘내용을 잘 알고 있다’ 19.7%,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61.3%임

(가정폭력관련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 89.2%로 가장 높았음. 뒤를 이어 ‘가정폭력을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71.8%,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7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유사한 추이를 보임

가정폭력 관련법의 인지경로는 ‘TV나 라디오의 공익광고’(82.7%)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의 법률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법률을 알게된 경우 2.4%로 낮음

(공공서비스 인지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71.7%로 가장 인지도가 높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가 44.1%,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관련법 등)'이 4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등 가정폭력관련 법률서비스'가 40.2%로 나타남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 39.4%,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36.6%, '피해자의 아동취학지원' 29.9%,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27.5%, '여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20.9% 순임

2)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및 대처방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 2000년 7월부터는 전국 전화권이 16개 권역으로 광역화되어 여성부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이후 전국의 전화권력 광역화에 맞춰 144개 권역에 확대, 설치된 여성긴급전화 1366을 16개 권역으로 다시 정비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정기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1366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종합정보 안내 등의 위기개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음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문제로 심리적 상담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전문상담을 하고 의료 및 수사, 재판 등의 법률지원을 알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상담소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원 교육시간 100시간을 이수한 상담원이 상근함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보호시설 가운데 비록 수는 적지만 장애인시설, 외국인주여성 보호시설, 자녀동반시설도 있음
-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폭력방지에 대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면서 신규 설치가 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가 이용하실 수 있음
-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생활시설로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되며, 숙식 등 보호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전국에 70개('15.6월) 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비공개시설이므로 '여성긴급전화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지역 경찰을 통해 연계 받을 수 있음

■ 무료법률 구조지원

- 무료법률 구조지원은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가정폭력 피해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 여성폭력 피해자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법률 지식의 부족,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성권익을 신장하고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중요함
- 가까운 법률지원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면접, 전화, 출장, 서신 등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발급), 진단서, 고소장 사본 등을 법률지원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제출하시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부 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가정폭력 행위자 성행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행위자 성행교정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복권기금을 활용, 가정폭력 행위자 성행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후유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개념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다음에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을 뜻함
- 위협적 사건 :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부부갈등이나 이혼, 만성질병, 직업 상실 등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폭행, 강간, 테러 및 폭동, 전쟁, 자연재해 등의 사건을 뜻함
-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낮에는 고통스러운 과거경험이 머릿속에 엄습해 들어오고 밤에는 악몽을 꿈

■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 가정폭력 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라데이 : 매월 8 일로 지정된 가정폭력 예방의 날

- 여성가족부는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일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보라"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에서 쉽고 간결한 의미를 담아 캠페인 명칭으로 정함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인 점을 감안하여 간략하고 직관적인 슬로건 사용, 트위터 등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된 SNS를 통한 캠페인에 적극 활용
- 보라(LOOK)의 "OO"로 연상할 수 있는 매월 8일을 보라데일로 지정, OO는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의 눈 또는 쌍안경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

-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일상의 집을 모티브화, 두 개로 쪼개진 지붕은 보이지 않는 두 얼굴의 가정을, 열린 문은 가정 내 문제로 편견의 선을 긋지 않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자는 표현이며, 집을 둘러싸고 있는 슬로건 LOOK AGAIN은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 주자는 우리 모두의 행동을 의미

3. 가정폭력 및 학대의 이론적 접근

1) 가정폭력 및 학대의 경험을 가지고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

- 폭력을 그들 관계의 작은 부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함
- 자신이 알고 있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함
- 학대나 폭력행위를 사랑의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함
- 폭력행동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함
- 자신이 폭력을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며, 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함

2) 가정폭력의 원인

■ 알코올 사용

- 알코올 사용과 학대행동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음
- 음주는 아내에게 학대를 가한 남편이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술의 탓으로 전가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학습이론

- 학대행동의 기저에는 직접적 강화, 간접적 관찰, 모델링의 효과가 있다는 것
- 성장과정에서 폭력을 보고 자랐거나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경향이 높음

-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폭력이 강화되어 더 폭력을 행사함
- TV나 영화에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를 모방해 가정의 폭력을 부추기게 되기도 함

■ 교환이론

- 교환이론의 기본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보상감을 극대화하고 대가를 극소화하여 가능한 한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
-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대가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음

예) 아내의 잔소리가 짜증나서 아내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폭력을 행사

-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것
- 낮은 자존감이 배우자 학대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대하는 남편은 자존감이 낮고, 아내가 자신의 자존감을 위협한다고 생각함

예) 남편의 권력이 부족할 때 보상행동으로 아내에게 더 많은 신체적 학대를 행하는 것

■ 일반체계이론

- 일반체계이론은 가정폭력이 왜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둠
- 이 접근법에서는 부부학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부학대가 지속적 행동유형으로까지 되는가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체계이론적 관점은 사회의 다른 부분들과 관련을 맺으며 항상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못하므로,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본질적인 영향이 어디 있는가를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

웰다잉 / 14주차 2차시

1. 죽음의 정의와 죽음에 대한 태도

1) 죽음의 정의

■ 죽음이란

-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WHO의 정의)

• 생물학적 정의

☞ 죽음에 대한 법적 정의: 신체기능의 정지

☞ 일정기간 심장의 박동이 멈추거나 뇌의 활동이 멈출 때

☞ 죽음에 대한 신경학적인 정의 : 뇌사(일정 기간 뇌의 전기적 활동이 멈추는 것)

★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은 생명의 기본적인 표시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 장비의 발달로 인해 보다 복잡하게 되었음

• 사회적 정의

☞ 죽음의 사회적 측면은 장례식과 애도의식 및 권리와 재산의 법적 재분배에 관한 것

☞ 죽음의 사회적 측면의 상당 부분은 그 사회의 죽음과 사후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는 종교적, 법적 규범에 의해 좌우

EX) 말레이 사회에서의 죽음: 점차적인 전이 과정

EX) 방부제를 사용해서 시체를 보관하는 관습

EX) 유대인들의 전통장례

• 심리적 정의

☞ 죽음의 심리적 측면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

☞ 전통사회에서의 애도의식 : 유족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과 비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배출구의 의미

★ 오늘날 옛날의 관습들이 사라지면서 유족들은 그들의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 Freud :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행동

■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선천적인 것인지 학습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죽는 과정, 특히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 가는 과정을 두려워함

- 죽음에 대한 사회·정서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

☞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함

- ☞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이나 정서표현을 더 잘하는 것과 관련
- 연령
 - ☞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며, 자신의 죽음을 덜 두려워하는 편임
 - ☞ 젊은 시절에는 죽음의 불안이 높더라도 중년기 이후부터는 감소하여 노년기에 들어와서는 감소된 상태의 불안이 비교적 안정된다고 보고 있음
 - ☞ 죽음에 대한 노출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자신의 차례가 돌아옴을 더 현실적으로 인식
- 건강
 - ☞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죽음을 덜 두려워함
 - ☞ 단순히 중요 유무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의 존재 및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죽음을 더 쉽게 수용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도 훨씬 더 낮았음
- 종교
 - ☞ 심리적 문제가 많은 노인들은 죽음의 불안도 매우 심하게 느끼는 편이었음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
- 가족관계
 -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심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가족의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나 자매 또는 자녀 중 누군가 사망했을 경우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심해짐
 - ★ 가족과의 동거여부보다는 가족의 수나 가족 중 사망자 여부 등이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잘 설명해 줌

2. 웰다잉의 의의

- 죽음이라는 화두를 금기시
 -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잘 죽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태어나서 잘 먹고 잘사는 법 이상으로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아름답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웰빙 전문가들에 따르면, 웰다잉의 본질적인 의미는
- '죽을 준비'가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함
- 웰빙 전문가들에 따르면, 웰다잉의 본질적인 의미는 '죽을 준비'가 아니라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함
 - 웰다잉은 웰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
- 죽음과 생명은 다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귀한 삶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
- 죽는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성숙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함

- 웰다잉의 준비과정은 남은 삶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새로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재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3. 죽음 전의 심리적 변화

1) 부정

-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사실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함
-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멸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

2) 분노

- 자신의 죽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분노하게 됨
- 분노, 격분, 질투, 원한의 감정을 경험
- 부정의 단계에 비해 분노의 단계는 가족과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를 다루기 어렵게 만들
- 이 단계에서 환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 불평거리를 발견환자를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

3) 흥정

-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를 바람

4) 우울

- 말이 없어지고 면회를 사절하며 혼자서 울며 슬퍼하는 시간을 갖게 됨
- 이 시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것이 좋음

5) 인정

-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앞의 네 단계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우울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것
- 가끔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는 환자들이 있긴 함

4. 사별과 애도

1) 사별

- 배우자와의 사별
 - 배우자의 죽음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생활 사건
 - 사별이라는 스트레스가 젊은 성인의 경우에 더 큰지 노인들의 경우에 큰지는 확실하지 않음
 - 사별을 경험하는 연령층에 따라 비탄의 반응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
 - 젊은 배우자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다
 - 젊어서 사별하는 경우 같은 연령대의 모델이 적다
 - 노년기 사별의 경우 오랜 결혼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동반의식이 손상 받는다
 - 젊어서 혼자된 경우 재혼의 기회가 더 많다
 - 사별이 남성에게 더 힘든 일인지 아니면 여성에게 더 힘든 일인지도 확실하지 않음

- 사별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의기소침하고 심리적 곤란을 더 많이 겪는다는 연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사별로 인한 비탄수준은 비슷함

■ 부모와의 사별

- 부모와의 사별은 그것이 아동기든, 청년기든, 성인기든 어느 시기에 발생하든지 간에 오랜 시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노부모의 죽음은 젊은 부모의 죽음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연구가 있음

2) 비탄과정

■ 충격

- 처음 얼마 동안은 격렬한 슬픔에 압도되어 충격과 의혹의 상태에 빠짐
- 상실에 대한 분노와 고인의 생존 시 더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

■ 그리움

- 고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인이 살아있다는 느낌에 사로 잡힘
- 불면증, 극심한 슬픔,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할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함

■ 절망

-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슬픔의 감정은 약해지지만 이제 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울증, 절망감에 빠짐
- 매사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패배감을 느끼기도 함

■ 회복

- 일상활동을 재개
- 대체로 사별 후 1년 이내에 나타나며,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심한 고통과 그리움보다는 평온한 감정으로 고인을 회상할 수 있게 됨
-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취미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

3) 장례 : 애도의식

■ 장례 : 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고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식

- 장례식은 슬픔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비탄 과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 장례 절차는 유가족의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 따른다
- 장례 절차에서 시신은 보통 매장하거나 화장을 한다

■ 장례 의식의 기능 및 역할

- 비탄 과정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줌
- 죽은 이와 남은 이들에게 각각 고인과 유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해줌
 - 사회적 역할
 - ☞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지
 - ☞ 관청에 사망신고를 한 뒤 호적에서 말소

- ☞ 상속 등의 상속
- 물리적 역할
 - ☞ 사자(死者)의 시신체는 생명을 잃음에 따라 부패가 시작되므로 시신을 땅에 묻든가 불에 태워 처리하는 것
- 문화, 종교적 역할
 - ☞ 사자의 영혼을 위로
 - ☞ 저승에서의 평안을 빌기
 - ☞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주는 것
- 심리적 역할 : 비통한 심정을 표출하는 수단

5.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 죽음, 죽음의 과정, 사별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교육을 포함하는 것
- 개인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진행과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바람직하게 갖게 하고 정보를 나눔으로써 죽음에 대한 준비하는 것
- 초창기 죽음 준비교육의 목적 :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것에 집중
- → 점차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
- 죽음 준비교육의 가지 수준
 - 지식 수준 : 죽음학에서 다루고 있는 죽음, 임종, 사별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연구결과들
 - 가치관 수준 : 말기환자의 생명연장, 안락사의 문제 등
 - 정서적 수준 : 개인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죽음에 대한 접근
- 2000년대 들어와 종교계에서 시작
- 노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
 - 인생 그래프 그리기 :
 -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 그래프 작성을 통해 연대별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유언장 작성하기 :
 - 자신의 죽음을 현실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버킷리스트 작성
 - 임종체험

■ 죽음의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해방시켜 주는 효과

[표 13.3] 웰다잉 프로그램

구분	내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죽음준비교육의 이해로서 교육생 서로 인사나누기 : 친밀감 형성과 참여자들이 죽에 대해 관심부족, 죽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공보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인식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하여 살아오면서 겪었던 죽음에 대한 힘들었던 시간, 죽음불만의 행동적 표현방식, 자신의 감정과 반응, 죽음에 대한 태도와 영향 요인에 대해 알고 또 다른 행복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 미래 인생 그래프를 설계하면서 죽음의 과정과 임종 간호, 연명치료, 사전의료지시서 작성법, 임종 대상자 돌봄과 연명치료의 문제점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사랑 나의가족'을 주제로 나의 존재 의미와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나를 만들기, 타인을 돕는 법을 알고 인식하도록 함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인간관계 일기 : 건강한 이별을 위한 준비 사별 후 경험하는 애도 과정을 알고 슬픔에 빠졌을 때 스스로 돕는 법과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알도록 함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과 유언, 장례문화와 상례, 제례의 장법에 대해 알고 자신의 장례식을 그려 보도록 하여 미래의 죽음준비를 해보게 하였고 유서 쓰기와 묘비명 쓰기의 활동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
7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의미 찾기 주제로 삶의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탐색하도록 함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와 삶의 목표로 주제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핵심가치를 탐색하여 그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워 보게 하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자신의 강점과 긍정에너지를 인식하게 함

출처 : 변미경 외(2007). 웰다잉 프로그램이 노인의 삶의 의미,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효과.